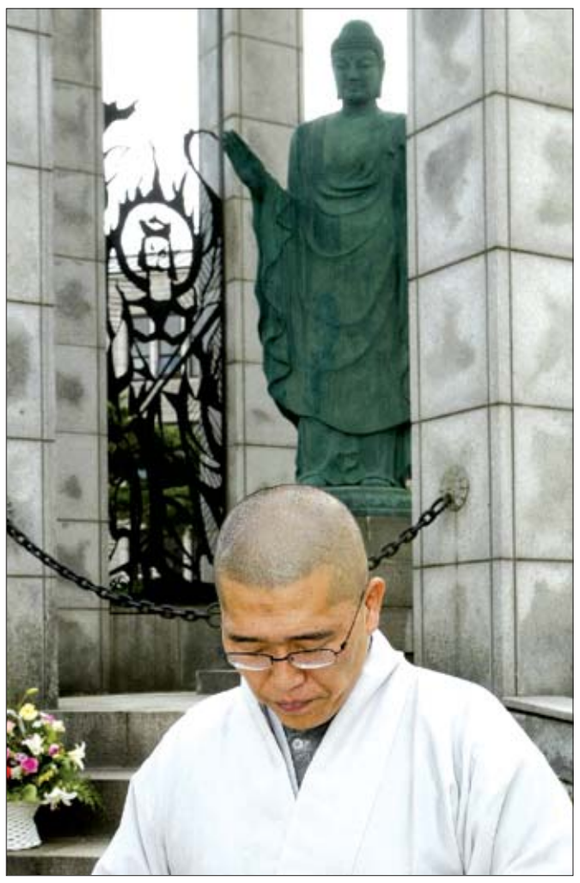
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 buddhanews.com |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10월 10일(음력 8월 30일) 수요일 (주간) 제648호

“東大 이사진 책임지고 물러나야”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정범 스님이 최근 신정아씨 사건과 관련 동국대 교정에 있는 불상 앞에서 참회를 촉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

학력위조 사건 등으로 학교 명예 ‘바닥’
교수회·승가회 등 사퇴 촉구 한목소리

신정아씨의 학력위조 사건과 관련해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동국대에 학교당국의 참회와 재단이사진 사퇴 요구 등 인적 쇄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학교당국과 재단이사회는 특단의 조치는 커녕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동국대 교수회(회장 이종욱)는 10월 1일 선언문을 통해 “두 차례의 이사회에서 공론화된 신정아 문제를 상호 정쟁의 시각에서만 처리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상황을 초래한 책임이 분명 법인 이사회에 있음을 자각하고 마땅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교수회는 대학당국에 대해서도 “세 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당한 굴욕까지 겪게 만든 책임은 현 대학당국에 있다”며 “대학당국은 이를 직시하고 참회와 자정으로 우선 재학생과 동문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효림 · 성관)도 1일 동국대 재단이사 전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승가회는 이날 창립 15주년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우선 동국대학교 이사회는 최근 사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지고 이사장 이하 이사진 전원의 사퇴를 재차 촉구한다”며 “특히 이사장 영배 스님은 신정아씨 학력 허위 사실을 인지한 이후인 지난 7월 2일 교계 기자회견을 열어 ‘학위가 가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흥덕사 특별교부금 지원 의혹에 휩싸이는 등 종립학교 최고책임자로서 도의적, 행정적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국대의 한 교직원은 “학교 명예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는데 책임지는 이는 하나도 없고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학교 내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침체돼 있으며, 외부에서도 곱지 않은 시각이 높아 이대로 가다간 졸업예정자들의 취업에도 지장을 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설상가상으로 동국대는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2016년까지 시행할 ‘인문한국(HK)’ 지원 사업에서 탈락한데 이어 BK21 ‘세계화시대 불교학 교육연구단(이하 불교학 연구단)’은 지난 9월 17일 발표한 2단계 BK21 사업 평가도 ‘사학 · 철학’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특히 불교학 연구단은 부진한 평가 결과로 인해 1억여원 정도의 예산이 삭감 되는 등 불교학 연구에도 큰 지장을 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올해 초 취임한 오영교 총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108 프로젝트’ 등 학교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도 최근 신정아씨 사건 조사 등에 소진하는 바람에 현재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한편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인 정범 스님(옥천암 주지)이 10월 4일 오전 9시부터 서울 동국대 교정 불상 앞에서 참회기도를 시작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범 스님은 “신정아 학력위조 사태로 시작된 종단의 위기 상황에 대해 동국대 동문으로서 또한 종단 종회의원으로서 참회 한다”며 “불교계의 현 위기 상황 속에서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앞서 내 스스로의 조그마한 양심이 남아 있음을 확인하고 싶고 힘을 얻고자 기도하고 싶어 왔다”고 말했다.

글=김주일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종교의 힘으로 南北간 벽 허물자”

지관 스님, 남북정상회담서 종교계 교류 추진 제안

10월 2일~4일 3일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2007 남북정상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참가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 종교계 수행원 4명이 올해 남측에서 ‘남북의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 것을 북측에 제안했다.

10월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종교계 수행원들은 “‘10.4 선언’을 뒷받침할 ‘평화에 관한 종교계 선언’을 추진하고, 6.25를 전후한 시기에 남북의 종교 · 문화예술 · 체육분야에 걸쳐 ‘평화주간’ 행사를 개최하며, 남북 종교계 교류의 정례화와 쌍방화를 추진할 것을 북측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남측 종교계 단장을 맡은 지관 스님은 “통일을 위해서는 우선 대립을 없애 평화와 번영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남북 간에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북측에 전했다”면서 “이를 위해 교류활성화가 더욱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지만 종교별 교류 사업에 대한 구체적 제안이나 합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관 스님은 남북정상회담 종교분과 모임에서 기조발언문을 통해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종교 간의 활동을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끌어 올려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고, 남북 공동 번영과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사업을 종교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민족 통일과 화해를 위한 종교 행사를 문화, 예술, 학술 분야와 함께 남북이 공동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우리 종교계에서는 각각 교인들에게 민족 통일과 평화, 화해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관 스님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사진기자단>

한편 지관 스님은 10월 2일 정상회담에 참가하며 “남북의 불자들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금강산 신계사를 지난 4년 동안 공동으로 복원하고 오는 10월 13일 낙성식을 앞두고 있다”며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진전된 민족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남동우 기자

“문화재보호조례개정안 반대”
문화재사찰위, 저지 방안 마련

조계종 문화재사찰위원회(위원장 현응)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보호조례개정안’을 강력 저지키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과 경기도청 항의 등 다각도의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문화재사찰위원회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시행령’에 따르면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부터 500m 이내에서 건설공사 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 문화재 영향 검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가 하위법인 조례를 불법적으로 만들어 국가지정문화재와 시 · 도지정문화재를 동일하게 200m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입법추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문화재훼손을 가속화해 실질적인 문화재보호정책의 후퇴는 물론 문화재적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리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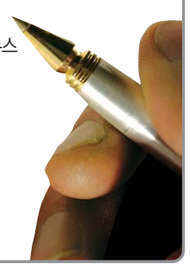
남동우 기자

社告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2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신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 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 주제 :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접수처 :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마감 : 2007년 12월 17일
- 당선작 발표 : 2008년 1월 1일자 본지 및 붓다뉴스
- 문의전화 : (02)2004-8282
- 이메일 접수 : jygang@buddhapia.com
- 시상 부문
  - 대상(유마상)
  - 우수상(본사 사장상)
  - 특별상



고품격 장수 발효식품 100%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옻이 오르지 않고 참 옻의 약성을 섭취하는
❖산사 참 옻 조청
1.2Kg – 현 시세
❖산사 약도라지 조청
1.2Kg – 현 시세
불자님들을 위한 정성 산사조청원
주문처 054-372-3166
입금계좌 : 농협 727077-52-056761(예금주:현순희)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취급업무◆
민사 · 형사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5 (김기헌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PR〉


실물크기(3.5×5cm) 금강경 23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 보급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이 있으며 크기가 3.5 x 5cm, 5 x 7cm으로 복장의식 및 소장용으로 휴대가 가능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1 평화음악회
일시 : 2007년 10월 19일(금) 오후 5시30분~8시
한국(가야금), 중국(얼후, 비파), 일본(사미센), 인도(사로드) 등 각 국가 전통 현악기 연주
설운도, 팝핀 현준, 포스(Four's), 현숙, LMB Singers 외

2 법흥사 중창불사 10주년 기념법회
일시 : 2007년 10월 20일(토) 오전 10시

3 법흥사 중창불사 1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일시 : 2007년 10월 19일(금) 오전 10시~오후 4시

4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 증진을 위한 문화한마당
일시 : 2007년 10월 20일(토) 오후 5시

5 우리농산물 직거래장터-영월지역 농특산물 판매
기간 : 2007년 10월 18일(목)~20일(토)

6 외국인 템플스테이
기간 : 2007년 10월 20일(토)~10월 21일(일)

7 평화음악회-현의 어울림 재공연
일시 : 2007년 10월 20일(토) 오후 2시~3시

8 체험프로그램-유명 서예가 가훈써주기, 선묵화 체험, 염주만들기, 한지공예, 꽃누름 체험, 다도체험

조계종 '조선일보 거부 운동' 결의

●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회의

조계종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이 '조선일보' 구독 거부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과 관련 동국대 전 이사 사퇴와 관련자 징계를 강력히 요구했다.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10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4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최근 종교적 편견과 정치적 의도로 불교 위상을 손상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일간지 '조선일보'에 대해 거부운동을 범불교적으로 전개한다"고 결의했다.

이와 관련 △전국의 본말사와 신도 · 신행단체, 불교 신도들은 '조선일보' 구독을 거부한다 △전국 사찰 및 불교 기관에 조선일보 구독거부 현수막을 게시한다는 행동 지침을 내렸다.

문화방송(MBC)에 대해서도 "종교적 편향의식으로 수차례 불교를 훼손 폄훼 보도하고 있는 문화방송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면서 보도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며 "2000만 불교도와 함께 예의주시하고 강력 대처할 것"임을 천명했다.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이 '조선일보' 구독을 거부하기로 결의한 것에는 조선일보가 9월 21일자 신문을 통해 신정아 사건과 관련해 평창 월정사에 특혜성 국고지원 의혹을 보도했던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보도가 나오자 9월 28일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 등이 한나라당을 항의방문했고, 조선일보는 10월 2일자 신문에서 "문화재청이 2005~2007년 사이 월정사에 국고 47억원을 지원한 것은 신정아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과는 관련 없이 사찰의 문화재 보수 · 정비 · 복원 차원에서 2004년부터 적법 절차를 거쳐 예산에 편성돼 2005년부터 집행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정정보도했다.

또 "한나라당은 1일 '월정사 국고 지원 문제를 신정아씨 교수 임용과 연관 지어 보고 있지 않으며, 그것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신정아 사건과 관련 △동국대 법인 이사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책임 지고 전 이사는 사퇴할 것 △총무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확히 규명하고 관련자 징계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중앙종회에 대해서도 각종 분규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종책모임이 육화정신에 입각해 종단 발전에 필요한 공의를 모아주기를 요청했다.

교구본사주지스님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사찰 관리 운영과 관련해 발생한 몇몇 사찰들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표한다"고 전제했지만, 언론기관과 수사당국, 정부당국, 정치권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성명서에서 "언론기관은 사실 확인 되지 않은 사안을 광범위하게 유포하고 경쟁적으로 선정적인 보도를 해 불교의 위상을 손상시켜 온 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특히 특정종교 편향성을 보이는 일부 언론의 경우 이런 경향이 농후한 바 이런 보도가 재발할 시 명예회복을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수사기관도 수사과정상의 각종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함으로서 피의사실을 재판 전에 공표하지 못한다는 국가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직시해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에 대해서도 "국가 문화재와 문화유산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문화재와 문화유산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 대해 "더 이상 정치적 의도와 종교적 편향으로 불교계를 폄훼하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중앙종회도 신정아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중앙종회는 9월 27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일부 신문과 방송이 이번 신정아 학력위조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 마치 불교계가 부정의 온상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고지원 사업 관련 보도를 예로 들며 "특히 일부 언론의 보도는 그 도가 지나쳐서 혹시 불교를 음해하려는 조직이나 배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월정사 특혜의혹 보도 등으로 불교계 위상 손상"
수차례 불교 폄훼 방송한 MBC에도 경고 메시지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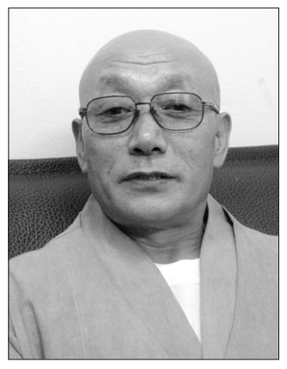


북한 수해민 돕기 쌀 108가마니 기증

서울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10월 1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사진 왼쪽)을 예방해 북한수해복구 돕기 기금 및 쌀 108가마니를 기증했다. 남동우 기자

"승적·법계 관리 철저히 할 것"

법륜종 제6대 총무원장에 혜봉 스님



한국불교법륜종은 9월 29일 논산 총무원에서 정기 중앙종회를 열고 제6대 법륜종 총무원장에 혜봉 스님(의정부 대성사 회주 · 사진)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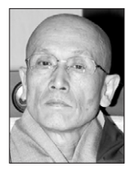
1961년 양산 통도사에서 대휘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혜봉 스님은 1984년 한국불교 승가회 사무총장을 거쳐 1988년 법륜종 총무원 총무부장, 1990년 포교원장, 1995년 교육원장, 1998년부터 현재까지 중앙종회의장 등을 맡아왔다.

혜봉 스님은 "우리 종단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종도들의 화합과 승려 기강 및 교육이다"며 "승적 및 법계를 철저히 관리해 위계질서 확립을 철저히 하고 종풍 진작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올해 말 목포 종합복지타운 개원을 시작으로 종단차원에서 전국에 유아원과 양로원 등 10여 곳의 복지시설을 설립할 것"이라며 "아울러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종무행정과 종도 교육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총무원 청사를 시급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주일 기자

공주 마곡사 주지 직무대행 덕상 스님



조계종 총무원은 10월 1일 공주 마곡사 주지직무대행에 덕상 스님(사진)을 임명했다. 이에 앞서 마곡사는 9월 28일 종무회의를 열고 덕상 스님을 주지대행으로 임명해 줄 것을 총무원에 요청했다.

1964년 사미계, 1985년 구족계 수지한 덕상 스님은 제11대 중앙종회 의원과 만일사, 대조사 주지를 역임했다. 한편 前 주지 진각 스님은 9월 21일자로 총무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남동우 기자

태고종 '법고 경연대회' 개최

진리의 법음을 널리 울릴 '법고 경연대회'가 열린다.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개관을 기념해 10월 17일 오전 10시 전승관 대회장에서 제1회 법고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경연대회에서는 9월 10~30일 치러진 예선을 통과한 태고종 스님 50여 팀과 당일 예선전을 거쳐 본선에 오른 승 · 재가 참가자들이 겨루게 된다. 법고와 법고춤 부분으로 나눠 치러지며, 법고 연주 시간은 5~10분으로 제한된다.

이번 법고대회에는 승 · 재가, 종단,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대회 당일 접수하는 사람은 1층 전승관에서 개최되는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를 수 있다. 대상 1명과 금상 · 은상 · 동상 · 장려상 각각 3명에게는 상장과 부상이 주어진다. 태고종은 대상 2회 수상자에게 태고인 명인 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여수령 기자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주)에이치비엠씨)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조동종 금강사 이운법회 봉행

대한불교조동종 양평 금강사는 10월 3일 부처님 이운법회 및 주지 진산식을 봉행했다. (사진)

이날 법회에는 부종정 덕호스님, 총무원장 덕우 스님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 덕우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불교의 자비정신과 보살의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교화하여 부처님의 정토로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금강경' 편찬 2차 세미나 개최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는 10월 12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금강경> 편찬을 위한 제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김무봉 교수(동국대)가 '언해본 <금강경>과 한글 번역'을, 각묵 스님(화엄학림 강사)이 '범본과 한역 <금강경>의 내용 검토'를, 연관 스님(前 화엄학림 학장)이 '<금강경> 주요 개념 및 용어의 번역 문제'를, 조현춘 교수(경북대)가 '<금강경> 한글 번역상의 문체와 운율 문제'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여기에 이성운 정우서적 대표, 전영화 <금강경> 연구가, 김호성 교수(동국대), 김영운 교수(한양대)가 각각 논평을 한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신문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영상광고는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자극하는 생생한 메시지 전달력으로 이미지 형성 및 설득력이 빠르고 정확합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 행사, 개인다큐(자서전), 단체 사찰순례, 강의, 법문, 기업 성지순례, 기업동영상홍보제작
▪현대불교 영상사업단장/감독
김봉환(前 KBS/동아TV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 문의 : 02-2004-8279

제1362주년 佛之宗家 國之大刹 양산 통도사 개산문화대재

통도사의 오랜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간직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대조사의 외호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다가오는 음력 9월9일을 맞이하여 자장율사의 연고재를 봉행함으로써 그 높은 덕화를 기리고자 합니다.
이로써 큰스님들의 높은 뜻을 잇고자 하는 공양의식과 다채로운 개산문화대재를 봉행하오니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있으시길 바랍니다.

불기 2551년 10월 좋은날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아산 정우 합장

문의처 055-382-7182 / 055-381-1288
차량운행 부산온천장 지하철역 앞 오전8시~9시

행사안내
10월18일(음력 9. 8) 목요일
▲개산문화대재 사생대회/설법전
▲쾌불특별전 (천안광덕사)/박물관
▲산사음악회 (신시뮤지컬 컴퍼니)
10월19일(음력 9. 9) 금요일
▲불공의식 (상당불공)
▲개산 문화대재 법요식 사생대회 시상식/설법전
▲부처님. 자장율사 가사친견전
▲부도헌다례/부도전
▲만등 점등식/대웅전앞
▲"굿계 흥" 사물놀이공연 · 재롱잔치
10월20일(음력 9.10) 토요일
▲동아시아 불교문화 학술대회/설법전
(불교에있어서 계단의 구조와 의미)
10월21일(음력 9.11) 일요일
▲이주 외국인을 위한 행사
※ 보행로에서는 10월18일부터 21일까지 농수산물장터, 지역도자기 전시회, 띠달기, 지역사진 동아리사진전시회, 야생화전시회를 가집니다

불교계 "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지"

교계 단체 연합 대책기구 구성·모금 운동 등 전개

"지금까지 스님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000여 명 이상이 군부에 의해 납치 · 감금됐습니다. 군부는 젊은 스님들의 집회 참여를 막기 위해 큰스님을 무참히 죽이고, 군홧발로 법당에 난입해 불상을 부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얀마의 불교문화는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한국 '버마행동(Burma Action)'의 뚜라(Thu Ra)씨가 전하는 미얀마의 현 상황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스님과 시민들에 대한 군부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이 자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불교계에서도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는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사회연대위원회와 대한불교청년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국제포교사회 등 불교단체들은 10월 10일 '불교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조계사에서 지지법회를 봉행할 예정이다.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신도회 이상근 사무총장은 "불교대책위원회는 사태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국내외에 알려 불교인들의 책임의식을 고취시킬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 국제불교단체들과 연대해 국제여론에 호소하고 항의방문단 구성, 기금모금 등의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얀마 성지순례 여행사에 대한 철수 요청도 검토 중이며, 전국 순회강연과 사진전을 개최해 실상을 알려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2일에는 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을 비롯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 3200만원을 버마민주동맹(NLD) 한국지부에 전달했다. 이날 실천불교전국승가회가 소속된 민족의화해와통일을위한종교인협의회(공동대표 효림, 이하 종교인협의회)도 서울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를 열고 무력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종교인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무력탄압 즉각 중단 및 시위 참가자의 인권과 안전보장 △아웅산 수치여사의 가택연금 해제 및 정치범들의 석방 △폭압적인 군사독재체제 종식 및 평화적인 정권이양을 촉구했다.

단체들의 성명도 잇따랐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자승 스님과 중앙종회 종책모임인 화엄회 · 무차회 · 금강회 · 보림회는 9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구속된 스님들을 석방하고 모든 권력을 민간에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민주화운동에 모든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와 참여불교재가연대는 9월 27일,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과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9월 29일 각각 성명을 발표하고 미얀마 군사정권의 폭력시위진압을 비난하고 국민에 대한 정권 이양을 요구했다.

9월 22일 정부의 급격한 유가 인상으로 촉발된 미얀마의 반정부시위는 군부의 유혈탄압과 군사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현재 스님을 주축으로 한 가두시위 대신 또 다른 방식의 시위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동우 ·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조계종 종책모임 화엄회와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은 10월 2일 호치민외국어정보대학교 강당에서 지역민 100명에게 장학금 1만 달러를 수여했다.

화엄회, 베트남에 교육·복지 시설 건립

고엽제 피해자·장애인 등에 장학금 지원도

조계종 종책모임 화엄회(회장 지명)가 베트남에 교육 · 복지 시설을 건립한다. 또 고엽제 피해자를 비롯해 고아, 장애인 등에게 장학금을 지속적으로 전달한다.

화엄회와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은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해 직업기술학교, 고아원, 연수원 등을 갖춘 교육 · 복지시설을 건립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호치민시 구찌현, 롱안성, 롱후현, 따이닌성 쩌우탄현 등 베트남 정부가 제공하기로 한 토지 4곳을 답사한 후 호치민시 시내에 인접한 냐베 지역의 2헥타르를 우선 매입키로 잠정 결정했다. 시설에는 먼저 직업기술학교가 들어서며, 연수원, 법당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화엄회는 10월 2일 호치민외국어정보대학교 강당에서 고엽제 피해자, 장애 아동, 고아, 대학생 등 100명에게 장학금 1만 달러를 수여했다. 화엄회는 매년 100여명을 선발해 지급할 예정이다.

화엄회는 이번 방문에서 베트남 불교협회 지도자 등과 면담을 통해 양국 불교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2일 호치민시 불교협회 회장단과 면담한 자리에서 호치민 불교협회 부회장 팃냑꽝 스님은 "한국불자들이 베트남 불자와 국민을 위해 교육과 복지 분야를 후원해 줘 감사하다"며 "화엄회와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 진행하는 베트남 현지 교육 복지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화엄회는 1일 베트남 고엽제피해자협회 회장단, 장애인단체 대표, 복지시설 대표자 등 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두 나라의 민간교류 확대를 다짐했다.

화엄회는 2004년 발족과 함께 국제교류 활성화 등 10대 종책 과제를 수립했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몽골, 미얀마 등 3개국을 선정했으며, 2006년 베트남을 우선 국제교류 국가로 선정했다.

베트남 방문에는 화엄회 고문 자승, 운영위원장 성직, 부회장 성월, 부회장 정묵, 대변인 돈관, 간사 덕문 스님과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이사 성운 스님 등 7명의 스님이 참여했다. **남동우 기자**

불자여성 리더를 위한 리더십 심화과정 신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인숙) 산하 사단법인 지혜로운 여성은 여성리더십교육 심화과정을 신설,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여성리더십교육은 2005년부터 기본교육이 진행돼 지금까지 3기가 수료했다. 심화과정에서는 불자여성 리더들의 자기 계발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과 사회적 역할 증대에 필요한 리더십 기법 등의 프로그램이 더해졌다. 자비명상전문가 마가 스님(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과 김남선 소장(참교육상담소), 진민자 이사장(사단법인 청년여성문화원) 등이 강의를 맡는다.

심화과정은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조계사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된다. 선착순 50명 모집이며 참가비는 12만원.(02)722-2101 **여수령 기자**

"종교인 장기기증 인식 바꿔야"

생명나눔, 세미나 개최

종교인은 장기기증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까. 불자들의 장기기증 현황과 인식은 어떠할까.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 · 이하 생명나눔)가 10월 19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생명나눔은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3개 종교 장기이식 단체와 함께 종교인들은 물론 사회 전반의 장기기증 인식을 바꾸자는 취지로 이러한 세미나를 기획했다. 현재 우리나라 뇌사자의 장기기증은 인구 100만명 당 2.6명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생명나눔 정복자 사무총장은 "아직 사회적으로 뇌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장묘문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장기기증 성사율이 낮은 것 같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대국민 인식전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서는 동아대 이상목 교수가 '종교인의 뇌사 및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장 박진탁 목사가 '종교가 장기기증에 미치는 영향과 참여도', 경희대 동서신의학병원 김명재 교수가 '한국인의 심성과 관습이 장기기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한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질 토론에서는 △장기기증 활성화 방법 △장기기증의 종교적 접근 방법 △각 종교 장기기증 홍보 태도의 문제점 또는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토론자로는 천주교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박정우 신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 성터교회 담임목사 방인성 목사가 나설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장기이식 대국민 인식전환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7월 진행됐던 세미나에 이어 2차로 진행되는 것이다. (02)734-8050

김강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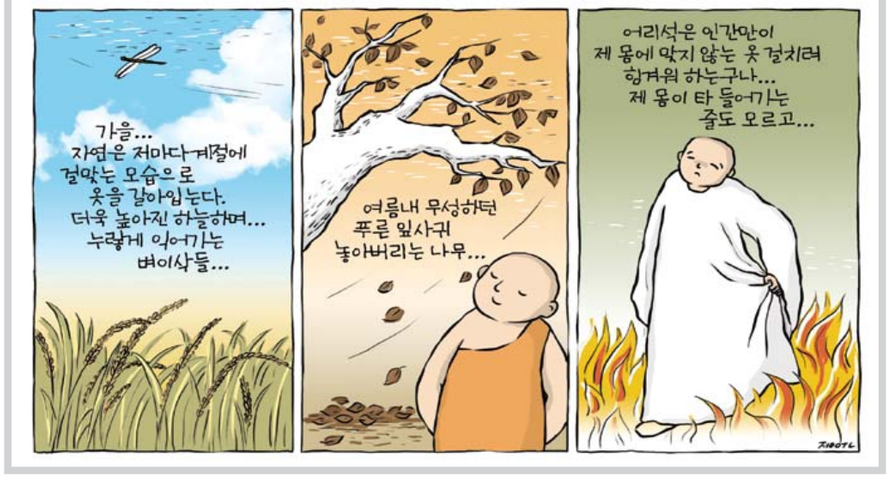


그리미회 두번째 회원展 개최

불화 그리기 아마추어들의 모임 그리미(회장 신영길)가 두 번째 회원전을 10월 17일부터 23일까지 서울 불일미술관에서 연다. 지난 2004년에 이어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소속 회원 6명의 후불탱화 영산회상도 수월관음도 등 전통불화 25점과 40여점의 소품이 출품된다. **임연태 기자**

I love Buddha /자신에게 맞는 옷입기

용정운(www.zentoon.com)





평생염주 축원불공 마치고 시판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천연백수정 108염주가 수일시판하고 있어 화제되고 있다. 천연백수정은 바위에 석불을 만들고 석불이마에 영험을 발하기 위해 백수정을 집안에 어품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을 구제하고 부처님광명으로 맑고 깨끗한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뜻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영원불멸의 부처님 보석이라하여 천연백수정을 간직하고만 있어도 평생행운과 건강을 지켜주며 원하는 소원이 꼭 성취된다는 행운의 보석으로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와 아라비아 상인, 징치가, 지도층 인사들의 진품모자에는 어떠한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한다는 행운의 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볼수 있다.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 사업을 하고 계신 분, 중대한 시험을 앞둔 분, 소중한 인연을 찾고 계신 분, 건강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등은 필음으로 사용하면 원하는 소원이 성취된다는 평생염주다. 천연백수정 염주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으시고 사용하실 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백수정108염주외 특별선물로 일반인에는 손목단주를 스님께는 합장주를 드립니다.

영원히 살아 숨쉬는 승리의 염주

가격95,000원 전화 : (02)741-4477
농협:053-02-228720 이진경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과 명예를 얻는 영험의 지갑!!!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힘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도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법구에는 세상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각종비방의 법구와 진언이 많이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는 신묘(神妙)법구에는 "보병"과 "반장"이 있고 진언으로는 "육자대명왕진언"이 있다. 불경에 지혜로운 중생은 빨리 깨달아 15가지 재앙을 물리치고 15가지 무량대복을 받아 공덕을 쌓으며 그 이름이 세계에 빛날것이라고 했다. 불경에 맞춰 신묘(神妙)법구를 넣어 모든일이 풀리게 만든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大悲神力)의 신통한 증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역난도 다 소멸되게 불교의식인 점안식까지 마친지갑이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법구인 "보병"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음양의 조화로 만사가 풍요로워지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남성용반지갑65,000원 여성용장지갑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제사용 백연화 강신향로

99% 황동으로 제작! *후손에게 물려줄 가보!*

제사를 지내는 의식중에 제일 중요하고 엄숙해야 할 의식이 첫번째로 분향이다. 신위(神位)께서 오시도록 향로에 향을 피워 인도하는 의식으로 제사용어로 강신(降神)이라 한다. 강신은 제주(祭主)를 위시하여 제사에 참석한 모든이들이 신위 앞에 선다음 제주는 무릎을 꿇어 향로에 분양을 한다. 이때 신위께서는 한가지 눈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후손들이 행동가짐도 바르게 해야하고 음식도 정갈하게 하며 향로 또한 몽롱모양등의 조각이 없는것을 사용해야 한다. 백연화 향로는 하얀 연꽃이란 뜻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신위(神位)를 모신다는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향로다. 불심사에서 제작한 백연화 향로는 99%황동만으로 정교하게 제작되어 천년이 지나도 변색 변질 되지 않게 베트린 왁시까지 처리 하였다. 자자손손 가정의 부와 명예를 얻게 임금봉우리의 백연화가 향로에 피어있고 후손의 가정가정마다 만사형통과 건강장수하게 육자대명왕진언을 넣어 가정의 천년가보로 품위있게 제작되어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제사때 품위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98,000원 전화 : (02)741-4477
농협 053-02-228720 이진경





• 규격: 높이14cm, 폭18cm, 무게1k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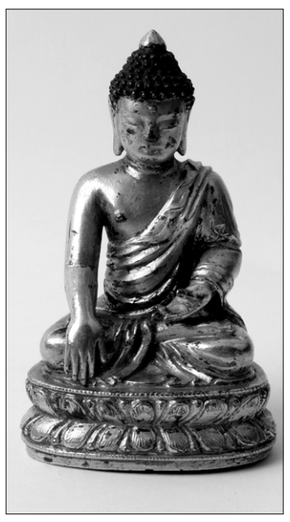
사명대사 호신불 100년만에 발견

대성사 금동여래좌상 복장서 친필 원장 확인…문화재청, 보물 지정 검토 예정

포항 대성사(주지 운붕)가 소장하고 있던 금동여래좌상이 조선시대 사명 대사의 호신불로 밝혀졌다. 또한 이 불상의 복장에서는 사명 대사의 친필 원장(願狀)도 발견돼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문화재청은 9월 30일 "경북 포항 대성사에 있는 금동여래좌상이 복장에서 발견된 원장으로 볼 때 임진왜란 때 승병을 이끌었던 사명유정(1544~1610) 대사의 원불(願佛)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불상은 1800년 남공철이 찬한 '사명대사기적비(四溟大師記積碑)'를 통해 사명 대사의 원불임이 처음으로 밝혀졌었다. 이후 1912년 조선총독부가 건봉사 낙서암에서 촬영한 유리원판 사진으로만 전해져 오다, 지난해 불교문화재 일제조사 과정에서 100년 만에 그 실체가 확인된 것이다. 불상은 한국전쟁 당시 건봉사가 폭격을 맞아 많은 유물이 소실되던 때 소장처가 옮겨져 떠돌다 현재 대성사 주지 운붕 스님이 은사 해봉 스님으로부터 전해 받아 보관해오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명 대사의 호신불로 밝혀진 금동여래좌상(왼쪽)과 사명 대사의 친필 원장(위)

조계종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실측 자료에 따르면 불상의 높이는 7.6cm이고 무릎 폭은 4.8cm이다. 고려 말~조선 초 왕실발원으로 금강산 일대에서 많이 조성되던 불상 중 하나로 추정되며, 당시 유행했던 라마교 불교양식으로 크기는 작지만 당당하고 품격 높은 예술성과 종교적 이상성이 잘 어우러진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불상 복장에서 나온 원장(願狀)은 1584년에 쓴 것으로서, 사명 대사가 자신의 염원을 한지에 자필로 써내려간 것이다. '사문 사명유정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한다(釋迦如來遺敎弟子四溟沙門惟政歸依)'는 내용으로 시작해 '만력갑신(1584년) 12월 16일 제자 유정 원장(萬曆甲申十二月十六日弟子惟政願狀)'으로 끝을 맺고 있다. 원장의 크기는 21×20.1㎝로 꼼꼼하게 접힌 상태로 불상 안에 보관되어 있었다.

문화재청은 불상에 대한 지정조사와 원장에 대한 보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열리는 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여수령 기자



10월 3일 열린 개원법회 모습.

"붓다의 길 따라 명상 수행을"

부산 광안리에 위빠사나 전문 선원 개원

부산의 명소 광안리에 위빠사나 전문 수행도량 '붓다의 길 따라'(선원장 진용)가 탄생했다.

10월 3일 오전 사부대중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개원법회에서 선원장 진용 스님은 "위빠사나 명상 수행은 마음의 균형을 잡아 평상심으로 안과 밖에서 다가오는 고통이나 괴로움의 감정을 제어하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힘을 길러준다"며 "직업 · 나이 · 계층 등을 불문하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수행법이 위빠사나"라며 "위빠사나 수행으로 순간마다 알아차림을 통하여 몸과 마음의 변화를 관찰하고 맑고 순수한 존재로 변화시켜 나가자"며 제안했다.

'붓다의 길 따라'에서는 근본불교, 팔리어 등을 배울 수 있고 위빠사나 수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있다.

수행 일정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저녁 5시까지 '일요탁발 집중수행'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 30과 오후 6시30분에 '위빳사나 기초 수행반'을 운영한다.

매주 목요일에는 '목요 탁발 1차 담마스쿨'을 오전 10시 30분에 진행하며 이어 오후 6시 30분에는 목요수행법회를 봉행한다.(051)755-1715

하성미 기자

금강경 산림대법회 개최

해운대 통도사 부처님 마을(주지 효범)은 10월 16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총 7차례에 걸쳐 '금강경 산림대법회'를 봉행한다.

10월 16일에 열리는 첫 법석에서는 '무명을 단박에 부수는 금강경'이란 주제로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이, 10월 23일에는 '안주하지 않으면 아름답다'란 주제로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이 법문한다. 이어 10월 30일에는 단양 광덕사 회주인 혜인 스님이 '사실대로 보라, 사실대로'라는 주제로, 11월 6일에는 '얻을 것도 없고 설할 것도 없다'란 주제로 직지사 前 주지 자광 스님이, 11월 13일에는 지안 스님이 '모습은 모습이 아니다'란 주제로 법문한다. 11월 20일에는 부산 화엄정사 회주 각성 스님의 '주고도 준 것을 잊다'가 준비되며 마지막 날인 11월 27일에는 단양 방곡사 회주 묘허 스님의 '부처보다 더한 복은 금강경을 전하는 것이다' 법문으로 회향한다.

효범 스님은 "<금강경>을 통해 방황하는 현대인들이 마음을 다잡고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금강경 산림대법회를 마련했다"며 불자들의 동참을 권유했다. (051)704-0332

하성미 기자

상락정배산실버빌 ISO 인증

실비노인요양원 상락정배산실버빌(원장 정관, 이하 상락정)이 부산시 노인 요양원 중 최초로 ISO 9001:2000 인증을 획득하고 10월 5일 인증식을 개최했다.

ISO 인증은 물자 및 서비스의 국제적 교환, 협력, 국가간 상호호환성 등의 국제적 품질기준이다. 원장 정관 스님은 "고령화 되어가는 현 시대에 발 맞춰 더욱 수준 높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성미 기자

영어로 배우는 불교 강좌

영어로 불교 교리 강좌를 배우는 시간이 마련된다. 부산 영광도서(대표 김윤환)는 10월 13일부터 6개월 동안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2시30분에 '영어로 쉽게 배우는 불교 강좌'를 진행한다. 이두석 조계종 국제포교사가 강의하는 이번 강좌는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4층에서 <불교성전>(현암사)을 교재로 진행되며 수강료는 무료다.(051)816-9500 하성미 기자

'佛빛'으로 물드는 10월

부산·경남지역 개산대재, 지역문화축제로 탈바꿈

농익어 가는 10월, 부산 · 경남지역은 축제로 물들고 있고 가을의 정취로 고요하던 산사에는 '개산대재'가 새롭게 단장했다.

개산조 본산(本山)을 일으키고 산문을 여는 일을 기념하며 창건일 및 입적기일을 맞아 마련하는 각 사찰의 개산대재가 새로운 지역문화 축제로 거듭나고 있다.

범어사(주지 대성)는 지난 4년간 개산문예대전으로 개최해 왔던 행사를 올해부터 참선을 바탕으로 한 '개산선문화축제'로 확대 · 개최한다. 10월 12~14일 열리는 이번 '개산선문화축제'에서는 불자 연예인 강부자씨를 초청해 행복불자가족 참선법회를 열고 <비우니 향기롭다>의 저자 박범신씨를 초청해 행복불자강좌를 개최하는 등 가정과 직장에서의 참선실천을 통한 행복 찾기의 해법을 들려줄 예정이다.

법요식과 다비식 등 의식행사와 다양한 전시행사 그리고 산사 가족 콘서트도 준비한다. 특히 가족사랑 명상걷기, 범어사 가람순례 선문화 체험, 선문화축제 템플스테이 등 체험행사를 폭 넓고 다채롭게 마련해 누구나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통도사(주지 정우)는 산사음악회를 새롭게 마련하고 포교를 위한 '외국인 문화의 장'을 마련한 것이 이색적이다. 통도사 기획국장 지상 스님은 "오곡백과가 익어가는 풍성한 계절인 가을에 긴 추석연휴가 끝나고 헛헛해진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다채로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역민들을 위해 지역 직거래 장터인 농수산물 장터를 열고 양산지역의 도자기 장인의 작품을 모아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미타선원(주지 하림)은 처음으로 개산문예축전 '함께 밝히는 용두산 불(佛)빛 등대'를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 '신행생활의 공동체'의 개념으로 평소 신도들의 신행 생활을 모아 보여주는 축제의 자리로 준비한 것이 미타선원 개산대재의 특징이다.

신도들이 마련한 전시행사와 체험행사 그리고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그동안 갈고 닦은 수행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또 불모산영산재보존회를 초청하여 영산재를 열고 숙우회 선차 시연을 통해 불교문화를 지역민들과 나누는 시간도 연다.

하성미 기자

북부노인병원에 법당 개원

연화원, 주1회 법회 봉행

사회복지법인 연화원(대표 해성)이 10월 22일 서울시립북부노인병원(이하 북부노인병원)에 법당을 개원하고 개원법회를 봉행한다.

연화원은 최근 북부노인병원 지하 1층 3평 공간에 법당을 조성했다. 아미타불을 모신 법당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노인들에게 안식처로 제공될 예정이다. 법당 개원 후 매주 1회 병원 노인과 가족들을 위한 법회를 봉행하는 한편, 북부노인병원 직원불자회를 구성해 직원들의 불심단합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법당 개원을 계기로 북부노인병원 호스피스 봉사 활동도 시작된다. 연화원에서 '호스피스 및 케어복지사 교육'을 통해 배출된 자원봉사자 10여명이 법당 개원 이후 활동하게 된다.

해성 스님은 "어르신들이 행복한 마음으로 인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법당을 꾸려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일면 스님, 수경 스님 등 8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법당 탱화 점안식과 감사패 전달, 법어 등으로 진행된다.(02)2202-5831

김강진 기자

염불종 청봉 대종사 사리 공개

이달 29일 49재 봉행

지난 9월 11일 원적에 든 염불종 종정 금해당 청봉 대종사의 사리 40과가 10월 29일 오전 10시 봉행되는 49재 때 일반에 공개된다.

보국불교 염불종(총무원장 원광)은 9월 17일 대전 원광사에서 종단장으로 엄수한 다비식에서 사리 40과를 수습하고, 이를 사부대중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청봉 스님은 1994년 보국불교 염불종 총무원장에 취임한 이후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이사, 재단법인 윤보자비정토원 이사, 보국염불종회 상임이사, 원광사 조실 등을 역임했다.(042)282-6936

혜철 대전충북지사장



前 염불종 종정 금해당 청봉 대종사의 사리.

현대불교 후원 : (국민) 038-25-0008-365 예금주 : 에이치비엠씨



맑은 물의 흐름처럼 선맥 이어지길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30 가지산 석남사


석남사 대웅전 앞 삼층사리석탑

"산행을 직접 해보면 기가 막힙니다. 통도사 영취산에서 시작해서, 심불산 간헐산 배내고개 넘어오는데, 심불산 심불평원 억새가 기가 막힙니다. 배내 너머 능동산 넘어오면 사자평이고, 사자평에서 능동산 제약산 천황산 그렇게 있고, 또 능동산에서 넘어오면 가지산 운문산. 거기서 일로 빠지면 문복산. 문복산에서 고현산. 그게 다 천 고지가 넘는 거에요. 그 전체를 영남 알프스라하지요. 영남 일대에서 눈 오는 데 여기뿐입니다. 그 중 가지산이 천이백 고지로 젤 높아요. 지금은 길이 뚫려 터널 빠지면 호박소에요."


석남사 계곡


덕현리 전경

석남사 아랫마을 덕현리에서 3년 째 식당을 하고 있다는 김준모(53)씨의 말이다. 그런데 이 높은 산들을 넘어 사람들이 나다녔다고 한다.

"얼음골 사람들이 언양장 보러 넘어 다녔으니까요. 배내 사람들이 석남재를 넘어 다녔어요."

지금은 울주군의 변두리처럼 여겨지는 언양이지만, 예전부터 언양장은 인근에서 알아주는 규모의 시장이었다. 지금도 언양 장날이면 양산 기장 경주 등지의 상인들이 찾아들어 시끌벅적한 재래시장을 만든다. 특히 '언양 불고기'와 '언양 미나리'는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져서 미식가들은 불고기에 곁들여 먹는 미나리 맛을 잊지 못하여 찾아들기도 한다.

덕현리는 하천을 중심으로 석리와 행정으로 나뉘고, 석리, 행정과 더불어 소야정, 살티, 삽재 등 작은 단위로 나뉜다. 마을은 도로를 따라 길게 이어지고, 인근에 온천이 있어서, 울산 등지에서 찾는 사람이 줄을 잇는다.

행정 마을로 들어서니, 민박이라고 붙은 간판이 많다. 손님은 드물어 보인다. 회관 앞쪽에서 두 사람이 부추 밭에서 부추 베는 일을 하고 있다.

"십여 년 전에는 민박도 있었는데, 그 때는 있었지. 지금은 없심다. 사람이 없심다. 젊은 사람은 다 돈 벌러 가불고, 이런 거 저런 거 나는 것으로. 묵고 삼니더."

조복수(71)씨의 낫질은 빠르다.

"대처 스님들 있을 때, 우리 쬐깐 했을 때, 속가가 있었죠. 내가 열 다섯에 이쪽으로 이사를 왔죠" 라고 말하는 조복수씨와 "울 엄마 닮아서 못 생겼어"라고 말하는 윤경옥(44)씨.

"지짐 부쳐 먹을려고 하고 있어요. 많이 해야 된디."

딸의 말에 어머니는 부지런히 부추를 베어준다. 윤씨는 이 마을의 민박이 안 되는 이유가 불편함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 샤워 시설이랑 다 돼 있어야만 하는데, 그런 게 없으니 됩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의 아이를 키웠던 경험을 들려준다. 아이가 아토피성 피부염이었는데, "여기 한 달 키와 놨더니, 아토피가 다 나았어."

자연만한 백신도 없고, 자연만한 치유약도 없다는 것. 미나리를 파는 윤애자(64)씨는 활짝 웃으며 반긴다. 미나리와 옥수수 삶은 것 등을 파는데, 차들이 지나다 멈춰 사간다고 한다. 언양 미나리의 유명세 때문이다.

"여는 다 생으로 먹는다, 하도 깨끗해놔서."

석남사에서 흘러내린 물줄기는 아무런 때도 묻지 않은 것 같다. 고기가 살기에 미안해 할 정도 깨끗하다. 그래도 청정1급수에 사는 녀석들은 슬그머니 보금자리를 펼쳐 놓았다.

"저 위에 쪼만한 가게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었지요. 여름에 물이 많으면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절 안에 불당 마을이라고, 마을이 있긴 있어요. 스물일곱에 왔으니까네, 사십사 년 되간다."

이정필(71)씨로부터 절 안에 있는 마을에 대한 정보를 듣는다. 옆에 있던 한 사람이 곁든다.

"불당 마을? 두 집배끼 없습다. 전에 몇 집인지, 내 아나, 모린다. 석남사 절 머슴집 아닝교? 절에 일 하니까에, 절 머슴 아닝교."

부산상회 뒤편 주차장 가운데엔 삐뚤삐뚤한 철제 장벽이 설치되어 있다. 아마 부산상회 개인 소유의 땅과 절 소유 땅의 경계를 표시한 듯했다.

일주문을 지나 절로 들어간다. 소란스러웠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 한참 만에 길은 계곡과 엇갈린다. 다리를 건너기 전에 '나무아미타불'이라는 글씨가 적힌 표지석이 앙증맞다. 물소리가 희고 시리다. 석축 위에 자리 잡은 석남사는 마음 닦기에 알맞은 곳이다. 대웅전 앞에는 천 년 전의 삼층 석탑이 있고, 연꽃이 피어 부처님좌를 만들고 있다. 대웅전을 지나면 부도탑이 있다. 안내글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선종을 전파한 '도의 선사의 사리탑이라고 전한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의문이 든다. 도의 선사는 육조혜능 조사의 법을 이은 서당지장 선사의 심인을 받아 우리나라에 남종선을 최초로 전한 인물이다. 도의 선사는 장흥의 가지산에 머물며 선법을 펴려 하였으나, 그의 선리(禪理)를 알아주는 이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북쪽으로 가서 설악산 진전사에 40여년 은거하며, 염거 화상에게 법을 전했다. 장흥의 보림사가 선종 종찰이 된 것은 염거의 뒤를 이은 보조국사 체징에 의해서다. 그러므로 도의 선사가 석남사에 머물렀다는 것에는 의문이 든다. 다만 산의 이름이 가지산이므로 이곳에도 가지산문의 선풍이 크게 떨쳐 일어났으리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석남사 뒷산인 가지산은 예전에는 석안산으로 불렸다.

비구니스님들의 도량 석남사, 청아한 독경 소리가 물소리와 섞여 자연스럽다. 오래 전 선승들의 맑은 가르침처럼, 불법을 전하며 흐르는 물. 물의 그치지 않는 흐름처럼 선맥(禪脈)이 이어져 본마음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맑은 향이 퍼졌으면 하고 바라본다.

언양=이대흠(시인 · 본지 객원기자)

"울산에 고래 돌아와 살기 좋아지길…"

고래를 노래하는 시노래 가수 **남미경**



울주군 언양면 대곡리에는 반구대 암가화가 있다. 암각화는 선사시대 사람들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을 그린 그림인데,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각종 의례를 거행하였을 것이다. 암각화에는 고래, 물개, 사슴, 호랑이 등 각종 동물의 형상과 사냥을 하거나 배를 탄 사람의 모습, 그물과 작살을 비롯한 각종 도구들이 그려져 있다.

암각화에 그려진 고래는 참고래, 혹등고래, 향고래, 큰고래 등 46마리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래가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고래의 도시 울산에서 고래를 노래하는 가수 남미경(38)씨를 만났다. 그녀가 부른 고래에 대한 노래는 '고래를 기다리며' '장생포 김씨' '장생포에서 청진항까지' '어머니의 고래' 등이 있다.

울산에 다시 고래가 돌아오길 바라며 노래를 부른다는 그녀. "고래가 돌아온다는 것은 환경이 살아있다는 것이죠. 생명운동 자체가 환경운동이고, 환경이 좋아져 자연적으로 먹이사슬이 갖춰지면, 고래가 많아지겠죠."

울산에는 고래 박물관과 고래 연구소가 있다. 하지만 그런 곳들이 '고래 운동'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돌고래 쇼가 아니고, 밍크고래 같은 게 있어야 합니다. 거대한 수족관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쇼를 위한 고래가 아니어야 하죠. (반구대 암각화)그림에 그려져 있는 고래들은 멸종된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왜 고래가 돌아와야 하는지 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게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쉽더라고요."

紙壽千年 影潭韓紙 · 천년종이 영담한지 · 紙壽千年 影潭韓紙

영담한지미술관 직원 · 수련생 · 행자모집

전통한지 전문가 영담스님 문하에서 한지제작 기법과 미술관 운영 및 한지 미술작업을 돕고 배우며 함께 수행할 신심있는 불자님을 모집합니다.

직 원 0명

▷ 4년제 미술과 혹은 관련학과 졸업자
▷ 큐레이터 희망자
▷ 석사학위 소지자
▷ 45세 미만의 남녀

수련생 00명

▷ 한지 제작, 한지 천연염색 미술작업을 배우고 수련 하실 분
▷ 미술관 운영을 돕고 자원봉사 하실 분
▷ 연령 제한 없음

행 자 0명

▷ 출가 입산하여 영담스님 문하에서 전통한지 제작기법을 전수 받고 수행 정진할 뜻이 있는 분
▷ 40세 미만의 여성

※ 응모요령

이력서, 자기소개서 1통씩을 2007년 10월 30일까지 서류 접수 후 면접 개별 통지 함.

※ 접 수 처

714-883 경북 청도군 운문면 방음리 746번지
대한불교조계종 보갑사 영담한지미술관 사무실
FAX접수 : 054)373-3138
문의전화 : 054)373-3638



영담한지미술관 관장 영담 합장

THE YOUNGDAM MUSEUM OF HAND-MADE PAPER

제5차 전국비구니회 총회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에서는 회칙 제4장 제11조에 의거 **'제9대 회장선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총회를 공고합니다.

정진과 교화에 다망하시더라도 전국비구니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히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일 시 : 불기 2551 (2007)년 10월 18일 오후 1시
◆장 소 : 전국비구니회관 강당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4번지 전국비구니회관
◆안 건 : 1. 전국비구니회 제9대 회장 선출의 건
2. 기 타
◆문 의 처 : 전국비구니회 종무소 02)3411-8103~4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 장 명 성

일 주 문



'한국의 불화' 완간 기념 석정연묵전
불화장 석정 스님은 10월 9~13일 부산 국제신문문화센터 4층 제1전시실에서 <한국의 불화> 완간 기념 '석정연묵전'을 개최한다.(051)500-5222



동국대 경주캠퍼스 교직원 법회
양산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10월 10일 오후 4시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에서 봉행되는 교직원 정기법회에서 '생활 불교인의 자세'를 주제로 법문한다.



개관 4주년 기념식·경로축제
광진노인종합복지관장 화평 스님은 10월 5~31일 복지관 및 남이섬 등지에서 개관 4주년 기념식 및 경로축제를 개최한다.(02)466-6242



중앙승가대서 무료 건강검진
불교의료지원단 반갑다연우야 구자선 단장은 10월 11일 김포 중앙승가대학에서 동국대 일산병원 의료진과 학인스님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불자·시민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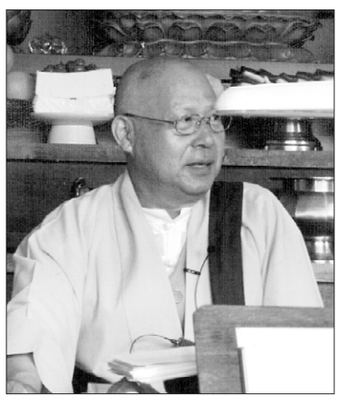
충주지역에 '자비의 전화' 개설한 구부사 주지 혜원 스님

"일반 시민이나 불자 누구나 '손잡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담 전화를 개통하게 됐습니다."

충북 충주 구부사 주지 혜원 스님(사진)이 시민들을 위한 상담 전화 '자비의 전화'를 개설했다. '손잡고 더불어'를 캐치프레이즈로 개설된 자비의 전화는 지난 9월 18일부터 불자들의 신행과 고민 상담, 교리공부는 물론 일반인들의 고민상담, 청소년들의 진로상담 등 다양한 상담활동을 펼치고 있다.

"충주 지역은 아직 불교세가 많이 약하고, 불교에 대한 인식 또한 무속 신앙과 혼재되어 잘못 알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로 잡고, 현대인들의 고민을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풀어보려는 것이 자비의 전화의 목적입니다."

지난해 상담전화 개설의 원을 세운 혜원 스님은 올해 초부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상담원들의 교육을 진행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충주시 호암동 세경아파트 상가에 둥지를 튼 충주 자비의 전화는 9월 18일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스님을 비롯해 전문 상담원 2명과 청소년 상담을 위한 불자 교사 4명 등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상담에 임하고 있다.



"상담자 대부분이 깊은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늦은 저녁이나 새벽에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손길로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좀 더 밝고 살 맛 나는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혜원 스님은 "자비의 전화는 일반 시민들이나 불자 누구나 편안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6개월간의 시범운영 후 충북지역 사찰들과 연계해 상담 지역을 충북권으로 넓힐 계획이다"고 밝혔다. (043)852-3227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서울시립은평복지관 노인의날 기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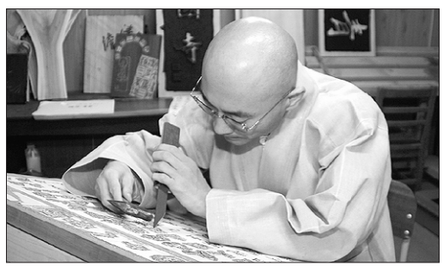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대표이사 성운)은 10월 4일 복지관 야외무대에서 '제11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파발가을음악회'를 개최했다. '노인의 날(10월 2일)'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는 서울문화재단 뿌리패예술단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11시 기념식과 오찬, 파발 가을음악회 등으로 진행됐다.

석문사 '어르신 경로위안잔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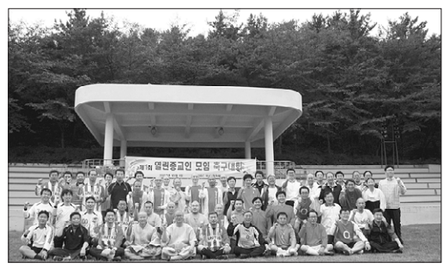
청원 석문사(주지 혜전)는 10월 3일 청원군 남이면사무소 복지관에서 제4회 어르신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했다. 이날 장애 어르신 5명을 선정해 전동스쿠터도 전달했다. 효예종 총무원장 법진 스님과 지역 어르신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사 지도법사 본공 스님 서각 전시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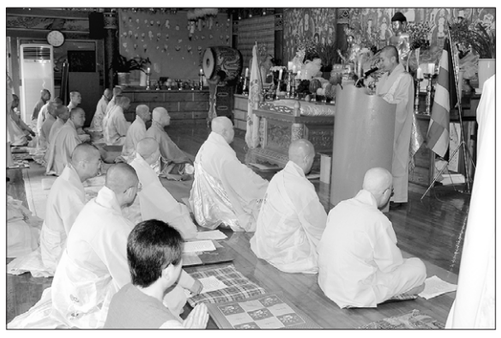


서울 조계사 지도법사 본공 스님의 서각 전시회가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예술의 전당 서예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대덕고승들의 유묵 작품들을 관조의 눈으로 재창조해 서각이라는 틀에 담아 40여점을 선보였다. 본공 스님은 제5회 대한민국서예문인화대전 심사위원, 대한민국평화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열린종교인모임 친선 축구대회 개최



열린종교인모임(공동대표 심산)은 10월 1일 부산 가톨릭대학 운동장에서 화합을 위한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불교와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수행자 및 지도자 100여명이 참가한 이날 축구대회는 4개 팀의 리그전으로 진행됐다.



법상종 연수교육·수계법회 봉행

대한불교법상종(종무원장 해월)은 10월 1~3일 안성 쌍미륵사에서 연수교육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종정 자봉 스님, 총무원장 해월 스님, 부원장 도일 스님 등 종단임원스님을 비롯한 종도 80여명이 참석했다. (사진)

자봉 스님은 "욕심을 버리고 무명의 언덕을 넘는 수행자의 역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회향식에서는 6명의 수계의식이 진행됐다.(031)653-1250

화촉 조계종 중앙종회 양진수 사무행정팀장은 10월 20일 낮 12시 서울 행복웨딩문화원에서 천명숙 양과 화촉을 밝힌다. (016)210-6426

부고 ▲불레협 장현재 교육원장 부친상=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장현재 교육원장(진선여고 교사)의 부친 장환경 옹이 지난 9월 26일 별세했다. 향년 87세. 발인은 9월 28일 분당 차병원에서 엄수됐다.
▲불교신문 이진두 논설위원 상배 =불교신문 이진두 논설위원 부인 홍애련 여사가 9월 30일 향년 6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 고인은 10월 2일 부산시립 화장장에서 영면에 들었다.

"손녀들 품에 다시 안아봤으면"

10월의 환우 김근순씨



남편과 사별한 후 이혼한 둘째 딸과 손녀를 돌보며 살던 김근순(65·사진)씨.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김씨는 지난 8월 혈관 스탠트 삽입 시술을 받던 중 급성대동맥 박리증(혈관 내막이 찢어져 혈관이 아닌 통로가 만들어지는 질환)과 쇼크 상태로 인해 응급수술을 받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을 넘겼다.

하지만 수술 후 급성호흡부전 증후군, 신부전, 간부전 및 범발성 혈관내응고증 등이 발생해 또 다시 집중치료를 받고 있다. 정부보조금 17만원과 사무실 보조일로 받는 수입 50만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둘째 딸에게 한 달에 1000만원이 넘게 드는 치료비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이다.

김씨가 귀여운 손녀들과 다시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후원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02)734-8050 후원계좌: 농협 053-01-243778 예금주: 생명나눔

日 동양대 학생 복지체험 수료식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이사장 각현)은 9월 17~21일 일본 동양대학교 학생 29명의 복지현장 체험을 실시하고 21일 안성 감로당에서 수료식을 개최했다. 동양대학교는 2005년 연꽃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은 곳으로, 이번 실습에는 학생 29명과 교수 3명이 참가해 봉사활동과 재가서비스 현황 등을 체험했다.

"투자의 해법 부처님 가르침 속에…"

투자학 강좌 여는 우승택씨



너도나도 '재테크' 열풍이다. 주식도, 아파트도, 땅도 모두 재산증식을 위한 '투자가치'로 인식되고 있다. 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와 마음을 찾는 것이 최종 목표인 '불교'가 만난다면 어떨까?

투자전문가 우승택씨(삼성증권 자산클리닉센터장·사진)가 10월 11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하는 '투자는 아무나 하나, 유식(唯識)으로 하는 투자학' 강좌에서는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투자심리학을 소개한다. 강좌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다.

"유럽의 투자전문가 앙드레 코스탈라니는 '주식시장은 99%가 심리로 이루어져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를 것 같다'는 생각에 주식을 사고, '내릴 것 같다'는 생각에 파는 것이지요. 이러한 생각, 곧 자기 자신을 바로 알게 해주는 것이 '유식'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바로 알면 투자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우씨의 지론이다.

"유식은 마음세계를 밝혀 놓은 도리입니다. 단순화해서 설명한다면 모든 것이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유식을 통해 나를 알게 되면 생각의 지도를 설계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기질에 맞는 투자를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강좌는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첫 번째 시간인 '투자심리와 행태'는 투자심리학 이론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이다. 두 번째 시간에는 앙드레 코스탈라니의 투자심리학 이론을 불교의 심리학 관점에서 풀어서 설명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시간에는 각각 윌리엄 오닐과 워렌 버핏의 투자 비법을 공개한다.

마지막 시간에는 그간 배운 투자이론을 어떻게 실전에 접목할 것인가를 소개한다. 1시간 30분간 강의한 후 30분간 질의응답 및 개인 투자 상담도 진행한다. 참가비 25만원은 전액 조계종 중앙신도회 전법회관 건립 기금으로 적립된다.

"적어도 5년만 지나면 우리 사회는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투자하느냐 입니다. 투자의 왕도는 내가 누구인 줄 알고, 적이 누군 줄 알고, 무기가 무엇인 줄 알고, 전쟁터가 어딘 줄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식'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위한 해답이 바로 '유식(唯識)'에 있습니다." (02)735-2428

여수령 기자



속리산 제1회 달마축제에 초대합니다

달마축제 행사프로그램

◆신명나는 명상공부(오전 10시 ~ 12시)
범주스님의 禪강의와
생활속에서 쉽게 할수있는 명상 배우기

◆국악과 함께하는 선차(禪茶) 행다시연(오후 2시~4시)
1.대금연주 정광선(중요문화재45호 이생강류 대금전수자)
2.상주 삼백 다우회 시연(최 위영 회장 외 10명)
3.보천차 시연(지민스님 외 10명)
4.부산 선문화원(박 견자 회장 외 5명)

※ 달마축제기념 범주스님(선묵 특별전시회)
40여년 선묵 정진의 혼이 담긴 선묵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일년중 단 한번의 기회(50% 특별할인)

※ 지역주민생산 무공해 농산물 직판장
다양한 토속음식 시식코너

날짜 : 2007년 10월 20일 / 장소 : 속리산 달마선원

◆ 소리와 춤의 향연(저녁 6시 ~ 8시)
(제1부) 1.달마 포퍼먼스
범주스님(그림、달마선원장) 효성스님(음악、선다향 예술원장)
김종흥(목조각、목석원원장) 임미영(춤、무용학원원장)
2.고구려소리춤 공연
효성스님(고구려 소리춤 보존회 전수자)
임미영(고구려 소리춤 보존회 단장)외 5명
3.하회탈춤
김종흥(하회별신굿 탈놀이 보존회)
이상호(하회별신굿 탈놀이 보존회)
권태경(하회별신굿 탈놀이 보존회)
(제2부) 구도자의 노래
천년의 소리 범진스님(범패의 명인)
천상의 노래 보현스님(타래의저자)
하모니카의 명인(월연스님) 노래하는 법사 머루다래
관세음을 닮은 가수 이혜미, 지리산선녀 고명숙
(제3부) 풍류의 한마당
세상의 모든 번뇌 망상을 떨치고
모두가 달마와 하나되는 신명의 한마당.
풍악소리에 해탈의 춤을 추며 속리산의 대자연과
하나되는 풍류의 시간





주소 : 경북 상주시 화남면 동관2리 294번지 속리산 달마선원
전화 054)535-0378 / 팩스 054)535-4750
e-mail : www.dharma-art.or.kr



"꽃향기 따라 사찰로 오세요"

공주 영평사 구절초꽃축제 현장

꽃을 보러 길을 나섭니다. 발길은 올해로 8번째 구절초꽃축제를 열고 있는 공주 영평사로 향합니다. 길섶이나 산등성 어디서나 피는 구절초를 보러 일부러 길을 나선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실상 꽃을 핑계로 부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 해도 좋을 것입니다.

개망초나 쑥부쟁이, 개미취 같은 꽃과 함께 뭉뚱그려 '들국화'라 불리는 구절초는 산기슭이나 풀밭에서 홀연히 피고 지는 들꽃입니다. 근처에 다른 풀이나 나무가 자라면 금새 자리를 내어주는 구절초는 선모초(仙母草)라 하여 '어머니의 사랑'을 꽃말로 가진 꽃이기도 합니다. 예로부터 구절초꽃은 부인병과 위장병에 약으로 쓰였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이맘때 구절초차 한 잔 마시면 감기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흔한 들꽃이지만 영평사가 자리한 장군산의 구절초 군락은 좀 색다른 데가 있습니다. 영평사 주지 환성 스님이 15년 전, 사찰과 장군산에 구절초를 심기 시작한 것은 구절초의 청초하고 고결한 모습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한두 포기씩 가꾸어 온 구절초 군락이 지금은 사찰 일대 2만여 평에 이릅니다.

구절초꽃이 만개하는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영평사에서는 산사음악회와 전시회, 어르신잔치, 중양절 행사 등이 열리는데 이를 통틀어 '구절초꽃축제'라 부릅니다. 지난 9월 29일 열린 산사음악회에는 1000여 명에 달하는 관람객이 참석했고, 축제가 이어지는 기간 중에는 평일에도 하루 평균 500여 명이 사찰을 찾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축제 기간 동안 6만여 명이 방문했다니, 개별 사찰이 개최하는 축제로는 만만치 않은 규모인 셈입니다.

올해는 잦은 비와 궂은 날씨 때문에 예년에 비해 한 주 정도 늦게 개화를 했다고는 하지만 영평사를 찾은 10월 3일에는 이미 산등성에 하얀 꽃비가 내렸습니다. 대웅전 앞마당 넓은 잔디밭에서는 사진전과 꽃차 시음회, 구절초꽃을 넣은 천연비누만들기, 신도회 주최 바자회 등이 열리고 있습니다. 점심때면 사찰국수도 무료로 맛볼 수 있습니다. 장독을 식탁삼아 먹는 국수의 맛은 길고 긴 기다림마저 달콤하게 만들 정도입니다.

사찰 초입부터 눈에 띄던 구절초꽃은 사찰 왼편으로 휘돌아가는 장군산 자락을 시작으로 산 정상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뒷산 언덕 같은 산길을 걸으며 구절초꽃을 감상하는데, 대전에서 온 김판실(68) 할머니가 안타까운 듯 저에게 말을 건넵니다. "4년째 구절초를 보러 왔는데, 지난해에 비하면 꽃이 늦고 덜 예쁘다"며 "꽃이 활짝 피는 다음 주에 꼭 다시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구절초꽃밭에는 예쁜 모습을 사진에 담으려는 사람들과 꽃차를 만들기 위해 꽃을 따는 아주머니들이 가득합니다. 꽃송이가 시들기 전에 부지런히 꽃잎을 따서 말리고 덖어 꽃차를 만든 후 사찰을 찾는 사람들에게 차 공양을 올리려는 것이지요. 그러니 혹여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 꽃을 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산길에 무참히 꺾여 버려진 꽃들처럼 헛되지 않게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한 송이 꽃(世界一花)이라 했습니다. 꽃과 내가 둘이 아니고, 내가 있어 네가 있는 이치를 꽃은 말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올 가을, 사찰 꽃 잔치를 찾아 조용히 꽃을 보고 오는 것도 또 다른 공부가 아니겠는지요.

공주/글=여수령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가을철 산사 축제 활짝

#전등사 '제7회 삼랑성 문화축제'

강화 전등사는 10월 13일부터 14일까지 '제7회 삼랑성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천년의 기다림 새로운 시작'을 주제로 열리는 문화축제는 팔만대장경 유네스코 기록문화 등재를 기념하고, 난치병을 앓고 있는 최두나 어린이를 돕기 위해 마련된다.

가을 음악회, 영산재, 마당극 '청아청아 내딸 청아', 팔만대장경 세계 기록 문화유산 등재 기념 특별전시, 조선왕조실록 사고본 사진전 등으로 구성된다.

#건봉사 '건봉가을축제'

강원도 고성 건봉사(주지 영도)는 10월 13~14일 제1회 금강산 건봉가을축제를 개최한다.

전국학생전통무용경연대회, 남사당 줄타기, 초.중학생 글짓기와 그림그리기, 비보이 공연, 물레질하기, 아름다운 단풍모으기, 생활불화 전시, 전몰장병 위령 철야기도법회, 군악대 퍼레이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표충사 '호국문화축제'

밀양 표충사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사명 대사의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사명제전을 거행한다. 표충사 수장고 유품 전시, 호국영령 추모제, 밀양북춤, 호국무예 시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이 기간 동안 템플스테이도 열린다.

#화엄사 '화엄제 2007'

구례 화엄사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길떠남'을 주제로 '화엄제 2007'을 개최한다.

행사는 17일 오후 7시 30분 서울 행창동 가나아트센터 야외무대에서 열리는 작은 음악회를 시작으로 20일 오후 2시 화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펼쳐지는 본행사와 21일 오전 8시 30분 화엄사 경내 범음료에서 열리는 학술제 등으로 구성된다.

#부석사 '제5회 화엄축제'

영주 부석사는 10월 13~15일 제5회 화엄축제를 열고 의상대사 학술대회, 화엄경판 이운대제, 의상기념행사 및 화엄음악회 등을 개최한다. 산사다회와 탁본 체험마당 등의 문화체험도 마련된다.

#법흥사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

영월 법흥사는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문화 다양성의 이해와 지구촌 평화를 위한 문화마당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를 마련한다. 평화음악회, 농산물 직거래장터, 외국인 템플스테이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을 맞이한다.

#미황사 '괘불재'

해남 미황사는 10월 27일 오후 1시 미황사 앞마당에서 보물 1342호 괘불을 모시고 '괘불재와 함께 작은 음악회'를 연다.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괘불재와 함께 하는 템플스테이'도 진행된다.

남동우 기자

10월 산사축제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사찰명	프 로 그 램	일 정	전화번호 · 홈페이지
영평사	장군산 예술제(구절초꽃축제)	10월 27~28일	041-857-1854 www.youngpyungsa.org
전등사	제7회 삼랑성 문화축제	10월 13일~14일	032-937-0125 www.samrangseong.org
금산사	집들이를 겸한 추억의 템플스테이	10월 13일~14일	063-548-4441 www.geumsansa.org
건봉사	제1회 금강산 건봉가을축제	10월 13일~14일	033-682-8100~2
표충사	호국문화축제	10월 13일~14일	055-352-1150 www.pyochungsa.or.kr
법흥사	평화로운 세상 만들기	10월 20일~21일 외국인 대상	033-374-9177 www.bubheungsa.or.kr
미황사	괘불재	10월 27일~28일	061-533-3521 www.mihwangsa.com

삼각산 정릉 보덕선원

수좌회 회장 혜국 큰스님 초청 대법회

도심속의 선 수행을 선도해 온 삼각산 보덕선원에서는 선 수행의 새로운 가르침을 일깨우고자 우리시대의 선지식인 수좌회 회장 혜국 큰스님을 모시어 정기적인 선 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열심히 정진하신 불자님들이 한 단계 진일보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방하착하시고 동참하십시오.



선지식의 귀연을 맺을 자리가 될 것입니다

첫 법회 : 10월 12일 (음력 9월 2일) 오전 10시 30분

◆일시 : 매월 초 2일 10시 30분
◆장소 : 보덕선원 대법당

삼각산 보덕선원 대우 합장
서울 성북구 정릉4동 824-1번지 문의 02)914-4235



송찬우 교수의

수습지관좌선법요 ⑤
(修習止觀坐禪法要)

總說 3 所以然者 止乃伏結之初門 觀亦斷惑之正要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止觀' 법문이 열반으로 들어가는 첩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선 중생을 결박하는 번뇌부터 설명하기로 한다.
'結' 은 중생을 자유롭지 못하게 속박하고 고통으로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결사번뇌(結使煩惱)라고 한다. 즉 삼계내 범부의 번뇌인 견사결(見思結), 삼계 밖에서 소승인이 일으키는 진사결(塵思結)이 있는데, 이는 지말번뇌이다. 대승보살이 일으키는 근본번뇌인 무명결(無明結), 이 세 종류의 근본·지말번뇌를 총체적으로 하나의 의미로 묶어 '結' 이라고 한다.
범부 중생은 이 세 종류 번뇌 모두에 결박당하여 전혀 자유롭지 못하므로 종일토록 깜깜하고 애매모호하여 시끄러운 번뇌가 쉬지를 않는다.

망상 일어난 자리가 진심자리

망상밖서 진심 구하지마라

같은 번뇌를 어떻게 다스려야만 하겠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지' 수행공부를 통해서 이상의 세 종류의 번뇌를 조복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지' 수행을 통해서는겨우 조복만 받을 수 있을 뿐 실제로는 그 근본뿌리까지 단절하지는 못한다. 이는 마치 돌로 풀을 눌러 놓았을 때 그 줄기는 자라지 못할지라도 뿌리는 땅속에서 그대로 살아 있으므로 돌만 들어내면 언제라도 그 줄기가 되살아나는 이치와도 같다. 그러므로 '지' 수행문은 번뇌를 항복받는 초보에 불과할 뿐이다.

다음으로 '관'을 설명해보자.

'관'은 '지'를 통해 번뇌를 그친 자리에서 다시 올바른 지혜 관찰을 일으킨다는 의미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 마음속에 깊이 박힌 번뇌의 근본뿌리를 끝까지 끊고자 한다면 반드시 올바른 지혜로 제법실상의 이치를 정확히 관찰하고 그 근원뿌리마저 끊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비유하면 날카로운 칼로 땅속에 잠복해 있는 풀뿌리까지 절단하여 영원히 거듭 되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이치와도 같다.

그러므로 '관' 수행은 번뇌를 끝까지 끊고 진여를 증득하는 올바른 요점이자 최초의 수행방편이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를 통해서 우선 번뇌를 조복 받아야만 하고 지말번뇌의 조복이 이미 끝났으면 한 걸음 더 나아가 관 수행을 일으켜 반드시 지말번뇌를 일으키는 근본무명 번뇌의 뿌리마저 끊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지관'을 수행하는 목적은 번뇌를 끊고 생사를 초월하여 보리를 성취하는 데에 있다면 '지관'법문이야말로 모든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올바른 요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천태 일개종파에 국한되지 않고 여타 어떤 종파의 수행을 막론하고 그들 모두는 번뇌를 끊고 진여를 증득하는 것으로 근본을 삼는다. 이를 두고 모든 수행의 '정요(正要)'가 '지관'이라고 했을 것이다.

止則愛養心識之善資 觀則策發神解之妙術

여기서는 지관수행을 행했을 때 그에 따라 일어나는 '지관'의 오묘한 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내적으로 마음을 아끼고 기르려 한다면 '지' 수행이 아니면 불가능하며, 신령한 견해가 일어나게 하려면 '관' 수행을 버리면 도달할 방법이 없다.

우리가 평소에 '지관'을 수행하지 않을 땐 마음은 마치 보는 대로 흉내 내기 좋아하는 원숭이처럼 하루 종일 망상만이 어지럽게 분분하다.

사량분별 끊고 올바른 지혜로 관조해야 통밑이 쑥 빠지듯 마음이 활짝 열릴 것

그러나 '지' 수행을 닦고 나면 망상은 정화되고 의식은 분명해져 탁한 생각은 맑아지고 마음은 청정해진다. 그러므로 '지' 수행은 내적으로 마음을 조화하고 기르는데 장점이 있고 신령한 본성이 발현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해주는 훌륭한 방법이기도 하다.

앞에서 이미 '지' 수행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망상잡념을 잠재우고 조복받았으며, 다시 '관' 수행을 일으켜 회광반조하는 공부로 제법실상을 환하게 관찰하였다. 이처럼 오랫동안 공부를 계속하면 자기 마음속에서 신통묘혜와 지혜광명이 홀연히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지' 수행은 산만하게 움직이는 산란심을 억제하고, '관' 수행은 내 마음 속에 어두운 구석을 관찰한다. 다시 말해서 '지' 수행을 통해서 모든 번뇌 집착을 놓아버리고 '관' 수행은 번뇌를 놓아버린 그 자리에서 다시 올바른 지혜를 일으킨다.

그러므로 '지관'을 병행해야만 우리 마음을 잘 기를 수 있고, 다시 신령한 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경책까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망상의 마음이 바로 생사를 일으키는 근본이다. 때문에 영가(永嘉) 스님은 이를 두고 "공덕을 덜어내고 법신을 성취한 바탕을 소멸하는 그 모두가 망상을 따라 일어난다" 하였다.

이처럼 망상이 이미 선법이 아니건만 그런데도 무엇 때문에 그 마음을 기르고 아껴야만 하겠는가.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선 안될 점은 망상인 심의식(心意識)이 번뇌악법이라고는 하나 그 번뇌를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가운데에 여래지혜공덕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마치 탁수가 맑아지면 그 물이 바로 청수이듯. 그 때문에 망상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보호해야만 한다.

또 망상심식은 모든 선악업의 인연을 따르는 작용도 함께 갖추고 있다. 가령 그 마음으로 악업을 지으면 끝없이 삼악도에 윤회하겠지만, 반대로 선업으로 사용하면 생사를 초월하여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도 역시 망상을 떠나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천태종에선 최초로 수행을 시작할 때 제6의식, 즉 현재 일어나는 망상에서 시작하라고 가르친다. 그 의도는 생멸에서 생멸망상이 본래 없는 이치를 관찰하여 생멸이 끊긴 열반의 경지에 도달하게 하려 함인데, 요컨대 망상 속에서 진심을 구하고, 망상 밖에서 따로 존재하는 진심을 구하지 말라고 한다.

우리들 중생은 최초엔 완전한 진심상태에서 홀연히 망상을 이루었다. 그러므로 '지관'을 수행한다면 전체의 망상에서 전체의 진심에 도달할 수 있다. 가령 망상을 떠나서 진심을 별개의 모습으로 따로 구한다면 그것은 마치 파도를 버리고 물을 찾는 것처럼 어리석은 짓이다. 다시 말해서 파도가 일어나는 곳이 원래 물이듯이 망상 일어나는 자리가 본래 진심자리이다.

망상에서 사량분별을 일으키지 않고 면밀한 지혜로 관조하여 그 수행을 오래도록 지속한다면 언젠가는 마치 통밑이 쑥 빠지듯 마음이 활짝 열릴 것이다. 이러한 시절을 두고 온 대지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허공마저 분쇄되어 신령한 광채가 절대 홀로 빛이나 육근과 육진의 구속에서 아득히 벗어난다고 한다. 이치가 이러하기 때문에 '지' 수행이 아니면 산란심을 조복 받을 수 없고 '관' 수행이 아니면 신령한 지혜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관' 두 수행법이야말로 상즉관계를 이루어 피차가 서로에게 바탕이 되고 보조역할을 하여 상호간에 동시적인 관계를 이루므로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빠뜨리면 올바른 중도수행이 성립되지 않는다.

■중앙승가대 교수
cafe.buddhapia.com/community/song

쉽게 풀어 쓴 불교 기본교리

業은 모든 괴로움의 원인 ①

일체중생의 모든 고통은 그들의 행위, 즉 신구의 삼업이 그 원인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모든 유정들은 그들의 행위와 그에 따른 과보의 연속, 즉 업과(業果)가 상속유전(相續流轉)하는 모습일 뿐이라는 점입니다.

'업'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공작(工作)의 의미이며, '과'는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누린다[受用]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생들이 신구의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공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상황을 누리는 모습이 바로 업과의 상속순환인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다양한 직업 가운데서 어느 일정한 행위를 하는 형태가 그의 주된 업[職業]이며, 그 행위에 따라 생산하고 수확은 거두는 모습이 업에 따른 과보입니다.

유정들은 사는 동안 행했던 일정한 행위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수확을 거둠으로써 그가 처

모든 유정은 업과의 상속유전 모습일뿐 즐거움·괴로움, 행위의 선악따른 결과

한 상황만큼 의식주가 부족하지 않게 되고, 이로써 그의 생명이 일정기간 온전하게 유지됩니다. 현재의 생명이 유지되면 다음의 행위를 일으키게 되고 다시 그 행위를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과보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같이 왕복 순환하면서 그 생명이 무궁하게 인과관계로 상속해 갑니다.

따라서 그 과보의 괴로움이나 즐거움은 바로 그 원인에 해당하는 행위의 선악에 의해서 규정지을 수 있을 뿐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의 행위가 근검했다면 그에 따른 과보는 반드시 선량(善良)의 즐거움이 될 것이며, 반대로 게으르고 교만한 행위를 일삼았다면 그에 상응하는 과보는 반드시 괴로움과 파괴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생활 모습의 차이점은 선업이었느냐, 악업이었느냐에 따라서 나타난 다른 결과인 것입니다. 평소에 선업을 행했다면 그의 인격도 지혜롭게 형성되어 허망함이 없이 진실한 품격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의 행위가 악업의 조작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살생[殺]·도적질[盜]·음행[婬]·탐(貪)·진(瞋)·치(癡) 등 악한 모습으로 얼룩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과보가 이러하다면 미래의 과보도 이 두 갈래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위가 선업 또는 악업인가에 따라서 내생엔 인간 천상이나 그 반대인 지옥이나 아귀의 악도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이처럼 모든 결과는 필연적으로 그 사람이 행했던 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정리=張如舟

韓國佛教圓光宗

봉행 국민화합과 경제회복 및 호국영령 선망 부모 천도 합동 수륙 대법회

귀의 삼보하옵고
우리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국운이 융창하기를 발원하고 경제가 하루속히 회복되어 국민이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전국의 한국불교원광종 불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륙 대 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수륙법회는 불성을 가진 고귀한 생명을 존중하고 각가지 업에 의해 이승을 떠나 바다와 육지에 떠도는 고혼을 천도함으로써 일체중생을 내 몸처럼 생각하는 동체 대비심을 앙양하고자 함입니다.
국가는 부강하여 이 나라 이 땅이 불국정토가 되도록 염원하는 수륙 대법회에 한분도 빠짐없이 동참하여 자손만대에 부귀영화, 수명장수하시고, 염원하는 모든 일 성취하시기를 부처님전에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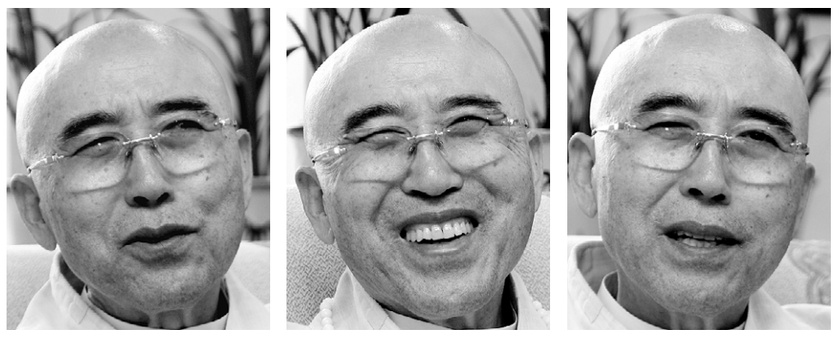
■일 시 : 2007년 10월 15일 월요일 (음, 9월 5일) 오전 11시
■장 소 : 충남 보령시 대천 해수욕장 특설 법회장
■행사내용
1. 식전행사 : 불자 가수 연예인 공연 (김흥국. 현당. 금사향. 김활선. 신선호 등 불자가수)
2. 수륙 천도 대법회
3. 민요 및 풍물패 공연
■문 의 : 한국불교원광종 총무원 :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91-3번지 / 02)802-1740
■주 최 : 한국불교원광종 총무원 ■주 관 : 한국불교원광종 충남교구종무원 ■협 찬 : 불자가수협회

한국불교원광종 임원

종 정 능허 대종사
총무원장 법륜
종의회의장 선진
규정원장 법성 교육원장 법민
문화원장 법원 포교원장 경산
총무부장 진공 기획부장 도현
사회부장 도각 문화부장 도성
포교국장 혜암 문화국장 혜지
종정예경실장 도연
강원도종무원장 진각 경기남부종무원장 혜안
경주종무원장 청암 전남종무원장 경진
충남종무원장 보선


선래 스님 (법륜사 회주)

“문제도 해결책도 자신이 갖고 있다”



복지관·요양원 운영 통해 회향하는 삶 실천
열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원동력은 ‘悲智’
“수행은 내 안에 다 구족돼 있음을 깨닫는 것”

선지식을 찾아서 선래

선래 스님은 1958년 범어사에서 동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범어사, 도리사, 불국사 선원을 비롯하여 제방선원에서 20안거를 성만했다. 1970년대에는 총무원 재정국장과 사회국장을 역임했다. 1980년대에는 금정학원 이사장을 맡아 교실을 증축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지금은 법륜사 회주이며, ‘사회복지법인 관음원’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선래 스님이 유치원 현관문을 들어서자 원생들이 달려와 스님에게 마구 매달린다. 아이들과 선래 스님 사이에는 거리감이 없어 보였다. 선래 스님은 1981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법륜사를 지켰다. 20여년 선방을 돌면서 공부하였으니 이제는 종단을 위해서 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법륜사 주지를 맡았다. 주지로 부임해서 신도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이 유아교육기관임을 알고서는 1983년 유치원을 지었다. 그래서 시작한 유치원 역사가 벌써 25년이다. 유치원을 졸업한 원생이 이곳에서 유치원 교사를 하고 있으며, 유치원 자모였던 사람들이 법륜사에서 신도회 활동을 하고 있다. 옛 인연을 이어서 또 다른 인연을 맺어가는 불교의 인연법을 떠올리게 한다.

“내가 유치원 아이들에게 직접 불교교리를 가르쳐주거나 그런 일은 없지만, 아이들에게 불교와 인연을 맺게 해주는 것이지요. 아이들은 부처님 앞에서 합장할 줄 알고 스님들 보면 스님인줄 알고 인사하고 그것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선래 스님은 고등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 김용사에 간 것이 출가의 계기가 되었다. 그때는 정화운동이 마무리될 때라 절 안팎이 어수선하였다. 고시공부를 위해서 갔지만 책 펴볼 겨를도 없이 스님들을 도와 문서작성을 비롯한 잡다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다 서울 총무원에 심부름을 갔는데 그곳에서 동산 스님을 만났다. 동산 스님은 군대 갔다 와서 출가하라고 권했지만 그길로 바로 출가를 해버렸으니 스님의 강단 있는 성품을 엿볼 수 있다.

스님은 범어사에서 행자노릇을 했는데 오매불망 선방에 앉고 싶었다. 참선을 하고 싶다고 했더니 누군가가 <초발심자경문>도 공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방에 앉느냐고 일침을 놓더란다. 그날 선래 스님은 ‘누가 나에게 <초심>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는 방을 놓았는데 마침 가르쳐 주겠다는 스님이 있었다. 그날 저녁 예불을 마치고 법당에서 <초심>을 배웠다. 선래 스님은 어릴 때 한학당에서 <천자문>, <명심보감>, <소학> 정도는 공부했기 때문에 하룻밤에 <초심> 한 권을 다 공부해버렸다. 그래서 스님은 범어사 선방에 앉을 수 있었다.

선래 스님이 범어사 선방에서 공부할 때는 설봉 큰스님이 매일 오전에 1시간씩 <선문촬요>와 <염송>을 강의하였다. 오후에는 강의를 바탕으로 해서 참선을 하였다. 설봉 스님은 강의하면서 “한 마디 일러라”는 질문을 던지곤 하였다. 그때 어떤 법담이 오고갔는지 궁금하여 물었더니 “그것은 법담을 주고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주인공과 행동을 지켜보는 주인공이 법을 주고받는 것이 바로 법담이란다.

“20세에 출가하여 지금 칠십이니 수행생활이 벌써 오십 년이 되었네. 나도 모르는 사이 세월이 흘러 늙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 이것이 인생이고 진리입니다. 인생을 길게 이야기하면 한없지만, 축약하면 ‘생로병사(生老病死)’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나 미천한 사람도 생로병사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무언가에 의지하고 싶어 합니다. 부처님이 6년 고행 끝에 깨닫고 보니 근본주체는 자기 마음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법임을 알게 되었지요. 수행을 한다는 것은 자기 안에 본래 다 구족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선래 스님은 육십이 되던 해에 법륜사를 상좌에게 물려주었다. 승려생활이란 것이 365일 신도들의 시주에 의지해서 살고 있으니 시은(施恩)에 보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스님은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회향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우선은 ‘사회복지 법인 관음원’을 설립하여 관내에 있는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학비를 지원하였다. 그러다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의 여생을 담당할 수 있는 자비의 자리가 필요함을 느꼈다. 선래 스님은 20세 때 출가를 하여 외아들로서 부모를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었다. 작년에 61명의 노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무량수 요양원’을 열었다. 요양원을 개소하고 나서 신난 것은 법륜사의 신도들이다. 신도들은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함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나누어 쓴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알게 된 것이다.

선래 스님은 무량수 요양원을 운영하다 보니 중증의 노인들을 위한 전문 요양원이 필요함을 느꼈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는 전문 요양원을 곧 착공할 계획이다. 스님은 무엇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그 일에 몸과 마음을 바쳐 일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 역경이 그다지 없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스님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바로 비지(悲智)에서 오는 것이다.

“거룩한 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연민히 여겨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비지(悲智)입니다. 중생들을 연민히 여기는 마음만이 오롯이 남는다면 탐진치도 없어지고 저절로 보살행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보살행을 실천한다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될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져서 살아가요.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것을 슬퍼하는데 물질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대그룹 총수가 어떻게 하면 자신의 재산을 불려나갈지를 고민하는 것이나 거지가 오늘 하루 점심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과 별 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선래 스님은 유치원을 설립하여 인생의 출발점에 선 아이들에게 불교의 향훈을 주는가 하면, 인생을 정리하는 끝 지점에 선 노인들에게 안락함을 제공하고 있다. 또 인생의 중간지점인 장년들에게는 자비봉사를 실천함으로서 너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해준다. 삶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임을 선래스님은 몸소 보여주고 있다.

선래 스님은 조사스님의 게송 한 구절을 들려주셨다. “신재해중휴멱수 신행령산막심산(身在海中休覓水 身行嶺山莫尋山) 바다 가운데 있으면서 물 찾기를 그쳐라. 날마다 산 속을 거닐면서 산을 찾지 마라.” 자기 본성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구족되어 있는데, 밖으로 돌면서 진리와 행복을 찾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자신의 문제는 모두 자기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며, 그 해결책 또한 자신이 내포하고 있음을 깨달을 일이다.

글 · 사진= 문윤정(수필가·본지논설위원)







신비의 명약 鳳凰 山蔘

천제가 지상에 내려와 산신령으로부터 단 한뿌리만 얻어 갔다는 전설속의 봉삼
태조 왕건에게 1,000년된 봉삼을 바쳤다는 신비의 봉삼
하늘이 내려준 최고의 불로초로 알려진 봉삼
모든 산삼중에 최고의 약 효능이 뛰어난 봉삼
죽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연장을 도와주는 봉삼
누구나 먹어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봉삼



※ 본초강목에 의하면 봉삼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간, 위, 비대소장, 두통(만성), 해수, 열풍독, 모든 지각성마비, 근육통, 살균피부염, 소염 이노에 특효라하고, 폐경, 대장경, 비경에 작용한다. 풍습을 없애고 열을 내리며 해독한다. 했고... 봉삼 달임액으로도, 이담작용, 해열작용, 억균작용을 나타낸다는 것이 임상실험적으로 밝혀졌다.
풍한습비증, 황달, 대장염, 임증, 대하, 두드러기, 피부소양증, 옴, 버짐 등에 쓴다. 그리고 수태음경, 수양명경에 작용하고, 풍비에 중요하게 쓰이는 약이라 한다.

건강을 되찾고자 하는 환자분이나 수행에 전념하시는 스님들께는 특별히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분들에게 선물용으로 최고입니다.

구입처 018-554-6198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전강 스님(2)

전강, 무자 의지를 반만 일러주십시오
혜봉, 무(無)!
자네가 한번 일러보게
전강, 무(無)!

전강(田岡, 1898~1975) 선사가 24세 때였다. 마침 마곡사 아래 구암리에 주석하고 있던 선지식 혜봉(慧峯, 1874~1956) 스님을 찾아가 질문을 던졌다.

"조주 무자(無字) 의지는 천하 선지식도 반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스님께서 무자 의지를 반만 일러주십시오."

혜봉 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무(無)!"라고 말했다.

"그것이 어찌 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 전강 자네가 한번 일러보게."

"무(無)!"

자신의 기량을 점검하는 동시에 선지식을 저울질 하러 갔던 전강 스님은 '무자' 공안에 대한 혜봉 스님의 답에 만족하지 않았지만, 그 역시 별달리 기특한 말이 아닌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두 선사의 '무(無)'는 과연 같은 것일까, 다른 것일까?

<조주록>에 나오는 '무자 공안'의 한 장면은 다음과 같다.

학인이 조주 스님께 여쭈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狗子還有佛性也無)?"

"없다(無)."

"위로는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아래로는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 불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왜 개에게는 없습니까?"

"그에게는 업식성(業識性)이 있기 때문이다."

모든 생명체에 부처의 성품이 있다는 '일체중생 개유불성(一切衆生 皆有佛性)' 사상은 여러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다. 즉 곤충이나 미물에 이르기까지 몸을 움직일 줄 알기만 한다면 다 불성이 있다고 하셨으니, 개에게도 불성이 있어야 당연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미나 미물은 전생의 지은 업보로 인하여 축생이 되었고 지혜도 없다. 불성이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따라서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있다고도 하기 애매한 것이다. 이 공안에서 조주 스님이 '업식성 운운' 한 것은 낮은 근기의 학인을 위하여 설명한 것일 뿐, '무(無)'라고 말한 본뜻이 따로 있음은 물론이다.

실제로 조주 스님은 '개에게 불성이 있느냐?'는 학인들의 질문에 대해 때론 '있다', 때론 '없다'고 답하면서 무수한 수행자들을 나아갈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경지로 몰아넣었다.

'無字'공안 질문으로 선지식 저울질

조주 "개의 불성은 때론 無 때론 有"

이 공안은 사량·분별로는 접근이 불가능하기에 '왜 개에게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하고 스스로 화두를 들고 참구할 수밖에 없다.

이 공안은 이미 부처님 당시에도 화제가 된 문제였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불성에 대해 설하시면서 중도(中道)를 곁들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불성은 있는 것도 아니며 없는 것도 아니다. 또한 있는 것이며 또한 없는 것이니,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합하는 까닭에 중도라고 한다(佛性 非有非無 亦有亦無 有無合故 名爲中道)."

부처님께서도 이미, 조주 선사와 같이 불성에 대해 있다거나, 없다거나 하는 고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있다거나 없다고 할 때의 '없다'라는데 걸리면 '무자' 화두는 평생 해결 못하는 난제로 남게 된다.

결국 무수한 가르침을 일단 제쳐두고 직접 '무자'와 철저히 한 몸이 되어 조주 스님의 가슴 속으로 들어가 보는 수밖에 없다. **김성우 객원기자**

"벽을 보고 벽인줄 아는 마음을 보라"

거사선의 리더들 ⑧ – 부산불교교육대학원 이도원 원장


이도원 원장

"장마 끝에 푸른 산야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활짝 개인 맑음처럼 생생한 공감 아닌 공감! 나는 그 체험 안에 있었다. '이뭣고?'의 '이것' 자체이며 관념은 구심점(求心點)으로 사라졌다."

1990년 부산불교교육대학원 원장인 이도원(李道源 · 62) 법사는 '이뭣고?' 화두를 타파한 순간을 이렇게 묘사했다. 너무나 분명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는 관성(觀性:보는 성품) 그 자체가 된 체험이었다. 보고자 하는 의식과 본래면목(本來面目)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무명(無明)의 은산철벽(銀山鐵壁)이 사라진 것이다.

추석 연휴가 끝난 9월 27일, 부산 부전동에 소재한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만난 이 법사는 당시의 체험을 "충격적인 감동이요, 안심(安心)의 환희였다. 분명 내관(內觀:자기 마음을 봄)의 문 없는 문은 열린 것이었다"고 회상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법사는 천성산 조계암 선방에서 15년간 입승 소임을 맡고 있으며, 2년 전부터 동명불원에서 참선을 지도했다.

올 3월 부산불교교육대학에 선학과가 신설되면서부터는 매주 월요일 참선 강의와 실수를 지도하고 있다. 1999년 자신의 구도기인 <그냥 갈 수 없는 길>(불광)을 펴내 주목받았던 이 법사는 1945년 경남 진주생으로, 20대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1975년 청담 스님의 명상록을 읽고 발심했다. 1980년 범어사에서 성운지효(聖雲智曉) 스님께 계를 받았으며, 부산불교교육대학 초대 이사장, 부산불교고등학생연합회 지도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는 천성산 대적선원 신도회장과 부산불교교육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선객(禪客)의 할과 방을 감춘 채, 겸손하게 자신의 수행경험을 후학들과 나누고 있는 이 법사. 그로부터 간화선 공부의 요체에 대해 들어 보았다.

부산불교고등학생연합회 지도위원장 등 역임

구도기 담은 '그냥 갈 수 없는 길' 발간하기도

–처음, 성품을 본 당시의 기연(機緣)을 말씀해 달라.

1990년 어느 더운 여름 날, 정좌한 채 벽을 보아서 아는 그 마음을 돌이켜 보기 시작했다. 마음은 찰나간에 관심(觀心)과 망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잠시 부채질을 하다 놓을 참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앉아 있었다. 그런 동안에도 '벽을 보아 벽인 줄 아는' 그 마음을 돌이켜 보고자 애쓰는 관심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때, 돌이켜 관(觀)하는 데 집중되는 듯했는데, 부채가 뇌성벽력과 같은 굉음을 내면서 거실 바닥에 떨어졌다. 돌이켜 보는 가운데 일념(一念)이 됨과 동시에, 부채질하던 팔의 동작이 멈춰지면서 부채를 잡았던 손가락의 힘도 풀리고 부채는 떨어졌던 것이다. 적막을 깨는 그 소리는 천둥 번개 같은 폭음으로 정신을 맑게 일깨워주는 활이 되어 자성을 관하는 힘이 되어 주었을까. 그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가슴 서늘하고 뭉클한 느낌과 동시에 공허(空虛)의 통(通)함 속으로 빨려들어가 버린 것 같았다. 나는 쥐를 잡았고, 소를 잡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견성하는 순간은 주시자(注視者) 자체가 되는 것인가?

비선대 절벽 위에서 아래를 처음 내려다 볼 때 아찔한 순간처럼, 견성하는 찰나는 보려고 하는 심지(心地) 자체가 된다. 화두와 보려고 하는 마음이 계합되는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즉, 견성이란 내가 내 마음바탕이 되어서 아는 체험 자체가 된다. 소리를 들어서 아는 관음(觀音) 자체, 진공(眞空)한 경지인 성품 자체가 되는 것이다.

–깨침의 순간과 현재의식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꿈속이나 흐리멍덩한 무기(無記)상태에서는 성품을 볼 수 없다. 현재의식이 있을 때 깨칠 수 있다. 현재의식은 깨달음의 장벽이 되는 동시에 깨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래서 '땅에서 넘어진 자, 땅을 짚고 일어선다'고 하는 것이다.

–성품을 깨닫는 요체를 경험적으로 말씀해 달라.

가능한 벽을 보고 앉아 좌선하는 게 좋다. 현재 자기 마음은 벽을 보고 벽인 줄 아는 데 있다. 이때 벽을 보지 말고, 벽을 보아 벽인 줄 아는 '이것'을 보라. 이것이 내 마음이요, 자성이다. 보아서 아는 이것을 계속 돌이켜 보라. 현재 마음으로 보아서 무엇인지를 아는 그 마음을 돌이켜 보는 것, 이것을 내관(內觀:달마 대사의 관심법), 회광반조(廻光返照: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돌이켜 스스로의 심성을 비춰 봄), 조견(照見)이라 한다. 돌이켜 보고 도망가면 또 돌이켜 보라. 이를 악물고 사생 결단코 돌이켜 보시라! 돌이켜 보는 순간, 보려고 하는 마음(意識)이 벽을 보아서 벽인 줄 아는 '그것'을 돌이켜 보는 순간 '보려는 마음'과 '보아서 아는 마음'이 합일되는 체험이 온다. 이것이 견성(見性)이요, 관성(觀性) 자체가 되는 순간이다.

–오매일여(寤寐一如), 숙면일여(熟眠一如)를 보임공부의 과정으로 보는가?

그렇다. 깊은 잠에 빠져도 깨어있는 공부가 되어야 한다. 성철 스님이 오매일여는 물론 병중일여(病中一如)를 보이셨듯이, 지유 스님(범어사 조실)은 마취 없이 대수술을 하기도 했다. <천수경>에서 우리 마음을 수리하고 수리하고 또 수리하라고 하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끄달리지 않고 깨어있는 쉼 없는 공부가 이어져야 한다. 화두를 타파해서 진리 자체가 된 체험을 하고 난 뒤, 그 분명한 체험상태가 생활하거나 잠을 자도 깨어 있어야만이 완전한 깨달음이다. **부산=김성우 객원기자**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 02)512-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게시판

● **고엔까 위빠사나 집중수행**=한국위빳사나운영위원회(DHAMMAKOREA)는 10월 17~28일, 10월 31일~11월 11일 문경 김용초등학교에서 고엔까 명상 10일 코스를 연다. (018)335-9882

● **선차(禪茶)와 참선법회**=부산 문수선원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 참선법회를 갖는다. 10월 12일 무비 스님의 〈전심법요〉 강의, 19 · 26일 영명 스님의 선차(禪茶)와 참선 강좌가 열린다. (051)508-3043

● **위빠사나 집중수행**=강릉 인월사 담마선원은 미얀마 마하시수행센터의 우 소다나 사야도를 초청, 10월 20~26일 7일간의 위빠사나 집중수행을 갖는다. 실참, 면담, 법문 등으로 진행. (033)644-1686

● **철야 염불정진**=성남 정토사는 10월 20일 오후 8시부터 철야 염불정진법회를 갖는다. 8일부터 아미타불 100일 기도를 입재한 정토사는 매달 첫째 일요일 오전 10시 만일염불결사 일요법회를 갖는다. (031)723-9797

아주 특별한 치유의 세계!! 미국최면의과대학과 학술교류 협정

제30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 치유법」

▶안내자료 및 공개특강 비디오를 보내드립니다.(1만원)

국제 공인 최면치료사 자격증 취득 可

개강안내 10월 15일 10:00~17:00까지

출석교육과정 매주 월요일 본원출석 7회과정

통신교육과정 전체 교육 내용을 녹화한 비디오테잎 발송(2시간용 총20개)

▶과정별 교재 및 실습테잎 제공

▶교육 참가비 : 200만원
입금계좌 : 조흥은행591-01-008086 (한국의식개발원)

▶특전 : -. 한국최면지도사협회 가입 및 전생상담사증 발급
-. 수료후 미국최면대학 편입학 可

미국 최면의과대학 객원교수 임재형박사 직강

커버넌트대학교 치유상담학 박사
국제 공인 임상 최면치료사(ICHT)
국제 공인 최면치료의사(IMHT)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KBS 무한지대큐, MBC TV특종 놀라운세상,
SBS 백만불 미스터리, Vj세상 속으로, iTV, 방송 등 출연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등 에서 최면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전생(前生), 사주팔자(四柱八字),빙의(憑依)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본 강좌는 사례중심의 시청각 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하여 그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빙의 치유법	빙의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왜 들어왔는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를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빙의된 본인은 물론 가족들도 영가와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영가가 떠나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도 있다
전생요법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 업장을 해소하고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한다.
명리학	사주로 조상영가 보는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자는 이생에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사주 군겁쟁재요....
최면학	최신최면기법, 심리요법, 명상 자율훈련법, 잠재능력 개발(ESP), 불면해소, 각종 통증해소, 공포증 소거법, 금연 금주, 대인공포, 우울증상, 자신감 고취, 열등감 극복 집중력 기억력 초증강법, 알레르지, 자연치유력 활성법 등

驚異 강의를 마치는 즉시 현장에서 바로 활용됩니다.

빙의장애 무료상담

한국최면과학원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상담전화 : 1544-27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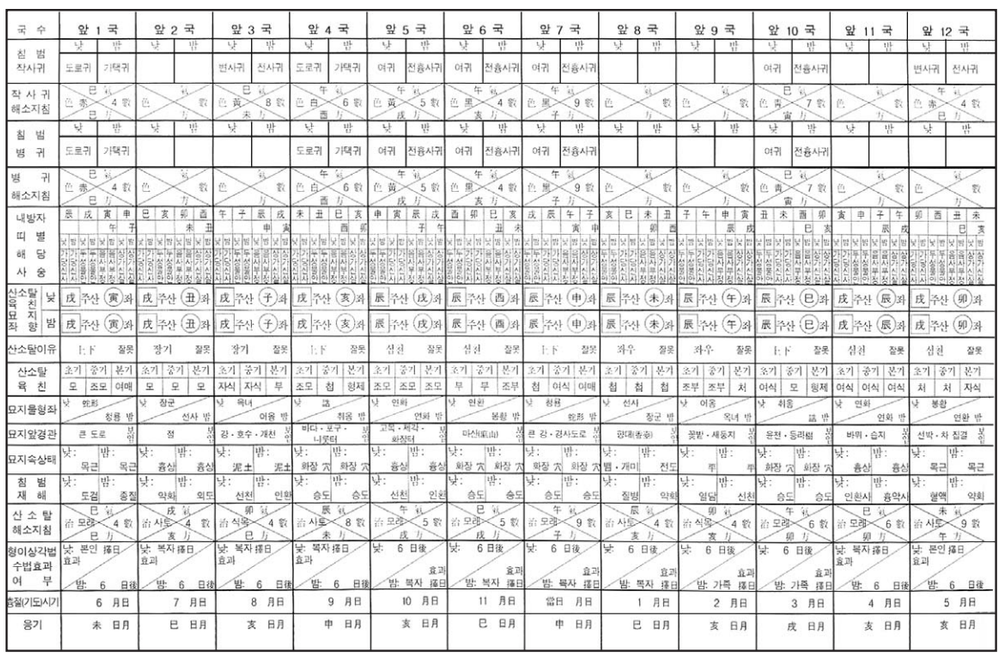
「지금 신청하십시오! 불환금(不換金)의 전무 후무한 친견용 육임활용서 입니다」

이 임상용 육임서를 소지하시면 내방자의 사정을 정확하고 속시원하게 말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을 배워서 쓸려면 많은 비용과 수개월의 학습기간의 불편이따릅니다. 그러나 여기 「**효사육임래정비법**」의 마지막 완결판인 「**효사육임복변집**」을 장만하시면, 학습 받을 필요 없이 가만히 앉아서 매우 간편하게 큰 효과를 얻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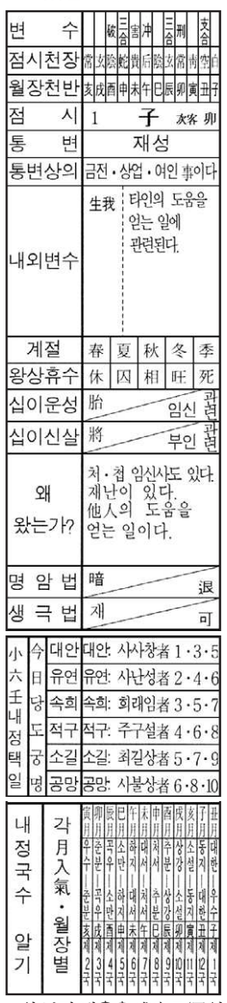
이 책은 60갑자 60일 것이 매일 한권 **(1권A4 용지 크기 3장 6면)**의 얇은 보고서 형태로 구성되어 고도의 「**적중도**」, 다양한 「**효과성**」, 혁신적 「**간편성**」을 보장시켰습니다.

- 각일 **제 1면** 은 「**왜 왔는가?**」에 대해 **14개 칸으로 구분**하여 답(보기 제1참조)을 써 놨고
- 각일 **제 2면** 은 「**지금 어떤 정황인가?**」에 대해 **17개 법칙**으로 답(보기 제2참조)과 **선거 · 시험 · 취직 · 영전사** 여부를 독립시켜 답을 달았습니다.
- 각일 **제 3면** 은 「**형이상법**」으로서 **작사귀 · 병귀 · 부정빌미 · 산소탈의** 답 (보기 제3참조)을 써 놨고
- 각일 **제 4면** 은 「**사과삼전**」 국수로서 **초사 · 원전요결 · 사정 · 발현사 · 당면문제처신 · 길방 · 택일 · 승좌 · 선악 · 계획사 · 성공** 등의 답(보기 제 4참조)을 써 놨고
- 각일 **제 5면** 은 「**년명산신 · 행년상신**」으로서 **당면운세 당 나이운세 · 본인재액 · 친족재액 · 12년 후 까지의 운세 · 불성자 · 산기자 · 관재자 · 곤궁자 · 승진자 · 재산획득자** 여부 등을 즉시 알게 써 놨고
- 각일 **제 6면** 은 「**성부 단정**」으로서, 물어올수 있는 **23개 항목을 설정하여 그 성부의 답**(보기 제6참조)을 달아 놨습니다.
- 각일 **제 7면 ~ 13면** 은 「**1년신수**」를 붙여 **1년 중 월별 吉凶과 있게 될 사정**들을 적시해 놨습니다.
- 각일 **제14면 ~18면** 은 잘 정리된 「**육임신살**」을 달아 응용효과를 높여 놨습니다.

3. 형이상 (보기 제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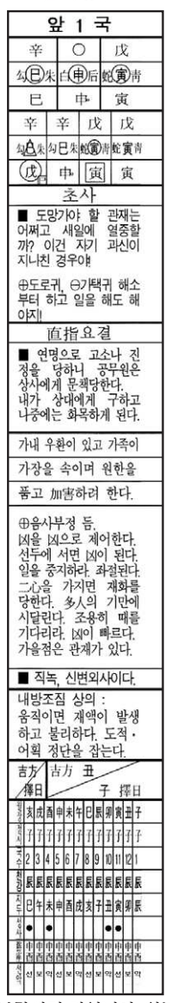
1. 시보 「왜 왔는가?」



2. 내정 「지금 어떤 정황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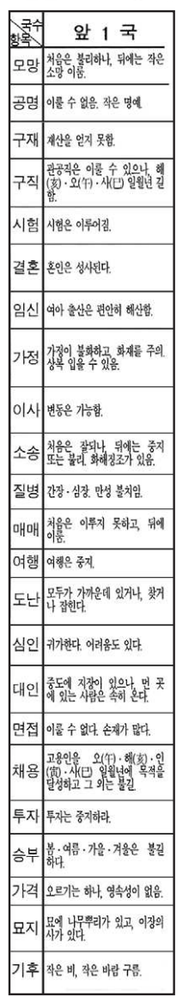
4. 사과삼전 「핵심사정」



5. 천지반 「운세」



6. 성부단정 「묻는 목적사 성부」



■ 위 보기 내용은 戊寅日(무인일)것으로서 지면의 한계로 축소해 분할시킨 것입니다. 원본은 일목요연합니다.

책을 내며 ...

지난 2000년도에 발간되기 시작한 육임래정비법 시리즈 최종판이 나온지 3년이 되었다. 이 책을 사용용하는 분들이 전국에 많은데 이번에 육임의 장 · 강점들을 더 보강하여 60갑자 간지일 시별로 하루 한 장씩 60장에 더 간편히 모아 담는 작업을 했다.

내게 녹아 있는 육임의 효율적인 법칙들을 꼼꼼히 적시했으므로 전에 미처 못 했던 아쉬움이 많이 누그러진다.

이번 이 활용서는 정확도, 신속도, 착안도 , 간편성을 최대한 제고 시켰으므로 활인 천역자 제위의 한층 권위 있고 쉬운 복변이 가능하리라 믿는다.

한 사람이 파고드는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결국 육임 한 길만은 어떤 측면에서든 선명하게 닦아 놓은 역할이 될 듯 싶다.

우리 활인천역자는 비길데 없는 잣대 하나씩을 쥐고 가야할 것이다. 그래서 사계 인사들의 위상을 높여드려야겠다는 진정으로 오차 없는 눈금을 위해 많은 시간을 집중적으로 썼다.

이 책을 받아보기 위해 선입금 까지 해 주시면서 오랜 날짜를 기다려 주신 전국 현인 · 기사 · 이인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 드린다.

2007년 10월 1일 고복자 효사 배상

- 책 값 : 250만원
- 규 격 : 가로 35Cm × 세로 30Cm × 두께 1.5m/m
  표지 - 적색, 제본 - 무선, 전 60권 각 일별 1권
- 입 금 : 우리은행 1005-700-951487 [예금주:육임나라(주)]
  농 협 170338-56-155880 [예금주:김나형(주작)]
- 주소통보전화 : 02)993-8680 (담당 : 김영란)
- 교 환 :

1. 고복자 효사의 육임대계전서를 제외한 기존 육임 활용저서 모두를 본 완결판 「효사육임복변집」으로 대체해 드릴 방침이오니 교환을 원하시는 분은 150만원을 입금하시고 가격불문 기존의 책을 반납하십시오.
2. 또, 육임학습서인 기존 효사육임강의록 1차본 - 5차본도 「효사육임강론序6版本」 上下권 완결판으로 교환해 드리고 있아오니 15만원을 입금하시고 기존의 책을 반납하십시오.

좌(左)와 같이 구성한 복변내용은 아무나 감히 흉내 낼 수 없고, 또, 흉내를 내서도 않되는, 육임에 녹아 있어야만 가능한 내용들의 적시로서, 우리 활인천역자들의 복변능력과 수법의 영험능력을 몇 단계 고양시키겠다는 자기계현에 의한 소명의식 없이는 불가능한 거사임에 틀림없겠습니다.

잘 살펴 보시고, 각자 맞는 조건대로 입금, 신청하십시오.

"장맛을 봐야 장맛을 알지"라는 말씀과 함께, 제가 각고 끝에 완결해낸 이번 본 "효사육임복변집"은 전국 현인 · 기사 · 이인 · 대사 여러분의 평생을 반려하는 천금서가 될 것임을 일러드립니다.

역학문화를 선도를 하는 **육 임 나 라 (주)** www.taotemple.net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서울 N서울타워에서는
직접 만지고, 올라타고, 움직여보며 직접 체험하는 전시 '정크아트 특별 체험전'이 10월 31일까지 계속되고 있다. 느낌 · 재미 · 신비 · 체험 · 환경 · 놀이 등 6개의 테마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살아 숨 쉬는 학습의 장으로 인기다. (02)3444-9750

국립서울과학관에서는
10월 4일부터 노벨이 만드는 놀라운 건강세상 '노벨사이언스체험전'이 열리고 있다. 노벨상이나 세포, 미생물 등 생명에 관심있는 어린이청소년에게 유익한 정보가 가득하다. 3D 영상 체험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nobelstory.com)참조.

서울어린이대공원 어린이예술마당에서는
명화 속 주인공들을 인형으로 만날 수 있는 '명화 속 인형전'이 10월 20일까지 펼쳐진다. 아이들이 명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9판절 종이인형 만들기와 활동놀이 '나도 명화 속 주인공' 등도 함께 즐길 수 있다. (02)466-2606

대전 송강근린공원에서는
일상에서의 책읽기 활동에 놀이를 접목해 책과 함께 즐기며 체험 할 수 있는 '2007 책+놀이 책마을축제'를 10월 19일 개최한다. 행사는 공연과 전시, 책읽기 마라톤, 가족 참여 행사 등으로 다양하게 펼쳐진다. 10일부터 대전 유성도서관 현장 예약. (042)601-6530

공주시 공산성 공북루에서는
향토성 짙은 한국적인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고마나루 전국향토연극제'가 10월 6~14일 열린다. 다른 연극제와 달리 토속적인 민속극이 주를 이룬다. 자세한 연극제 일정은 홈페이지(www.gomanaru.or.kr)참조. (041)855-3295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부산 금정사회복지관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가족에게 하기 어려운 얘기도 술술~ 타인과 소통을 통한 '사회화' 경험

"너거, 좀 친해졌나?"

부산 금사동에 자리한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이하 금정복지관). 9월 29일, 명절 끝 텅 빈 복지관에는 인근 학교 중학생 9명뿐이다. 아이들 몇 명이 짝을 이뤄 낯가림을 하는가 싶어 금정복지관 손동혁 사회복지사가 넌지시 물어보자 다들 "쌤~ 친해지고 말고 할 게 어딨어요"라며 웃는다.

아이들끼리 친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날은 대학생 언니 오빠들을 만나는 날. 그래서 그런지 더 기대감에 부푼 모습이다. 아이들과 대학생들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모였으니 말이다.



멘토링이란, 어떤 문제에 대해 멘토(상담하는 사람)와 멘티(상담받는 사람)로 일대일 짝을 이뤄 상담하거나 조언하는 것을 말한다. 한창 예민하고 고민이 많은 시기인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특히 적합한 프로그램이다. 금정복지관에서는 이번이 3번째다.

이번에 금정복지관에서 멘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상은 저소득층 가정 중학생들이다. 밝게 자라나야 할 아이들이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의기소침해 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 중 몇 명은 '일대일' 관계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법을 깨달아 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희(가명 · 16)는 적응을 잘 하지 못해 학교 담임선생님이 멘토링 프로그램에 적극 추천한 케이스다. 연희와 친한 현주(가명 · 15)도 마찬가지다. 연희 쪽은 무척 소심하지만 공부를 하려는 의지는 강하다. 현주의 경우 워낙 낯가림이 심해 옆에 있는 사람이 떨어질 경우 매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인다.

손동혁 복지사는 "연희나 현주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면서 "앞으로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이들을 다독였다.

연희와 현주가 조금 특별한 케이스라면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쾌활 발랄한 청소년 모습 그대로다.

정현(가명 · 16)이는 그야말로 '구김살 없는' 아이다. 워낙 싹싹하고 애교가 많아 학교에서도 복지관에서도 인기 만점 소녀다. 씩씩하고 목소리가 큰 선미(가명 · 16)는 골목대장 스타일이다. 그래도 사춘기 소녀들의 고민이 이들을 괴롭힐 때가 있는 법.

"식구들에게 하기 힘든 말도 있고 친구들에게 하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럴 때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있으면 참 든든해요."

지난 번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다 보니 사회복지에 관심이 생겼다는 정현이. 멘토 언니가 사회복지 전공자여서 정보도 많이 얻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단다. 나중에 자신과 같은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는 작은 포부도 있다.

이날 멘토 쪽 언니오빠들도 내 짝이 누굴까, 기대감에 찬 표정이 역력했다. 길관(경성대 2)씨는 다리에 깁스를 한 채 멘티 윤정(가명 · 15)이를 보기 위해 나타났다.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윤정이와 얼른 만나고 싶은 마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이날은 되려 길관씨가 윤정이에게 '토닥토닥' 위로를 받았다.

멘토 대표 민화(신라대 3)씨는 "오늘 만나게 될 연희와는 전화통화를 몇 차례 해서 거리감을 없애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적극적이고 친화력이 강한 민화씨와 연희는 정말 제대로 만났다.

"연희에 대해서는 몇 가지 들었어요. 앞으로 연희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 살려주려 합니다. 많이 보듬어주고 싶어요."

처음 만난 사이는 어쩔 수 없이 약간은 서먹하기 마련이다. 이럴 때 빨리 친해지는 방법으로 게임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것도 이름외기 게임.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사람은 이전 사람 이름까지 붙여서 말해야 하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기억력의 한계가 찾아온다.

처음에는 4명 정도만 늘어나도 헤매던 아이들과 대학생 언니오빠들. 틀리면 벌칙은 '인디언 밥'이다. 벌칙에는 언니오빠든 아이들이든 인정사정이 없다. 그렇게 '맞아가며(?)' 약 10여 차례 돌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름을 다 외게 된다.

앞으로 이들은 1년 동안 언니오빠 - 동생 관계로 지내게 된다. 그러면서 교환일기도 쓰고 전화도 하고 매주 토요일 만나 얼굴을 보면서 정서적인 교류를 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UCC제작, 타악 연주, 직업훈련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함께 하게 된다.



아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 타인과 함께 지내면서 스스로 사회 안에서 우뚝 설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그것이 멘토링의 진정한 의도일 테니까.

하지만 이들이 서로에게 무엇을 느끼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들도, 또 지켜보는 사람들도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첫걸음을 떼는 과정은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것으로 시작됐다.

부산/글 · 사진=김강진 기자

삼사순례 및 방생안내

본 용연사는 태조왕건의 기도처로 알려져오다 중창을 거듭하여 오늘에 이르는 도량입니다. 동국여지승람에 이르길 왕건이 개성으로 진군할 당시 몸이 쇠약하여 이곳 서흥사지에 머물러 기도한 곳입니다. 도량앞엔 800만평의 호수가 있어 예로부터 방생터로 이름난 곳이며 교통의 편리성으로 불편없는 용왕제를 지낼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20분내에 좌불상 각원사와 보탑사, 성불사, 광덕사로 삼사순례의 최적지입니다.

안 내
- 방생터내 버스 100대 동시 주차가능
- 도량내 버스 20대 주차가능
- 사전예약시 무료공양 (별도공양비없음) 일주일전 예약
- 방생터내 상과향로촛대 설치, 스님좌복구비
- 외래어종방생금지

■ 예약전화 : 041)554-8080

■ 오시는 길(방생터)
경부선 목천 TG → 독립기념관 → 용연저수지 대주차장

태조산 서흥사지 용연사 충남 천안시 목천읍 서흥리 240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죽염 125g 27,500원
가 루 자죽염 230g 50,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27,5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50,0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8,000원

기본 배송비 2,500원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주문전화 : 053)985-1135 / 054)733-0979
전국 각 지역별 판매처 모집중 ! 016-823-0483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어머니는 감풀에서 걸어 나오면 방파제에 두었던 물병으로 벌률을 마시곤 했지요.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이 관자놀이까지 눌러쓴 모자 아래로 얼핏 보였습니다. 바다에서 살다시피 하는 어머니. 자식들 학비 마련을 위해 바다에 뛰어든 거지요. 애오라지 한 대야를 채우곤 했지만 어머니 허리는 더 굽어보였더랬지요.

애오라지 : '겨우'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이에요.(우리가 쓸 수 있는 물자가 애오라지 이것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이냐?) 또 오로지'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로도 쓰이죠.(그의 핼쑥한 표정이 애오라지 미순이 자기의 문제 때문만이 아님을 그녀는 또한 알고 있었다.)<이문희, 흑맥>

관자놀이 : 귀와 눈 사이의 맥박이 뛰는 곳. 그곳에서 맥박이 뛸 때 관자가 움직인다는 데서 나온 말이다.(할아범은 하상의 관자놀이를 굵은 손가락으로 가볍게 찔렀다.)<한무숙, 만남>

감풀 : 썰물 때에만 드러나 보이는 넓고 평평한 모래벌판.

벌물 : 맛도 모르고 마구 들이켜는 물.(저 물을 건너느니, 차라리 저걸 벌물로 다 들이켜는 것이 더 쉬울 성 싶었다.)<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날개야 돋아라, 한 번 더 날아 보자꾸나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이상 作 '날개'

1930년대 모더니즘 계열의 대표라 할 수 있죠. 이 작품은 뒤바뀐 삶과 잃어버린 자아를 찾으려는 한 지식인의 내면세계를 '의식의 흐름'이라는 기법으로 잘 표현한 초현실주의 단편소설이죠. 1936년 <조광> 9월호에 발표된 단편으로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나와 아내가 등장하죠. 자아 분열의 의식 속에서 본래의 자아를 찾으려는 인간의 내면 의지가 아닐까요. 심리주의 소설이기도 한 이 소설은 고백적이면서도 상징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어요. 소설에 등장하는 나는 경제적, 사회적, 성적으로 아내보다 열등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세당한' 남편이죠. 날개의 소생을 꿈꾸며 사회로의 복귀를 시도하는 사람이죠. 아내는 남편보다 우월한 존재로, 종속 상태에 놓여 있는 남편 위에 군림하는 가학적인 여성이죠. 이 작품에서 작가는 무얼 말하려고 했을까를 곰곰 생각하며 읽어야 해요. 그래야 날개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거든요.

지식 청년인 '나'는 유곽이라는 느낌이 없지 않은 33번지 18가구 중 대문간에서 일곱째 칸에 있는, 볕이 들지 않는 뒷방에서 놀거나 밤낮없이 잠만 자면서 아내에게 사육된다. '나'는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자의식이 강하며 현실 감각이 없지만, 18가구 중에서 제일 작고 아름다운 아내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아내가 외출하고 난 뒤에 '나'는 아내가 쓰고 있는 아랫방으로 가서 동쪽으로 난 창문을 열어 놓고 화장품 냄새를 맡거나 돋보기로 화장지를 태우면서 아내에 대한 욕구를 대신한다.

어느 날 돈이란 것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나'는 아내에게서 받은 은화를 넣은 벙어리저금통을 변소에 버리고 아내의 밤 외출을 틈타 외출을 한다. 그러나 다리가 아파 견디지 못해 다시 집으로 돌아와 돈을 아내 손에 쥐어 주고

1930년대 모더니즘 대표작
일상 탈출 · 자아 확인 그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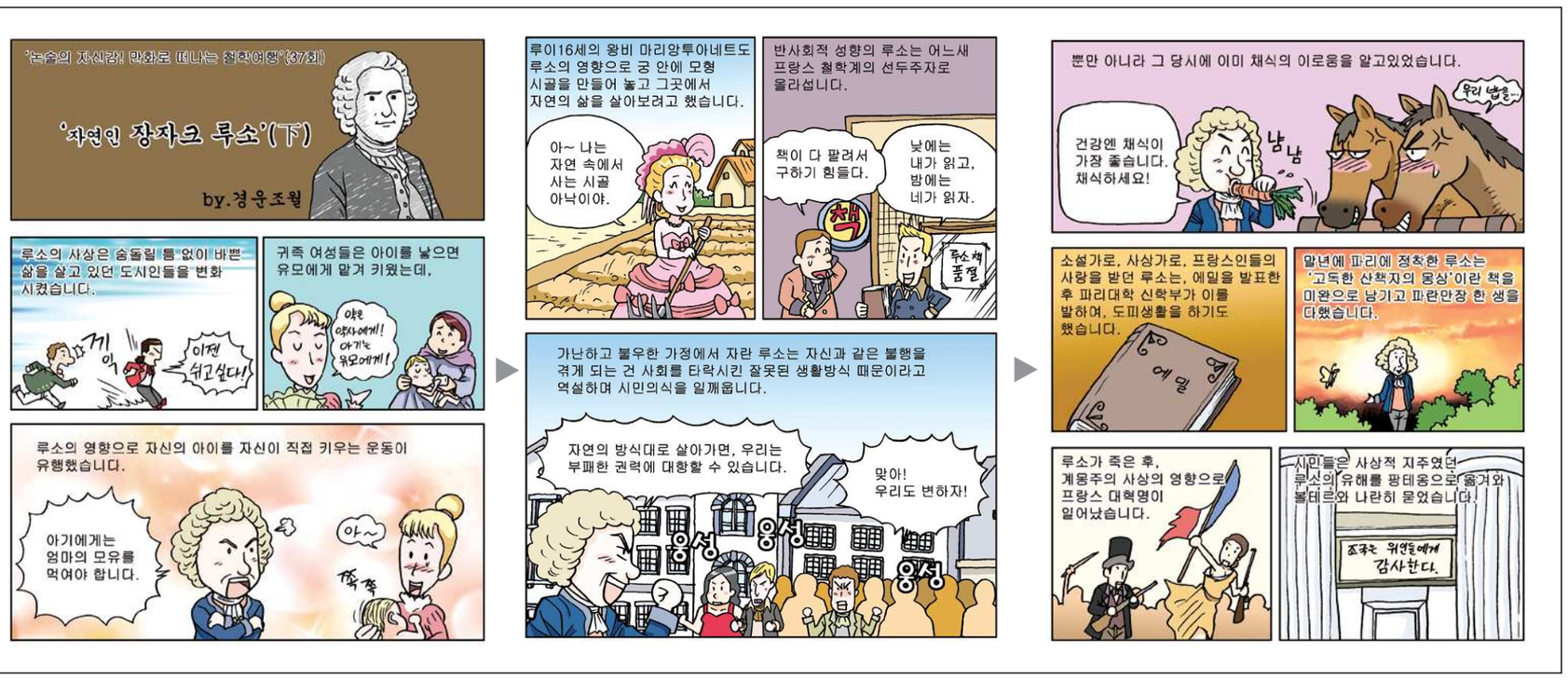
아내의 방에서 처음으로 잠을 잔다. 낮잠을 자다가 아내에게 흔들려 깨어난 '나'는 아내가 쥐어 주는 돈을 가지고 경성역 대합실 옆 다방에 있다가 비를 맞고 자정을 기다린다.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만 아내의 매음 현장을 목격하게 되며, 그로부터 여러 날을 앓아눕는다.

며칠을 앓아누웠던 '나'는 아내가 주는 약을 받아먹고 잠에 취한다. 그 약이 감기약 아스피린인 줄 알고 지내던 '나'는 어느 날 거울을 보러 아내의 방에 갔다가 그것이 수면제 아달린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나'는 주머니에 '아달린'을 넣고 외출을 하여 아내가 밤낮 나를 재워 놓고 무엇을 하려 했는가를 생각해 본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남은 돈을 문지방에 놓고 도망쳐 나와 거리를 쏘다니던 끝에 미스코시 백화점 옥상에 올라 스물여섯 해의 과거를 회상한다. 이 때 정오의 싸이렌이 울고, '나'는 '날개야 다시 돋아라, 한 번만 더 날아 보자꾸나.'라고 외쳐 보고 싶어진다.

나의 외출과 그에 따른 의식의 변화를 잘 읽어내는 것이 이 작품을 더 잘 읽는 비결이에요. 이 작품은 현실에서 이미 거세당한 자가 자신의 자리나 자신을 되찾지 못하다 그것을 의식하는 과정을 난해하고 파격적인 형식으로 엮고 있어요. 마지막 대목의 '날개의 비상'은 분열된 자아를 결합하고 자기 구원을 꾀하는 실존의 의지로 보여요. '나'와 아내의 종속관계는 시간과 공간의 소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외출을 통하여 아내의 손아귀에서 일단 풀려 나온 '나'는 다시 아내가 쳐 놓은 시간에 감금되거나 자정 전에는 절대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나'의 외출이 반복되면서 '나'는 점점 자아를 되찾게 되죠. 드디어 수면제를 확인하고 '나'는 아내와의 일상 세계를 벗어나고자 하죠. 마지막 외출을 통해서요.

아내가 지정한 자정의 시간과 반대쪽인, 마지막 외출에서 맞는 정오의 사이렌은 강요된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계기가 되죠. 대낮의 정점으로서의 정오는 아내와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전환점이자 '눈에 보이지 않는 끈적끈적한 줄'로부터 해방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아 보려는, 일상에서의 탈출의 욕망이며, 진정한 자아의 확인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제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어른들은 왜 아니라고 할까요?

왜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을까요? 제가 옳은 것 같은데 어른들은 아니라고 할 때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뭐가 문젠가요?(ID: godfather11)

누구든 다 옳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잘못된 것이라 여기기 쉽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옳다'는 아상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내 생각에 찬성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꾸만 내 곁에 두려 하고, 내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꾸만 멀리하려 합니다.

사실 진정 '나'를 위해서라면 내 뜻에 맞지 않는 견해를 가진 사람을 가까이 둘 일입니다.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은 나의 어리석은 아상을 일깨우는 참으로 소중한 스승임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안다는 것은 그 어떤 상대의 생각도 받아 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의미하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옳을 수도 있는 만큼 그를 수도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뻔히 내 생각이 그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고집을 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내 주관 없이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 생각이든 상대의 생각이든 둘 다 절대적으로 옳다거나 혹은 절대적으로 그르다거나 하고 옳고 그름을 고정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음을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음을, 그렇게 생각이 툭 터져 자유로워지도록 해봅시다. (법립사 주무진님)

당뇨병 27차 당뇨병 전문연구가 이부경원장의 세계가 경탄할 당뇨병 퇴치 특별세미나

당뇨병은 고칠수 있는데 왜 못고치고 있나? ➡ 진정한 원리를 모르기때문
– 30년 집념의 연구끝에 얻어낸 신비의 새로운 이론과 기술 –



당뇨병 퇴치 세미나 주요골자

국내 저명인사들의 당뇨 퇴치사례를 겸하여 ...

• 당뇨병 왜 못고치고 있나!
• 모든 질병의 원인이 하나이듯 당뇨병의 원인도 하나!
• 엉터리 치료법에 속고 있기 때문이다.
• 재발 가능성, 합병증의 염려없는 확실한 당뇨병 치료법
• 당뇨병 치료는 속여서도, 속아서도 안된다.
• 천지가 진동할 충격적인 당뇨병 원인론과 당뇨병 치료법

이 한번의 강의 듣고 실천하면 당뇨병은 굳바이!

〈이부경원장의 당뇨병 퇴치 강의 실적〉
국내초청 : 농림부, 환경부, 전매공사, 농협, 능률협회, 농촌진흥청, 공무원교육원, 새마을 연수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청주교육대학, 각 기독교 단체수련회, 개교회특강, 주부교실, 부산일보, KBS, MBC 등 수백회
해외초청 : 미국, 중국, 브라질, 대만, 홍콩
주요저서
불치병 없는 세상, 건강혁명, 불치병을 정복하라, 노벨상감의 건강박사, 내 사전에 불치병은 없다, 기미 여드름 치료법, 당뇨대란을 막아라,
시집 :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 등 기타...
천지가 진동할 충격적인 건강 칼럼 연재
교회연합신문, 한국교회신보, 월간목회, 자연과 건강, 농협 새농민지, 공공정책21, 한국 발명저널, 코스닥 데일리 등 다수

※ 본세미나에서는 당뇨병 및 고혈압에 관한 질의 응답시간이 주어집니다.
▶일 시 2007년 10월 17일(수), 19일(금) 오후 2시
▶장 소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1층 코스모홀
【오시는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1번출구 (필기도구 지참)
예약접수 : 02-466-1115
※ 문의하시는 모든 분들께 당뇨병 치료용 소책자를 무료송부
☆www.bkcure.com☆

제5회 대원상(大圓賞) 시상 안내

◆시상 요강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설립자이신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한국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현대화를 위하여 불교 포교에 모범적으로 정진하고 있는 불자 및 단체를 선정, 제5회 대원상을 시상합니다.
이는 모든 불자들에게 귀감이 되어 불법 홍포와 진흥의 바탕이 되도록 함이고, 또한 젊은 불자들에게 불교 포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마음으로 신행과 수행에 정진토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시상 부문 – 대 상 : 승가 부문 1인 – 상패 및 상금 1,500만원.
재가 부문 1인 – 상패 및 상금 1,500만원.
단체 부문 1곳 – 상패 및 상금 2,000만원.
– 특별상 : 약간 명(곳) – 각 상패 및 상금 500만원.

◆수상자 선정
① 대상 승가 부문은 '대원상심사위원회'에서 추대하여 수상합니다.
② 대상 재가 부문 및 단체 부문, 특별상 부문은 추천 서류를 일괄 접수하여 수상자를 구분 선정합니다.
③ 특별상은 접수한 재가 부문 및 단체 부문 중에서 교계에 알려지지 않은 숨은 불자, 단체들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수상 후보 추천 접수
① 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는 일반 추천 접수와 '대원상수상후보추천위원회' 회의를 통한 추천 접수를 병행하여 실시합니다.
② 재가 부문 수상 후보자 본인이 직접 추천할 수 없고, 단체 부문도 수상 후보 단체의 대표나 임원 등이 직접 추천할 수 없습니다.
③ 개인은 불교 포교 활동 경력 10년 이상인 불자이어야 하고, 단체는 단체 설립 5년 이상인 곳으로 활동 회원이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합니다.
④ 각 부문 수상자는 해당 부문과 관련하여 활동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주로 검토, 선정합니다.
⑤ 후보자들이 일정 자격수준 혹은 불교 포교 활동 공적이 본 상의 권위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① 제5회 대원상 수상 후보 추천서 (양식은 본 원 홈페이지 www.kbpf.org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② 관련 부문 실적 자료 첨부.

◆서류 접수 및 문의처
① 접수 기간 : 2007년 10월 1일 ~ 10월 31일.
② 접수 및 문의처 : 본 원 사무국.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5층 / 전화 : (02)719-1855, 2606
홈페이지 : www.kbpf.org / e-mail : dabopia@kbpf.org
③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당일자 소인 유효)

◆시 상 – 시상일 : 2007년 12월 7일(금) / 시상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 홍승희

병마와 화해한 사람은 극락으로 떠나고…



"태민이의 죽음은 이렇듯 가족들에게 진정한 삶의 행복을 생각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나에게는 사람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는 수행자의 본면목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태민이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다. 캄캄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세상에 나올 때 이렇게 나를 반기는 가족이 있을 줄 몰랐듯이 저 극락세계에서도 그를 맞이할 영혼이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처 피어보지도 못한 13살의 소녀가 병고를 이기지 못하고 죽던 날, 효종 스님은 밤늦게 소녀의 부모로부터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소녀에게 "죽음은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것일 뿐" 이라고 말한다. 소녀는 "스님, 제가 잠들 때까지 옆에 계셔야 해요. 손을 꼭 잡아 주세요. 저는 13년 동안 살아 온 것보다 지난 한 달이 더 행복했어요. 전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어요" 라는 말을 하고 잠이 들었다. 가족들과 스님이 둘러서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가운데…

부산 지역에서 호스피스 활동과 간병인 봉사활동을 이끌고 있는 효종 스님은 지난 20년간 법당보다 병실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스님에게 병실은 법당이고 병원은 도량이었다. 그리고 함께 간병인 봉사를 하고 호스피스 활동을 하는 불자들이 도반이었다.

효종 스님의 호스피스 활동은 "불교는 말로는 깨달음의 종교, 해탈의 종교, 대자유인의 종교임을 자처하면서도 사회에 직접 뿌리 내리지 못하고 아직도 법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그 임무를 다하고 있는 듯" 한 불교계의 풍토에 대한 자기반성에서 시작됐다. 타종교의 전도가 산골 오지마을은 물론 병원과 각종 복지단체 깊숙한 곳에서 열렬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불교계의 포교 원력은 소외된 곳에 스며들지 않는 현실을 보고 발 벗고 나섰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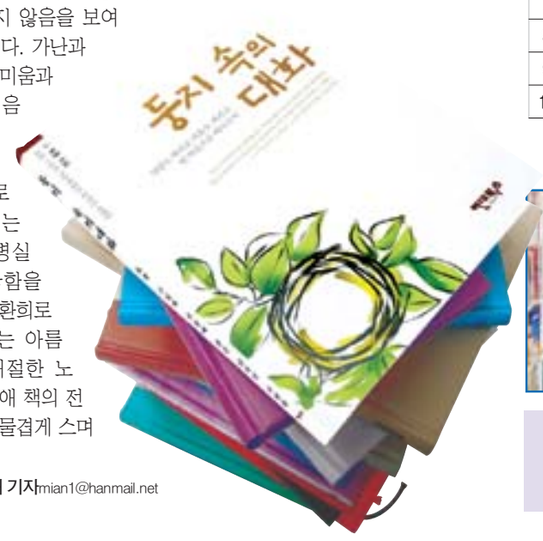
그리고 수많은 환자를 돌보고 그들과 함께 웃고 울고 통곡하면서 "수행자가 자신의 수행과 이웃의 선도를 게을리 하고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는 확신을 실천해 왔다.

<둥지 속의 대화>는 바로 효종 스님이 병원을 도량삼아 수행하며 이어 온 인연들의 이야기다. 30여 편의 이야기들은 병고를 이겨낸 가슴 벅찬 과정보다는 병상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는 과정들이 소개되고 있다. 스님이 병원을 도량으로 삼아 오면서 호스피스 활동의 근원적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의 마음을 극락으로 만드는 일이 결코 쉬울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책에 담겨진 이야기들은 감동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를 동시에 전해 준다.

효종 스님은 환자가 병마와 화해를 하는 과정, 가족들의 사랑을 확고하게 다져가는 과정,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일깨우는 과정 등이 병실이라는 둥지에서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전하며 누구도 병고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난과 병고와 미움과 어리석음이 새로운 희망으로 부화되는 둥지, 병실의 적막함을 극락의 환희로 바꿔가는 아름답고 애절한 노력들이 애 책의 전반에 눈물겹게 스며 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둥지 속의 대화
효종 스님 지음
현대북스 펴냄 | 1만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2	생명의 고향,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가르침	청화	상상예찬
3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4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5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6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7	할리우드 붓다	성휴	클리어마인드
8	화, 욱하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	톱텐 초드론	미디어 윌
9	도를 찾아 떠난 고양이	앙리 브뤼넬	솔바람
10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현대불교' 후원은 포교에 동참하는 길!
후원 계좌 : 006-01-0785-361 국민은행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신수비결"
2008년 무자년의 나의 운세
- 직업 운,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 성적 및 진학 운
- 일진 및 외출하는 날
-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 집에서 2008년의 운세를 볼 수 있음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 30,000 (삼만원)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만 사용
- 320여개의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을 맞추고,
- 성씨별로 2000-3000여개의 이름들로 구성
- 개명, 작명, 상호, 법명 등에 바로 사용할 수 있음
- 이름대사전 : 50,000 (오만원)

※ 글로 쓰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이름대사전 총정리 CD를 보급합니다. (정가 30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슬라브, 창고, 공장, 가정집 (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1-327-7697
전라도 : 010-2311-0157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현대칼라지붕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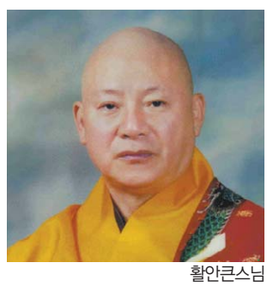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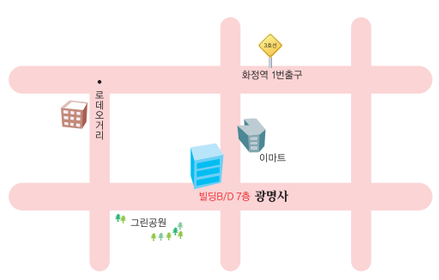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 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서울 법회는
11월 4일(日) 도봉에서 열립니다.
* 서울선원 ☎ 02-3494-0122 (매월 첫째 일요일)
선가귀감 / 11월 4일 오전 11시
* 광주선원 ☎ 062-944-4088 (매월 셋째 일요일)
선문염송 / 10월 21일 오후 2시
* 부산선원 ☎ 051-545-2460 (매월 넷째 일요일)
반야심경 / 10월 28일 오후 3시
☎ 02-522-0122 www.zenparadise.com

강릉 인월사 담마선원
위빠사나 집중수행 안내
지혜와 자비를 개발하는 불교명상법인 위빠사나 집중수행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불자뿐 아니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푸른 솔숲 향기와 목조 황토방 선원에서 깨달음의 휴식을 가져 보십시오"

일 정	지 도	인 원	대 상
2007년 10월 20일 - 10월26일(6박 7일)	우 소다나 사야도	20명 선착순	일반인

■ 수행장소 : 강원도 강릉시 경포 저동 6-2번지 인월사 담마선원 (황토방에 욕실과 화장실 완비)
■ 수행내용 : 좌선, 행선, 일상생활수행 매일 수행 점검을 위한 사야도(큰스님)의 면담과 법문이 있음
■ 입제 및 회향 : (6박7일 중 일부기간 참여가능)
• 시 작 날 - 10월 20일 오후 5시
• 끝나는 날 - 10월 26일 오전 12시
■ 참 가 비 : 15만원
(우체국 201780-01-001463 예금주: 담마선원)
■ 준 비 물 : 수행에 편한 복장, 세면도구, 필기도구
■ 문의 및 접수 : ☎ 담마선원 033)644-1686
email:dhamma53@hanmail.net

세계불교법왕청 몽골불교대학 부설
세계불교명상센터 제2기 학생모집안내
도심에서 만나는 히말라야 명상
평화를 가져오는 심안법
대안적인 삶 (Alternative Living)
여러분의 삶을 바꾸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세요
■ 일 시 : 2007년 10월 14일(일요일) 오후 2시 개원
(활안큰스님 벽암록 강의 월 2회)
■ 장 소 : 화정 광명사 법당
■ 지도자 : 명상센터 원장 보현법사
■ 문 의 : 031)978-9782(광명사), 011-447-1122(원장), 02)969-2410(금강선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79-2 백양빌딩 7층

활안큰스님
1. 진실한 사랑이 있는 화목한 가정생활
2. 동료와 함께 발전하는 지혜로운 직장생활
3. 밝고 명랑한 학교생활
4. 시험합격을 위한 밝은 지혜
5. 건강과 행운이 깃든 신나는 자아실현
명상을 하면 내가 바뀌고 내가 바뀌면 새로운 세상을 만납니다
하루 10분씩 3번 아침 · 점심 · 저녁을 평화롭게 보내는 행복한 명상

보현법사


(사) 한국불교 금강선원 광명사 세계불교명상센터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

남산스님의 기혈수비법

괄사 · 발란스 테이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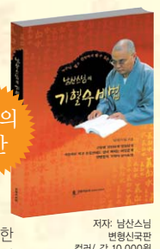

물소뿔 괄사
10cmX7cm(15,000원)
물소뿔로 제작된 괄사는 수공으로 직접 만들어 부작용이 없다. 관절염과 비만, 변비, 뱃살, 혈액순환, 당뇨병, 고혈압, 잔주름 제거에 괄사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쪽으로 자연스럽게 45도 각도로 긁어주면 된다. 또한 긁은 자리에 붉은 피멍이 드는 것은 부작용이 아니라 나쁜 사가 나오는 것으로 며칠이 지나면 사라진다. 매일 30회씩 괄사를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긁어주면 된다.






발란스 테이핑
5cmX10m(25,000원)
정형외과나 한의원등에서 많이 쓰이는 테이핑 요법이다.

테이핑을 붙이기 전에 부위에 따라 15cm 간격으로 잘라놓고 어깨결림, 관절, 오십견, 좌골신경통, 근육통 등은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붙여주어야 한다. 또한 피부를 깨끗하게 닦은 뒤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저자: 남산스님
변형신국판
컬러/ 값 10,000원

기혈수비법이란?

'기적의 파스요법' 창시자로 유명한 남산스님이 이번에 몇 십년 동안 대체의학 방면으로 꾸준히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실험을 하여 얻은 결론들을 토대로 기혈수비법을 공개한다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혈수비법 중에는 고혈압과 관절염을 가정에서도 쉽게 해결하는 방법과 위장병 당뇨병 왜 못고치는가? 마음대로 먹고 운동 안해도 뱃살이 빠지는 비법을 위주로 구성되었으며 집에서도 간단하게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국부카르마 문의: 080-999-1080 우체국 601161-01-005632(예금주:불타암)



관음기도 영험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천주산 천주사** 한글주소: 천주사

참 생명의 모습을 나툴 수 있는 영원(永遠)의 길지(吉地)!

"하늘을 바치는 산" 이라고 하는 천주산(天柱山),
천주봉(天柱峰) 아래 천주사(天柱寺)!




천주산(天柱山)은 '하늘을 받치는 산' 또는 '하늘을 여는 산'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바라보면 그냥 오르고 싶어집니다.
이는 무한히 전진하고 발전하고자 하는 우리의 이상과 기상이 활달 자재한 대광명의 세계에 이르고자함입니다. 천주산 천주사는 중생의 막힌 삶의 모든 부분을 부처님의 지혜와 관음보살의 대자비로서 밝고 훤하게 열어 줄 것입니다.

■ 천주사에 전화 주시면 찾아오시는길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소요시간 : 서울 2시간 30분, 대구 1시간 30분, 부산 4시간)
성지순례 사찰
홈페이지 www.chunjusa.org 에 들어오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 기도문의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경북 문경시 동로면 간송리 산 257-1번지

경북 문경에 위치한 가족 납골탑 묘원 **천주산 천주사 관음영탑 공원**



더 이상 명당(明堂)을 찾거나 묘지(墓地)문제로 근심 걱정하는 일 없이 자손만대(子孫萬代)로 이어지는 효(孝)의 실천(實踐)을 이룩하기위한 천주산(天柱山), 영산(靈山), 명지(明地)의 관음영탑묘원(觀音靈塔墓園)

우주일심(宇宙一心)이요, 천지일심(天地一心)이며, 세계일심(世界一心)이니, 자타(自他)가 곧 한마음이라 영(靈)과 육(肉)이 또한 둘이 아니니 생사가 본래 둘이 아닌(生死佛二)까닭입니다.

영탑은 불교스님들의 장례법으로 천주산 천주사에서 영탑을 조성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있습니다.

◈ 분양 안내 : TEL 054)553-0336 / FAX 054)553-0784


태중(낙태,유산)아기
지장보살관욕대

태(胎)중 아기(낙태 ·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영가천도전문도량 약천사 **약천사 양력 10월 20일(토요일)**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요,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태중아기를 위해 직접 기도하며 관욕의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일 시 : 2007년 10월 20일 토요일 오전11시 (음, 9월 10일)
- 장 소 :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 양력 10월 20일 (음, 9월 10일)
- 3재 : 양력 11월 3일(음, 9월 24일)
- 기도회향(막재) : 양력 12월 1일 (음, 10월 22일)
- 기도 동참비 :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당일 천도재는 별도상담)
  ※ 위패비, 아기옷 (무료)
- 준 비 물 :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7재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욕을 합니다. (베네적삼, 양말, 신발, 장난감 등 준비)
- 입금계좌 :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 이순수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2) 49재를 올려서 천도해 주어야 합니다.
3) 지장경을 독송해 주어야 합니다.
4) 지장보살상을 사불 사는게 좋습니다.
5) 부처님을 조성해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밝힙니다.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동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 011-9002-8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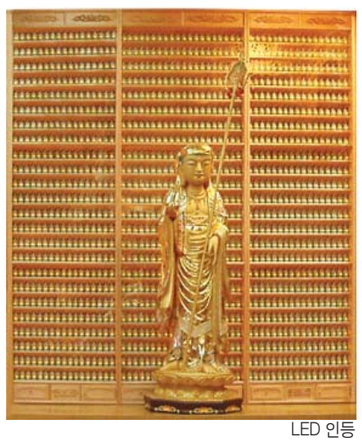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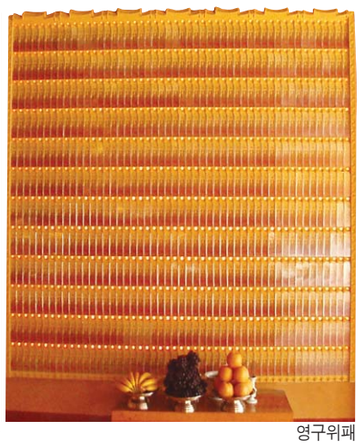
전선(케이블) -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LED 인등

영구위패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아름다운 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팔각봉축접등

※ 사찰명 인쇄 시 30일 전에 전화신청 해 주십시오.


부산 해운대 법륜사 법당 남양주 영도암 인등 군산상주사 위패 청사초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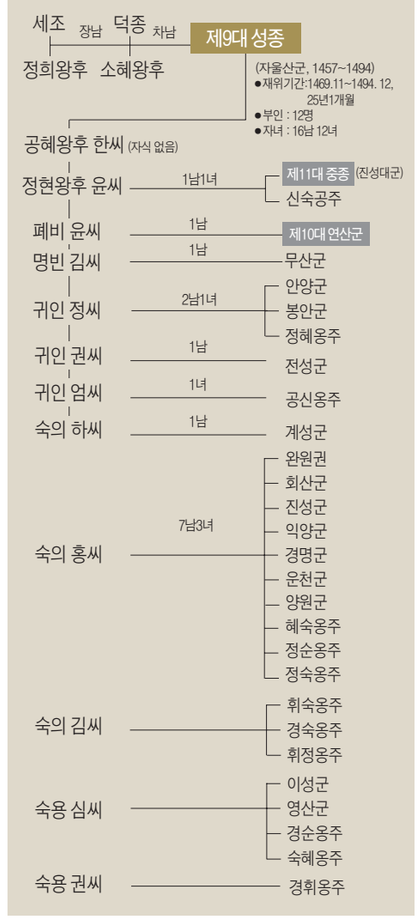
모든 것을 이룬 왕, 그러나 '몸 잃은 넋' 어디에…

조선왕릉에서 불교를 읽다 ⑲

9대 성종 - 선릉

성종 1457-1494(38세)
재위 25년 1개월 1469.11(13세)-1494.12(38세)

제9대 성종 가계도




강남의 노른자 땅위에 위치한 성종의 선릉 전경.


선릉의 무인석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 강남의 노른자위에 성종이 묻혀 있다. 주변 땅값이 평당 1억을 넘나든다. 뚝섬 나루를 건너 봉은사 지나 멀찍이 능을 조성했는데 세상이 변해 돈과 환락이 몰린 곳이 되었다. 성종은 부인이 12명이다. 조선 역대 왕 중 랭킹 1위다. 공동 1위 : 11대 중종도 12명, 그들은 부자지간이다. 조선조 최대 스캔들을 일으킨 어우동도 성종 때 사람이다. 어우동 야사에는 성종이 어우동과 함께 유흥을 즐겼다는 내용이 있다. 성종이 얼마나 야행을 즐겼는지 짐작케 한다.

성종은 20여년에 걸쳐 완성한 조선 최고의 법전 <경국대전>을 비롯해 <동국여지승람> <동문선> <동국통감> <악학궤범> 등을 완성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왕이라 해서 성종(成宗)이란 묘호가 붙었다.

그러나 공덕 쌓는 일에는 소홀했다. 업보라 단정 짓기는 송구하지만, 폐비 윤씨 사건, 연산군의 폭정, 중종반정 등은 성종이 뿌린 씨앗의 결과물이다. 연산군과 중종은 성종의 친아들이다. 성종의 능은 현재 유해가 없는 빈 무덤이다. 임진왜란 당시 왜적들이 무덤을 파헤쳐 도굴했다. 정자각은 불태웠다. 왕의 시신은 행방을 알 길 없다. 임란이 끝나자 선조는 성종의 유해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끝내 찾지 못했다. 전란 중 몽매한 왜군들이 아무렇게나 흩뿌려버렸을 것이다. 선조는 새로 관을 짜서 부장품으로 넣었던 옷을 태운 재를 담아 다시 안장했다. 성종의 무덤 속에는 수의로 넣었던 옷을 태운 재만 관에 들어 있다. 몸을 잃은 넋은 어디를 떠돌고 있을까.

세종조 후반 누그러지기 시작한 배불의 기세는 세조대에 이르러 완전히 숭불호법의 정책으로 바뀌어 불교가 다시 옛 고려시대로 돌아갈 것 같은 분위기가 풍겼다. 그러나 성종이 즉위하자 다시 척불의 시대가 된다. 성종 2년(1471) 6월에 도성 안에 있는 염불소를 폐지한다. 더불어 무당들을 성 밖으로 내쫓아버린다. 12월에는 간경도감을 폐쇄시킨다. 간경도감은 세조 7년에 설치된 이래 불전의 국역사업을 하던 기관인데 성종 때 문을 닫는다.

승려 강제 환속 등 척불사상 격렬
연산군 폭정·중종반정 등 '업보'
임진왜란 때 도굴로 유해 사라져

왕 4년 8월에는 양반가 부녀자들이 머리 깎고 출가하는 것을 금한다. 6년에는 도성 안팎에 있는 비구니 사찰 23곳을 헐어버린다. 8년 12월, 국왕의 탄신일에 사찰에서 베풀던 축수재를 못하게 한다. 이듬해 4월에는 당시 존경받는 원로 문신 김수온이 독실한 불자라 해서 성균관 출입을 금지시킨다.

성종 23년 2월에 도첩법을 정지시킨다. 도첩이 없는 승려는 부역과 군역을 해야 했다. 새로이 출가하는 것을 금하고 기존 승려를 강제로 환속시키기까지 했다. 남은 사찰이 텅텅 비게 될 지경이었다.

이를 보다 못해 두 왕대비, 인수대비와 인혜대비가 나선다. 승려 되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전교를 내려 금승의 법은 한 때 중지되고 불교 억압이 조금 주춤했다. 그러나 왕과 유생들의 척불사상은 여전히 격렬했다. 인수대비가 불상을 만들어 정업원(비구니 절)에 보냈는데 무례한 젊은 유생들이 이것을 도중에 빼앗아 불태워버렸다. 대비가 크게 노했으나 왕은 그들을 벌주지 않았다. 일반 백성이 상을 당해 절에서 재 올리는 것을 금했다. 불사에 공양물 바치는 것을 금하고 새로 절을 짓지 못하게 했다. 승려의 수가 줄어 절들이 텅텅 비어갔다. 1489년 향시에서 '불교를 믿어 재앙을 다스려야 한다'는 내용의 답안을 작성한 유생을 귀양 보내기까지 했다.

불교의 암흑기는 이후에도 계속된다. 패륜아 연산군 때 절정을 이룬다. 연산은 성종이 얻은 첫아들이다. 공덕 쌓는 일에 소홀하면 어떤 소용돌이가 이는지 생생하고 섬뜩하게 보여준 이가 연산군이다.

두 번째 부인 윤씨는, 왕이 규방 출입이 잦고 자신을 멀리한다고 왕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어버렸다. 이 일로 성종과 모후 인수대비의 격분을 사서 폐비가 되고 사사되고 만다. 당사자를 죽일 수는 있었지만 얼굴에 그어진 손톱자국은 역사가 되었다. 왜병의 만행으로 시신마저 사라진 성종, 모든 것을 다 이루었는가, 다 잃었는가? 그의 넋이 떠도는 선릉 일대의 밤은 오늘도 휘황찬란하다. 글=이우상(소설가/asdfsang@hanmail.net)
사진 =최진연(사진작가)

선릉은…

성종과 계비 정현왕후 윤씨의 능이다. 성종은 추존왕 덕종과 소혜왕후의 아들로 태어나 생후 두 달 만에 부친을 여의었다. 세조의 뒤를 이은 예종이 즉위 1년 만에 승하하자 정희왕후의 명으로 전격적으로 왕위에 올랐다. 태조 이후 닦아온 모든 체제와 기반을 완성시켜 조선 초기 문화를 꽃피웠다. 정현왕후는 연산군의 어머니 윤씨가 폐출되자 이듬해 1480년 왕비로 책봉되었다. 정현왕후의 아들 진성대군(중종)은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선릉은 유난히 많은 변고를 겪었다. 임진왜란 때 왕릉이 파헤쳐지고 재궁이 불태워지는 수모를 겪었다. 인조3년(1625) 11월 15일에는 홍살문, 정자각에 불이나 완전히 타버렸다. 능참봉과 능수호군은 하옥되었다. 그 다음 해 2월 4일, 2월 15일 연이어 능상에 불이 났다. 왕과 왕후의 능이 동원이강식으로 배치되었다. 세조의 유언에 따라 석실을 쓰지 않았다. 제반 상설은 국조오례의 양식에 준하였다.

선정릉은…

9대 성종과 계비 정현왕후 윤씨의 능인 선릉과 그들의 아들 11대 중종의 능 정릉을 합쳐 선정릉이라 한다. 사적 199호. 서울 강남구 삼성동 131번지. 면적 7만2778평.

감사의 말씀

삼보님께 지심 귀의합니다.

불기 2551(2007)년 9월 11일 입적하신 금해당 청봉대종사의 다비식을 9월 17일 종단장으로 보국불교염불종 총본산 총무원 원광사에서 봉행하였습니다.
먼길에 직접 찾아와 주신 **원로대덕 큰스님**들과 사부대중께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저희들의 무능과 잘못으로 **청봉 큰스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한점을 깊이 참회하며, 추모의 뜻을 함께해주신 여러분들께 일일이 찾아 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 올림을 널리 혜량하여 주시길 바라옵니다.

錦海堂 晴峰大宗師 49재 안내

● 일 시 : **불기 2551(2007)년 10월 29일 월요일 10시**
● 장 소 : 보국불교 염불종 총본산 총무원 원광사
● 문 의 : 대전시 동구 판암동 229-10 원광사 042)282-6936

보국불교 염불종 총무원장 원광 합장

탈 종 공 고

사찰명	법 명	속 명	주 소
동은사	선 진	김육봉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361번지
관음사	체 관	임태전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387-13번지
정각사	법 륜	최기남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고막리 산 83번지
법혜사	법 원	장운경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533-5번지
성주사	경 산	손수찬	경북 청도군 운문면 지촌리 745번지
신흥암	보 선	이성환	충남 보령시 청라면 장산리 115번지
선광사	도 봉	황민국	강원도 강릉시 지변동 232-1번지
용화사	도 각	박창수	서울시 강서구 화곡4동 839-4번지 3층
장척사	법 민	김수중	경북 경주시 산내면 일부리
금수사	도 연	박영인	경기도 안성시 석정동 21-2번지
미타사	법 인	김종갑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승두리 57번지
법혜사	혜 안	김영리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고지리 533-5번지
공덕암	풍 교	박성일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2395-1 2층
혜원사	혜 지	박은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3-409번지
동광암	혜 현	정순자	인천시 남동구 구월4동 1228-5 우성빌라 다동 301호
반야사	도 향	허진숙	인천시 남동구 만수 1동 961-33번지
지원암	삼매화	김연순	인천시 남동구 만수 3동 111-209번지

상기 17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0일

대한불교 원융종 총무원장 법하

불자생활정보 | 전면광고 | 17면

▷ 문의 : TEL 02)2004-8219, 732-1522 , FAX 02)737-0696 / e-mail: parkwonbum@yahoo.co.kr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영가 천도 전문 도량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전통불교 문화예술대학
문화재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부산)
금정사 대명 합장

역 학 개 인 지 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재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333-3258
011-591-5277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사주와불교교리-수양론강의
인과론,개운론,섭생론,
치유론,수양론,길흉론
3-6개월 과정.월20~50만원
내강010-3656-5687
기초가 있으신분만 강의합니다
단체및 개인출장지도
(스님 또는 포교원)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제사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정성껏집전하여
드립니다
<수시접수>
011-9837-8668
원명사 주지 심산스님합장

수양기도공부
●1인 1실
●침구 및 삼식 공양 제공
●구돌,온돌,황토방
●월 30만원(선착순)
055)883-2933
011-446-2933(청학사)

빙 의
병원에 가도 병명없이 아픈 분
신병 · 무병 · 알콜중독 ·
우울증 · 컴퓨터오락중독
www.jijangsw.com
054)383-8553
(부처골 지장선원)

수(數)수리 수인작법
◆동서양을 통해 변하지 않는 근본 (기본적)숫자를 통한 특유의 점술로그
◆숫자가 사람 또는 장소 사물에 대해 제공해 줄 수 있는 숨겨진 의미를 찾아서~ 운명해독의 비법전수
◆교재 : 수(數)수리 수인작법서 무료 증(시중에 절판된 책)
◆소량의 분량재고 선착순 판매
031)633-1517
010-9593-5537

범음 범패 불공의식 해드립니다
점안식, 49재, 천도재,
각종행사
천수바라, 사다라니다라,
승무작법
010-2570-3847

명리학, 육효, 수강생 모집
용 덕 사
(명리배우면서
절 살림 도우실
여자분 모집니다.
출/퇴근 가능)
051)506-4038

秘 法 전 수
뭇광고에 접해보면 생각과 다르지요?
- 좋은 인연 맺으소서 -
1. 삼흔칠백의 작용법(확실한 천도)
2. 약손이 되는 비법(氣)(즉석효험)
3. 도인침술법(정신병, 학업성적, 빙의)
4. 7日 도인 비결법(독소배출,작관력)
5. 체면학,레이키,기공,내공, 빙의,영상법 등 영궤한 강의
-교재에 의한 각1시간 강의 총 6시간(1시간체험)-
*스님께서 직강, 시원스럽습니다. *보시료 약간
- 조종파스님 누구나 배워보세요-
연락처010-3189-3525
경남 의령군 용덕면 해용사 -법경-

무료 보시합니다
천도재, 49재, 우울증,
신병, 무병등
대구 팔공산 미타암 주지 합장
010-8861-1785

공양주보살님
비구부전스님
모십니다
017-206-0113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세 이하)
숙식 가능하신 분
부산 엄궁동 화엄사
011-573-0824
011-881-9008

부전자리
원합니다
기도(부전)스님이
필요한 사찰은
전화 주십시요
054)433-6315
010-4520-6787

부처님께 귀의해서
출가하여 스님이 될
행자(女) 인연을
기다립니다
010-9199-7096

문화원장, 이사장 초빙
전통문화, 예술분야,
교육인증기관 운영중
재력과 덕망있는
불자 모십니다
011-9814-027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대구 하양 천년고찰
017-803-0202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일산 조계종 사찰
(40~50대)
011-1743-2211

선원 살림 책임지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대)
▷정릉 보덕선원
02)914-4235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493-1121

사주운세 전화상담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이나 찾아오세요
02)826-5067이 통화중 일때
02)574-3427로 걸어주세요
명리학 통달 [사주첩경 이석영 저]

강원도 산골에서
기도하며
공양주하실 보살님
모십니다
016-350-1193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월 보시금 100만원)
052)275-0829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시 금정구 보광정사)
051)524-8932
010-7574-1515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화주 보살님 및 처사님,
종무원을 구합니다
행자모집(사미계수료후
중앙승가대 입학가능)
011-324-5103

비구,비구니 부전스님
출가에 뜻이 있는
행자님 모십니다
(인천 도심속 산사)
032)435-047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천년고찰)
041)836-5066

이런 분 찾아오세요.
고질병으로 굿이나 영가천도해도 효과 없는 분
학업성적 부진, 가출, 아는 문제 잘 틀리는 학생,
부부간의 갈등, 혼사 지연, 부모자식간의 불화,
우울증, 알코올 중독, 사업 고민이 많으신 분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삼재 등이 있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 라면 ○표를 믿겠죠.
하지만 X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3호선 양재역 5번출구 100미터 직진 버스 정류장 옆 10초 운세 3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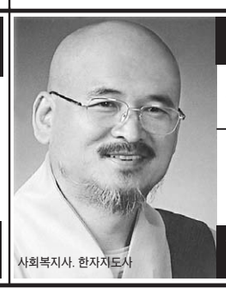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월 보시금 100만원)
033)732-7969

부전 기도스님
필요하신분
연락바랍니다
백일기도 후 천일기도 가능함
010-7257-3198

조계종 고려고찰 내원암에서 마음의 고통을 쉬고 업병도 치유할 수 있는 영험있는 곳에서 가족의 소원있는 분, 기도하면서 식구도 없는 사원에 조용히 있고 싶어 하는 40~50대 공양주 구함
(경북 내원암 지장보궁)
054)653-1180

사찰 행사 49재, 천도재, 불상점안, 산사음악회 (범음범패,바라,작법무,화청,전통무용)
영산회상 예술포교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일겸합장)
문의 051)557-1130/011-482-2091
홈페이지 : www.천도재.kr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행자(예비스님) 모집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연령 : 50세이하 ●산중 감포군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시스템
●행자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 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2007년 1학년 경전반 편입생 모집 - 반야심경, 금강경
●회주 우학스님 특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무법정사
● 주 지 : 무법(임재곤)
● 주 소 : 대구시 동구 도학동 189-1번지

상기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10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삼회불교 총무원장 법하

육임 수강생 모집

육임 기초에서 백법 까지 실전에
임할수 있도록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사람에 일을 판단하는대는
옛부터 육임이 제일이라 했습니다.
720 국수에 담긴 비술만 터득하면
어떠한 점사도 가능한것이
육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함께
학문을 배우실분들을 원합니다.
◆ 직강수강료 : 100만원


처음할땀 = 문서 시험은 후에는 길로된다 가정을 잘다스리고 화합하세요 그래도 가정이 제일입니다 나를 구해주고 의지할 곳은 가정입니다

육임 동영상 CD판매 판매가 100만원
거리가 멀어서 직강을 들을수 없는 분들은 동영상 CD와 교제로 육임을 공부하실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잘하실 수 없어도 ID와 비밀번호만 치시면 고화질의 동영상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공부는 직강과 동일 합니다.

720 국수 CD 판매 판매가 100만원
육임에 진수인 "초사(왜 왔는가?, 하고자 하는 일은 될까 안될까?)"를 그날에 시간만으로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수 있는 육임만에 비법을 그날 시간만 택하여 국수만 찾으면 모든 점사가 명확히 수록된 CD입니다.
육임에 용어와 시간간택법, 보는 요령등을 CD에 담아 같이 보내드리며 직강이 가능한 분들은 4회 수강권을 같이드립니다.

※직강신청+육임동영상+720국수CD 구매시 **특별가(200만원)** 적용

공 념 학 당
■ 상담문의 : 02)793-7333 ■ 홈페이지 : www.saju79.com
■ 사 무 실 :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45호
■ 계좌번호 : 국민은행 026-21-0792-969 (예금주 : 박옥자)

불교법인 대표자를 모 십 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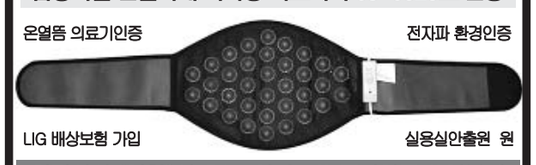
본 회는 **원효성사**의 사상을
오늘에 재현하고자
30년전에 탄생한 불교법인입니다.
큰 뜻을 가진 덕망있는 스님이나
법사님,종교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전하고 싶은분은
아래 사항을 보시고 연락 바랍니다.

※ 내방시 이력서 지참 바랍니다.

원효사, 사단법인 통불교보살회
대구시 서구 내당 4동 248-6
전화 053-565-3494(삼원신협)
야간 011-529-3494

금강약돌 온열복대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금강약돌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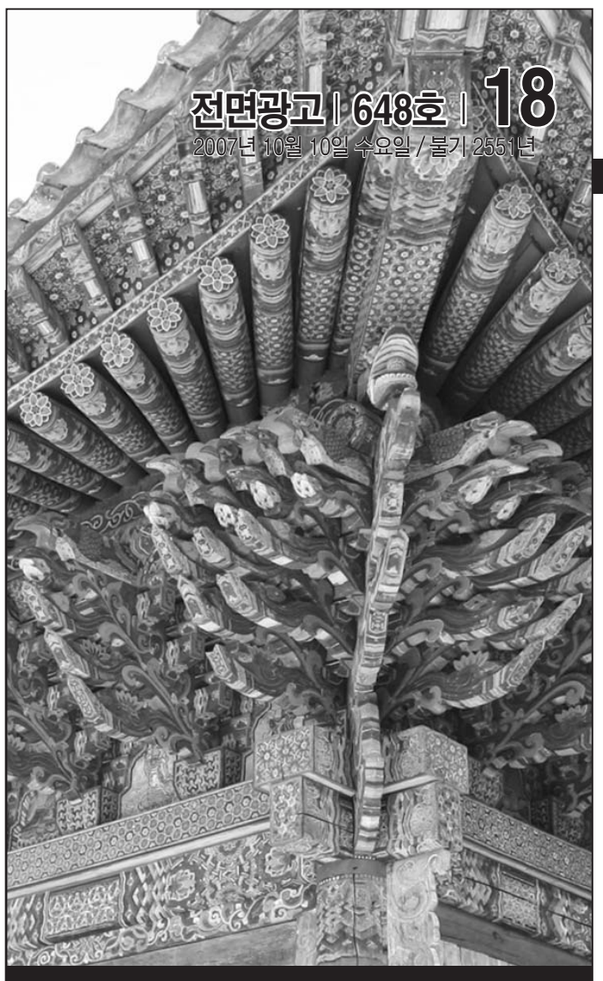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금강약돌 온열복대를 사용하시면 80℃이상의 열과 생육광선이 발산되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허리디스크, 고관절, 어깨 결림등을 자연적 치유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쑥뜸보다 열이 높고 사용이 편리하며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신체 깊은 곳까지 도달하며 70℃~80℃ 이상의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원적외선의 원리로 뜨겁거나 화상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킵시다.
오늘날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류는 건강을 위협받고 있으며 현대의학으로는 치유할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많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북한 3대 명산품인 세계희귀의 금강약돌의 효능
건강을 나누는 (주)금강닥터에서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명산품으로 세계희귀의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육각거북건강매트, 오십견심폐조끼, 헬스방석, 요추.경추베개, 족온기, 팔찌.목걸이, 베개볼 등을** 개발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판매되어 사용하신 분들에게 좋은 반응과 기적 같은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주)금강의료기(02)723-0099 농협170-12-056037 정애영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 5cm 50.000원
규격 5× 7cm 70.000원
규격 5×10cm 10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5 / 02)732-1522 (直)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 ~ 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찰 및 토굴 안내

● 위치 : 인천 부평(80년생)
● 부지 : 95평, 건물(신축) 4층
3층 법당(30평)
2층 주지스님 방 및 집무실(30평)
● 요사채 (30평),산신각 (15평)
아파트 및 빌라촌
● 가액 : 3억8천

임법당 안내(30년생)
● 위치 : 부산 범일동
● 평수 : 120평(시유지)
● 건물 스라브 약30평(등기필)
● 법당 12평, 요사 방3칸
주방 및 욕실 최신시설
● 정남향 전망최고 뒷산 접
● 가액 : 9500만원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부산시내 및 양자 토굴 소액 7천~100억까지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남원
● 법당 : 99㎡(30평)
● 요사 : 165㎡(50평)
● 납골 : 200기 완공
● 부지 : 10,000㎡(3,000평)
● 가액 : 3억5천

● 위치 : 전남
● 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부지 : 500평
● 가액 : 6억
(교환:경남북,강원,경기)

● 위치 : 경남
● 법당 : 25평
● 요사 : 40평
● 부지 : 350평
● 가액 : 7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도심사찰 임대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2층 40평내 법당1, 큰방2, 스님서재방1
● 부처님 삼세불 4자3치, 후불목탱 순금조성 14자6치
신중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칠성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 완벽하고 깔끔한 사찰, 즉시입주
● 전세 6천만원, 월세가능, 주차확실
● 비구니스님도량으로 완벽함
● 주인 직거래, 답사하시어 의논바람
010-6411-2882

자비사 요양원 지상권 안내

● 법당 15평, 요사채 40평, 산신각4평, 7층석탑, 화장실2개, 자갈 주차장
● 밭600평, 각방 7개, 케이블 유선 TV 및 인터넷 2,000만원 들여서 새로 올 수리했음. 나무 + 기름보일러 찜질방 수준
● 특징 : 3개마을 대부분 박씨 문중 땅(문중에서 많은 도움줌)
● 일년 도지세 15만원 도시 큰 사찰과 연계된 부속 요양원으로 적당함
● 가액 : 6천 5백만원(적정시가 절충)

박씨문중 최고어른 전화번호 041)855-3885
주지(주인 : 010-2606-1299)
원하는 경우 사찰관리 및 기도해 드릴 수 있음(공주신원사 주차장 옆)

사찰(급) 안내

● 위치 : 전남 고흥군 동강면
● 땅 591평
● 법당 21평(조립식)
● 요사채 26평(조립식)
● 화장실 3개, 방3개
● 가액 : 1억 2천5백만원
061)832-2314
010-3635-1867

포교원 안내

● 위치 : 제주시 외도 1동
부영2단지
2천세대 대단지 앞
● 굿당으로 최적지
● 법당 15평, 요사완비
● 주차공간 300평 및
채소밭으로 활용가능
시설비품 집세 합 1300만원
017-393-1127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경기도 경계
(원 도봉산)
● 시위지 약 300평
(신축 건물(3년)
● 임법당, 건평 45평, 별채 18평
● 경내에 칠층석탑,
관음석불 있음. 심야보일러
● 1호선 망월사 전철역에서
5분거리. 지하수 및 수도시설
● 공기청정, 조용하고 산세수려함
● 가액 : 3억 2천만원
016-337-951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순천
● 대지 : 250평
● 대웅전 25평
● 요사채 : 20평
● 화장실 3칸외 시설완비
● 가액 : 2억 5천만원
● 꼭 하실분 전화요망
010-9333-8472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울산 북구
● 평수 : 57평,법당 20평
● 방4개, 공양간, 창고
● 보증금 2천 5백만원
월60만원. 시설비 3천만원
● 특징 : 신흥 주거지역
대단위아파트인접
즉시법회가능
017-517-0097

사 찰 안 내

● 위치 : 단양
● 대지 : 270평
● 요사채 : 50평
● 법당 : 30평
● 가액 : 1억 6백만원
010-9959-1026

암 자 안 내

● 위치 : 마산
● 가액 : 4200만원
● 법사님,보살님,비구니,
노스님적합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 몸만오시면됨
010-9235-9318

인천지역 포교원 안내

● 건물 37평(계단, 화장실,
주차공간 제한평수)
● 3층 신건물, 2층 전체사용
● 삼존불, 신중탱화, 칠성탱화,
산신탱화(佛), 영가단
● 사무실, 접견실 겸 공양실,
주방, 에어컨 2대 완비
● 보증금 2천만원, 월60만원,
시설비 답사 후 절충
주차시설완비
010-6261-6117
진공스님

포 교 당 안 내
(임대도 가능)

● 서울 강북구 우이동
● 평수 : 30평(3층)
● 보증금 5백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 즉시 법회 가능
02)902-4070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위치 최적)
● 대지 : 약150평
● 법당, 요사채
● 스님건강상으로 급양도고자함
●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0-7156-5785

명산토굴안내

● 위치 : 경북 북부지역
● 대지 90평, 밭 590평
● 진입로 포장, 심야보일러
농어촌 전기, 조립주택 28평
미타삼존불탱화, 방4, 입식부엌
● 구획 외 지역으로 건축이 자유롭다
● 1년내내 기도객이 끊어지지
않는 명산토굴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7-407-0021

사찰 및 명상센터안내

● 서울 성북동 및 홍천인근
● 성북동 (전세: 5천5백만원)
홍천(사찰 양도 또는 임대가능)
● 공양주 및 처사구함
016-497-3024
(본인직접)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중심지
● 요사채, 법당 갖춰짐(슬라브)
● 가액 : 2억
● 국유지 5년 분할조건 계약하여
불하받는중에 2년 상환함(78.8평)
● 25년 된 사찰(명당터)
018-554-619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천안
● 평수 : 1,200평
● 법당 : 전통사찰형식(내9포,
외5포), 경내석굴있음
● 요사 판넬건물3동
● 국도2분거리, 산속
고속도로 5분거리
● 답사 후 가격결정
● 산세 좋고, 교통편리함
● 가액 : 9억 5천만원
011-568-441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능곡 초당동
● 평수 : 40평
● 방4, 부엌1, 임법당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500만원
019-501-3590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
● 대지 : 350평, 법당 20평
● 요사채, 삼성각, 공양실 2동
● 전세 3,000만원(양도가능)
018-603-1456

포 교 당 안 내

신축불사 관계로 급 안내함
● 위치 : 동해시 단독주택 건물
● 법당 외 방 3개, 주방 및 화장실
옥상, 텃밭, 주차시설 완비
● 가액 : 보증금 2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없음 (무보시)
● 교통편리(고속버스터미널 역전근교)
● 역학스님, 법사님, 보살님 최고위치
010-8726-1357(법사)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군
초정약수터 10분거리
● 부지 670평, 법당 20평
● 요사채 35평, 20평(각1동)
● 충북문화재 21호 석불있음
● 텃밭에 매실 50그루
● 절앞에 버스다님
조용한 기도도량
● 가액 : 2억 4천
017-267-44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
(대구, 마산, 창원 인접)
● 평수 : 1,350여평
법당, 용왕당(연못있음)
칠성각, 요사채,
총 100평정도
● 가액 : 3억 5천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0-2592-1523

촌집(토굴)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통도사 부근)
● 대지 92평, ● 건평 25평
● 가액 : 6천5백만원
(밭 14평 무상으로 드림)
011-9477-0375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의성군
● 법당, 황토, 요사채, 텃밭
● 넓은정원 총 3700평
● 각종유실수, 계곡옆, 옆산
● 임대보증금 250만원,
1년300만원, 양도가능
017-813-9126

사 찰 안 내

● 위치 : 춘천근교,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남(서울 50분)
● 부지: 약 2000평, 법당2개,
방9개, 교육관(큰방1)
● 특징: 기도성취 대불
<노천법당, 시설 최우수>
진신사리봉안(탑), 전망이
좋으며 경관수려
● 가액: 12억
010-9757-5608
033)257-71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봉화 소천면
● 대지 150평,국유지600평
건물1동 있음
● 요사채(슬라브) 45평
● 산신, 후불, 칠성, 신장,
삼존불 모셔져 있음
● 집기류 일체
● 가액: 1억 5천만원
※필요하신분만 전화요망
011-556-061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전 태평동 시장입구
아파트 밀집지역
● 평수 : 130㎡(40평)(3층)
● 삼존불,후불,신중,칠성,
산신탱화,미륵불,동불(5자)
방2,주방,실내화장실,
에어컨 및 모든시설완비
● 보증금 2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천만원
042)525-5355
018-456-6339

조용한 암자안내

● 위치 : 충북 진천군 초평면(대바위)
● 종중산 약 1000평 중 400평 등기필
● 법당 1채, 요사채 2채, 방7개,
창고 1채
● 앞쪽으로 큰 하천
● 전망좋은 청룡백호, 천하명당
● 영가천도 영험 기도도량
● 가액 : 3500만원(집기일체 양도)
011-480-1248
043)532-1268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문경새재부근
● 2천평 중 종교부지 800평
(대형사찰)
대웅전 외 부속건물 7채(목조)
● 계곡 연못 있으며, 전면이 확 트임
● 가액 : 7억원 (전세가능)
010-6399-5311

명당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논산시
● 가액 : 5억 7천만원
011-884-7767
(주인직접)

도심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시내 소재
(전철역 3분거리)
교통편리, 주변환경 조용함
● 대지 : 44평(단독)
● 2층 법당, 지하1층
● 가액 : 6억8천만원(시설비 포함)
● 꼭 필요한분만 연락바랍니다
016-565-2527
(오후에 상담요망)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전 시민회관 근처
● 평수 : 90평(7층 건물 7층
전체사용, 옥상 사용가능)
● 법당 , 주방, 접견실, 요사채
삼존불, 108후불, 신중탱화,
감로탱화
● 에어컨 3개 등 인테리어
시설 최상급
● 보증금 500만원, 월57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2284-073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 3층 건물 3층
● 법당 약10평
(옥탑방 사용가능)
● 보증금 700만원,
월33만원, 시설비 8천만원
010-4830-3082

도심지 포교당 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대로변
2층(4층건물)
● 삼존불, 소불 별도봉안
법당 30평, 방, 주방 등
총 46평
● 주민밀집 · 시장, 대학교 인접
● 보증금 5백만원, 월45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6208-2271
053)629-6227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
● 대지 : 120평
● 시골 흙집(황토)
● 건평 28평(정남향)
● 가구, 전자제품일체
석가모니 부처님
● 진입로까지 포장완료
몸만오시면 됨
● 가액 : 3천 8백만원
010-3161-1613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 정안면
(정안IC에서 10분거리)
● 100년 사찰 국선사
● 법당, 칠성각, 요사채, 창고,
주차장, 텃밭 200평
● 밤나무산 약10정보
● 전세 1500만원, 시설비 500만원
시설 일체 완비
● 장기간 계실 분 원합니다
019-268-4328
010-2560-3690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랍니다

사 찰 중 개

● 위치 : 서울
● 부지 : 330평
● 법당 : 23평 목조
● 요사 : 60평
● 공시가대로 15억

● 위치 : 서울
● 부지 : 2천평
● 법당 : 25평 목조
● 요사 : 90평
● 가액 : 20억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최고 도량 양도

● 지리산동부능선700미터 웅장한 일자혈 전망
● 계곡소나무기암의 임야15000평 대지1000여평
● 현대식요사채3동 통유리 벽난로 황토선방
무문관수행위한 4개독립선실 전기도로 완비
● 양도가는 방문후 결정
연락처 010-4650-5730
(정진 중이니 필요한 분만 연락바람)

사찰 · 사찰터 전문안내

(대구 경북권)
석불 · 석탑 · 석등 ·
석조각품 · 석물공사
(중국 직수입, 제작공급)
● 사찰법률상담, 재테크 전문상담
011-822-8000

사 찰 안 내

천하절경 명당터 천연계곡접
1. 위치 : 강원북부 영서지방, 서울에서 1시간 30분소요
● 1만여평 부지, 전각10여동, 30억 이상의 가치
● 사찰연혁 3백여년 ● 가액 : 17억원
010-6304-5998
2. 위치 : 춘천시
● 대지 200여평, 조립식 임법당 30평 외
부속건물 10여평 ● 가액 : 1억5천만원
010-6739-6426

사 찰 전 세

● 위치 : 진주시내 10분 거리
● 건물 5동
● 법당 25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6평, 사무실 6평
● 심야보일러, 기름보일러, 전기판넬
● 들어오는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 1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있습니다
010-9353-3466

청정계곡 경치수려

실버타운 요양원 최적지
● 위치 : 강원도 횡성
● 대웅전 30평, 요사채 140평, 대지 600평
● 관리지역 2150평, 국유지(하천) 1만평
● 가액 30억원
033)345-5597
011-771-5597

포 교 당 안 내

대구 경북 도청옆 포교의 중심지
● 대도로옆, 신축건물 90평 A/V有
● 아미타 삼존불, 신중, 삼성 탱화
사천왕, 500인등 있음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 최신식시설, 냉난방완비, 무선앰프
● 보증금 4000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모든 시설 완비
(전세로 전용가능)
연락처 010-9598-9117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 (대구30분거리)
● 대지 : 125평
● 남향 황토집 40평
● 심여전기,방3,거실,주방,텃밭 등
● 집 뒤는 야산중림, 청정지역
● 가액 : 8천 5백만원
054)933-3412

가을바람 솔솔~ 운동하기 '딱' 이네



☑ 가을철 운동 이렇게 하세요

때 늦은 무더위와 가을비도 그치고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었다.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이맘때면 운동을 시작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러나 가을철 운동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상해를 입거나 자칫 목숨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법을 알아본다.

#1. 준비· 정리운동은 필수

여름철 체력이 저하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갑작스레 무리한 운동을 하면 상해를 입기 쉽다. 또한 기온이 낮은 아침저녁에는 준비운동으로 근육을 충분히 풀어준 후 운동을 해야 근골격계에 상해를 입지 않는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환자의 경우 기온이 낮은 아침에 운동을 할 경우 반드시 준비운동이 필요하다.

준비운동은 10~2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해 근육과 힘줄 등을 서서히 늘려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 준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손목, 발목 등 몸의 관절을 충분히 풀어주고 몸을 늘인 상태에서 10~15초 정도 유지하면 효과가 좋다.

정리운동은 운동 중에 변화된 맥박수와 혈압 등을 보통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기능을 한다. 가벼운 걷기나 맨손체조, 스트레칭 등을 섞어서 천천히 마무리한다.

#2. 내 몸에 맞는 운동 하기

여름 내내 운동이라곤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마라톤에 도전하거나, 무리하게 자전거나 인라인 스케이트를 즐기다간 골절로 고생하기 쉽다.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적당한 운동을 선택해 욕심내지 않고 즐기는 것이 현명한 운동법.

걷기는 관절에 심한 부담을 주지 않으므로 노약자나 고혈압 · 심장병 환자, 비만인 등에 적합하다. 걸을 때는 발이 꽉 끼지 않는 운동화를 신고 허리를 곧게 편 후 시선을 앞을 향하도록 한다. 보폭을 너무 크게 잡으면 쉽게 지치므로 평소 걷는 걸음보다 약간 빠른 정도가 적합하다.

달리기는 가장 손쉽게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 하지만 관절염이나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걷기부터 시작해 천천히 속도를 높여 가는 것이 좋다. 초보자는 2~3km를 20분 정도에 달리는 속도가 적합하고 2~3주마다 5분씩 달리는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애호가들이 늘어난 마라톤은 돌연사의 위험이 높으므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등 심장 계통에 질환이 있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고, 평소 건강을 자신하는 사람이라도 전문가의 지도로 단계별 트레이닝을 거친 후 도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전거 타기는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심폐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이다. 그러나 다리에 국부적인 피로가 쌓이므로 적절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사고 시 중상을 예방하기 위해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자전거는 다리와 팔의 길이, 어깨의 넓이 등에 맞는 것을 고르고, 급격한 오르막이나 내리막에서는 무리하지 말고 자전거에서 내려서 밀고 가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풍이 절정을 맞는 10월 중순부터 11월 초에는 산행을 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난다. 중장년층이 갑자기 산행을 할 경우 심장과 혈관에 무리가 올 수 있으므로 산행코스를 무리하지 않게 정하고 산행 전 스트레칭과 맨손체조 등으로 준비운동을 한다. 가을 산은 일교차가 심하므로 얇은 옷을 여러 개 겹쳐 입는 것이 체온유지에 효과적이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사탕이나 초콜릿을 챙겨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혈압이 높거나 순환기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가슴이 답답하고 두통, 구역질 증상이 있을 경우 그 자리에서 쉬도록 한다. 이 밖에도 수영이나 인라인 스케이트 등은 사전 준비운동과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알맞은 운동이다.

#3. 건강상태 미리 체크해야

고혈압이나 당뇨병, 관절염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면 운동을 하기 전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몸에 맞는 운동 강도와 빈도, 시간 등 운동 처방을 먼저 받는 것이 좋다.

여성은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으므로 줄넘기나 농구 등 두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평소 체력관리에 소홀했던 직장인이라면 마라톤 같은 고강도 운동보다는 산책, 걷기 등의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도록 한다.

운동 강도는 자신의 최대 맥박수의 60~85%가 되는 것이 적당하다. 운동시간은 1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 20분 이상 지속하는 것이 좋다. 운동시간은 대부분 아침과 저녁에 몰려 있지만,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환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새벽은 피하는 것이 좋다.

가을철은 일교차가 큰 만큼 땀 흡수가 잘 되고 열 손실이 적은 긴 소매 옷과 긴 바지가 적합하다. 반팔 티셔츠를 입을 경우 긴 소매 겉옷을 항상 준비하고 다녀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는다. 운동 후에는 젖은 옷을 빨리 갈아입어 열 손실을 막아야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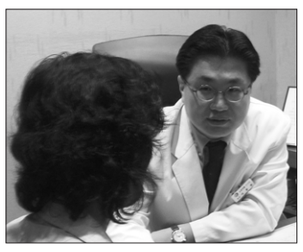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건강 칼럼 column

5. 여성 갱년기 질환

갱년기는 특별한 질병이 아니라 노화로 인한 변화의 과정이다. 노화로 인해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되어 기존의 호르몬 사이클에서 유지하고 있던 기능이 붕괴되면서 기혈부족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갱년기는 보통 폐경 전 5~10년 사이를 말한다. 폐경이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두 가지 여성호르몬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아 월경이 6개월 이상 없는 상태로 대부분 50~55세 무렵에 폐경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앞서 5~10년간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는 40대 중반쯤에 갱년기가 시작된다.



초기엔 안면홍조·가슴 두근거림 증세
심장병 등 위험 증가로 건강관리 필수

"툭하면 얼굴이 달아올라 심각한 병에 걸린 것 같다"며 한의원에 내원 했던 주부나 "가족들에게 짜증내는 일이 많아졌고, 늘 불안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난다"는 주부 모두 갱년기 증상을 앓고 있는 것이다.

가장 흔히 나타나는 초기 증상은 폐경기 여성의 70~80%가 경험한다는 안면 홍조증상이다. 이는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하여 피부 모세혈관의 불규칙적인 확장으로, 시시때때로 얼굴, 목, 가슴 부위에 갑자기 뜨거운 기운을 느끼고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는 증상이다. 또한 가슴이 두근거리는 심계항진증, 머리나 목에 찌르는 듯한 느낌과 혈관이 뛰는 것을 느끼는 증상, 두통과 오심(구역질), 불안증 및 안절부절 하는 증상이 동반되기도 한다.

에스트로겐의 감소는 피부와 상피세포에도 영향을 미친다.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감소하면 질과 요도계의 상피세포가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탄력성을 잃는다. 그리고 요도 상피세포가 얇아지면 방광의 조절력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자신도 모르게 오줌을 찔끔 흘리기도 한다.

또한 평소와 달리 집중력이 저하되고, 쉽게 흥분하며, 감정이 수시로 변하기도 하고, 고독감, 불안, 두통, 불면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막상 폐경이 되고 나면 이 같은 극심한 감정의 변화는 다시 정상을 찾게 되고 안면 홍조 같은 신체증상도 훨씬 완화되지만, 에스트로겐의 수치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 심장병이나 뇌졸중 등의 위험도 폐경전보다 2~3배 높아지게 되므로 평경 후 건강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한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갱년기 증상들을 노화로 인한 자연스런 증상으로 보고 전신기능저하에 부족한 신체에 대한 보충을 기본으로 부작용에 대한 걱정 없이 증상개선이 될 수 있도록 처방한다.

탕약치료는 소모되고 고갈된 기혈을 보충해주는 한약처방에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들을 고려한 한약을 첨가하여 갱년기를 치료하는 것이 기본인데, 자주 애용되는 기본처방으로는 온담탕, 소요산, 귀비탕 등이 있다. 신기가 부족해 갱년기가 온 사람은 보음활혈을 시키는데 기본처방으로 지황탕이나 보음전 등이 있다.

침구치료로는 경락을 조절함으로써 전신의 자율신경실조를 조절하고 혈자극으로 국소적 조절 또는 호르몬 분비기능에 작용하게 하여 갱년기 질환을 치료한다.

또한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서 유산소 운동과 근육운동을 하고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식사를 잘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면 갱년기의 신체적, 정신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 여동현(소중한몸한의원 원장)
(WWW.1075LOVE.COM)

불자정보 | 648호

현대불교 buddhanews.com

범재골 금계포란형의 대 명당 대찰지지

사찰 · 기도원 · 요양원 최적지
(경남 의령읍 소재)

1. 전 500평, 임야 94,000평
2. 관리지역 70%, 농림지역 30%
3. 남해고속도로에서 접근용이(10분 소요)
4. 20번 79번 국도 접합지점, 교통편리 4통 5달 – 국도에서 조망권 탁월
5. 인구 많고 주위 사찰 없음
6. 전 500평, 15년생 대봉감 60주 임야 25,000평, 20년생 밤나무(관리양호), 연수익 3,000만원
7. 임도유, 의령 군민 체육공원 인접
8. 사찰허가 가
9. 약수터

1평당 4,000원

주인직접 011-550-0468
011-840-6740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사상구
● 법당 45평
● 4층 건물중 4층
● 시설 최상급
● 가액 : 보증금 8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3200만원
● 주차장 완비
051)313-5589

포교원안내
● 위치 : 지하철 4호선 길음역 4번출구 1분거리
● 평수 : 약 20평 (4층건물중 3층)
●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700만원
스님이 불사관계상 급 양도함
011-358-4252

전통문화예술 포교원
● 위치 : 서울 구로 8700세대 APT단지
● 5층 : 280평 중 법당, 공양간 외 170평 세미나실, 공예문화원 110평
● 6층 : 원장 집무실, 요사채 70평
● 가액 : 2억 이상
● 강서 제일의 포교도량
011-9814-0278

도심 암자 안내
● 마산시 완월동 산복도로변 주변 아파트 솔밭 독립가옥
● 삼존불(아미타, 지장, 관음) 1200만원
● 도심에 위치한 암자
010-5363-1027
055)352-3722

사 찰 안 내
● 위치 : 익산시
● 대지 151평
● 법당 20평(슬라브)
● 요사 30평(슬라브) 화장실 2개
● 가액 : 9천만원
011-811-5466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 4층 건물 4층 평수 : 60평
● 보증금 2천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300만원
011-600-3120

천하 명당 절터 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화개면
● 대지 370평, 건평 60평
● 가액 5억5천만원
010-2870-3330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 3층 건물에 3층, 재래식 큰 시장 안
● 50평, 1,000만원에 30만원 시설 A급 시설비는 답사후 결정
010-9809-5006

별장식 토굴안내
● 위치 : 춘천시 강촌근교
● 건물 : 한옥식 휴식공간
● 평수 : 130평(종중땅:도지는 묘지벌초로 대체)
● 내용 : 건축물 등기 완비 (방3, 입식부엌, 수세식 화장실, 정원)
● 가액 : 6천만원(절충가능)
*망중한을 즐길 수 있는 아란야
010-6312-863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 대지 1206㎡, 임야 130㎡, 요사 198㎡, 대웅전 109㎡, 삼성각 30㎡, 7층 석탑
● 실 사용평수 약 600평
● 정남향
● 산세수려, 진입로 포장
● 가액 : 보신 후 협의 요
011-9143-0098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속초 중앙동
● 4층 건물중 3층, 건평 60평
● 내부시설 황토로 되어있고 전통 좌욕 쑥뜸시설완비, 삼존불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환자 치료하시는 스님이나 역학을 보시는 스님이면 최고입지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0-9092-9972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역 부근
● 평수 : 약 45평
● 4층 건물중 3,4층(옥상사용)
● 삼존불, 지장보살, 신중단, 주불 약사불 100불, 영가단
● 보증금 500만원, 월5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스님이 불사관계상 급 양도함 역학보시는 분 환영
011-225-8344

포교당안내
● 위치 : 광명시 소하동 (서울 시흥대교 지나 바로 앞)
● 평수 70평 4층 건물중 4층, 시설완벽, 즉시법회가능, 스님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8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11-9564-666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영동
● 부지 200평
● 법당 20평, 요사 30평
● 벽돌집, 가구일체 양도
● 전망좋고 무속인도 가능
● 가액 : 1억5천만원 (절충가능)
011-491-2347

포교당안내
● 위치 : 전남 광주시 월산동
● 대지 52평
● 1, 2층 건물
● 가액 : 1억7천만원 (전세 7천만원)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7-602-9779

포교원안내
● 위치 : 원주시 평원동
● 평수 : 60평(2층)
● 내부 : 법당1, 큰방2, 작은방1, 주방1 마루(대형다용도실), 화장실2 삼존불(아미타, 관세음, 지장보살) 영단있음, 에어컨(냉난방겸용) 강변주차장 무료이용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스님 해외유학 관계로 급 양도함
011-9901-5000

사찰안내
● 위치 : 충남 부여
● 대지 180평, 건물(슬라브건물) 아래층47평, 2층47평,
● 심야전기 보일러 조립식 창고10평.
● 법당완벽 설비, 석축 조경 완벽 갖추었음, 자연우물
● 가액 : 1억 5천5백만원
016-294-0261
010-7355-7388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 남산동
● 평수 : 50평
● 도시가스사용, 시설완비(시설최상급)
● 보증금 2천만원, 월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 스님 개인사정으로 급안내
016-271-2545

세상 번뇌 자비로 감싸안는 '청정한 白衣'

불화 속의 명장면 (34)

전남 강진 무위사 벽화 '백의관음도' - 관세음보살도(하)



그림1 : 전남 강진 무위사 벽화 '백의관음도' 조선전기 1476년 토벽채색.



그림2 : 아미타 화불을 보관에 얹고 백의를 두른 관음.

제작연대 1476년 명기…후불벽화로는 드물게 원형 보존
관음이 두른 백의는 '청렴함' 상징 · '자비의 빛'으로 예찬
조선초기 세조는 백의관음 친견 후 모든 죄수 풀어 주기도

전라남도 강진 월출산 남쪽 기슭에 자리하고 있는 무위사에 도착하면, '無爲'라는 사찰 이름 탓인지, 모든 인위적인 행위를 그만두고 무위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진다. 작품을 조사해야 한다는 쫓기는 마음도, 이것저것 탐구해야한다는 호기심까지도 다 내려놓고 한가로이 발걸음 닿는 대로 거닐고 싶다. 무위사 주변에 내리는 따사롭고도 부드러운 햇살, 탁 트인 시야 속 드넓은 하늘에 떠도는 뭉게구름, 그 속에 있으면 흐르는 시간도 유유자적하다.

무위사에는 탱화의 시원적 형태를 볼 수 있는 귀중한 조선전기 벽화가 있다. 탱화는 보통 조각상의 불존 뒤에 걸리므로 후불탱화라 하는데, 이 후불탱화는 애초부터 걸개그림의 형태였다기보다 후불벽화에서 후불탱화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국내에 제 모습을 그대로 갖춘 채 남아 있는 후불벽화는 극히 드문데, 무위사 극락전의 후불벽의 벽화는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림의 품격 역시 탁월하여 우리나라 벽화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

극락전의 후불벽에는 1476(성종7)년의 제작연대가 명기된 벽화가 앞뒷면으로 그려져 있다. 앞면에는 아마타삼존도(아미타불과 관음보살 · 지장보살)가 그려져 있는데 기막히게 섬세한 고려불화의 기술적 역량에 조선적 창조적 변형이 더해진 역작이라 하겠다. 앞면을 돌아서면, 뒷면에는 붉은 연꽃잎을 타고 흰 옷자락을 펄펄 날리며 내려오는 수월관음을 만날 수 있다.(그림1) 앞 벽면의 아미타삼존도는 극세필의 섬려한 필치에 고급스런 영락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 전형적인 고려시대의 양식을 계승하고 있는 반면, 뒷벽면의 수월관음은 강약 리듬감 있는 굵은 윤곽선을 속도감 있게 쳐내려간 모양새가 자못 시원스럽다. 일명 오대당풍 또는 오도자 화풍에 비견되는 조선적 수월관음이, 앞의 고려풍을 계승한 삼존도와는 대조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관음의 높은 보관에는 그 중심에 아미타 화불을 모셨고(그림2), 흰 천의를 보관 꼭대기에서부터 발아래까지 두르고 있다. 그리고 노란빛 황토색을 바탕으로 보름달과 같은 커다란 신광을 둘렀다. 물론 관음보살은 그 신앙의 전파와 더불어 천수천안관음, 11면관음, 송자관음, 어람관음, 준제관음 등 참으로 다양하게 그 모습을 나타내지만, 그 중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빈번하게 그려진 관음은 수월관음이라 하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수월관음 모습은, 높은 보관에 아미타 화불을 얹고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백의(白衣)를 입고 있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관음이 화불로 정수리에 아미타불을 얹은 이유는, '관음의 자비를 매체로 번뇌 속 중생을 아미타불이 주재하는 극락으로 인도한다'라는 상징성을 지닌다고 지난 연재에서 다룬 바 있다.

관음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백색 천의(白衣)인데, 고려시대 수월관음의 대표적 특징으로 꼽히는 투명한 사라 역시 이 백의를 표현함에 있어 고려의 독창적인 해석이 발휘된 것이라 하겠다. 조선시대에는 수묵화풍의 영향으로 이 하얗고 얇았던 사라가 불투명한 백묘로, 그러니까 귀족스러운 풍모보다는 거사와 같은 청렴함이 강조되어 더욱 분명한 흰 옷으로 묘사된다. 관음보살(또는 관음대사)의 '백의의 청정한 상은 마치 달이 물에 비친 듯 하네(觀世音子 觀音大士 白衣淨相 如月映水)'라고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幻長老以墨畵觀音像求予讚')에는 묘사하고 있어, 예로부터 청정한 백의관음상은 달이 물에 투영된 환하고도 맑은 모습에 비유되어 예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관음이 두르고 있는 이 백의는 관음의 청정한 자비를 상징한다. 청정한 달빛이 맑은 물에 비친 이미지와 상통하여, 백의나 수월이나 모두 번뇌를 깨는 청정한 구원의 메타포임을 알 수 있다.

조선초기 세조가 미지산의 상원사에 행차하였을 때, 하늘에서 범패소리가 울려 퍼지고 휘황찬란한 광채를 느껴 공중을 우러르니 그곳에 흰 천의를 입은 관음보살이 현상하였다고 한다. '상서로운 기운이 치솟더니 백의관음이 나타났으며 그 휘황한 원광이 검은 색인가 하면 흰색이요 붉은 빛인가 하면 푸른 빛이었다'라고 최항은 그의 <관음현상기(觀音現相記)>에서 당시의 일을 생생히 묘사하고 있다. 백의관음 친견을 계기로 세조는 교서를 내려 반역죄, 역적죄, 반란죄, 불효죄, 살인죄, 횡령죄 이외에 해당하는 모든 죄수를 용서하고 풀어주었다. 관음의 자비를 몸소 보이신 행위인 것이다. 이러한 백의관음의 역사적 유래는 신라시대 의상 법사의 행적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옛날 의상 법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와 관세음보살의 진신(眞身)이 이 해변의 굴속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이곳을 낙산이라 이름 지었다. 이는 서역에 보타락가산이 있는 까닭이다. 여기서는 소백화(小白華)라고 부르는데, 이는 곧 흰 옷을 입은 보살님의 진신이 계신 곳이라 하여 이 뜻을 따서 이름 지은 것이다"라고 <삼국유사>에는 언급되어 있다. 관음이 계신 보타라카(Potalaka)산은 흰 꽃이 만발한 백화수산(白華樹山)이란 뜻이며 이곳은 백의관음이 계신 곳이다.



그림3 : 전남 강진 무위사 입구.

의상 대사가 이곳 강원도 양양의 해변에 낙산사라는 백화도량을 열고자 지은 <백화도량발원문>을 보면, '수월로 장엄한 무진상호'를 갖춘 '관음의 맑음과 자신의 혼탁함, 관음의 희열의 경지와 자신의 들끓는 번뇌의 경지'를 대조적으로 읊고 '보살의 빛을 모두 접해 두려움을 여의고, 몸과 마음 모두 평안하여 한 찰나에 백화도량에 다시 태어나길'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관음의 빛은 번뇌를 깨는 청정 자비의 빛인 것이다. <대일경소>에는 '백(白)'이라 함은 '보리의 마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보리의 마음 속에 사는 것이 백화도량에 왕생하는 것일 것이다. 희고 깨끗한 마음 · 청청보리의 마음을, 관음의 백의로 · 신광으로 · 수월과 같은 상호로 나타내게 된 것이다.

무위사 관음벽화에는 선재동자가 있을 자리에 대신 노비구가 두 손을 높이 올려 합장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당시 이 벽화 작업에 참여했을 법한 고승인지, 작품 발원과 관련된 왕실의 한 인물인지, 현재는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무엇을 간절히 원했는지는 좌측 상단에 쓰여진 게송으로 알 수 있었다.

해안의 홀로 고독한 장소
그 가운데 솟은 보타라카산 봉우리
성관음은 계신 바 없이 계시고
그 진신과 만난 바 없이 만나네
영롱한 구슬은 내가 얻기 원하는 바는 아니나
파랑새는 사람들이 쫓는 바
단지 간절히 친견하기 원하옵나이다

세계 최고 정신 지도자 고급 과정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도통사 神 치유의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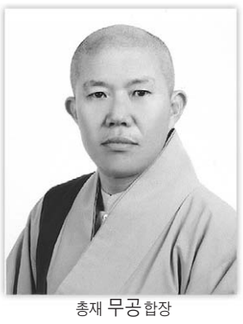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 마음조정법 고급 과정모집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도통사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지도자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고 내공 외공을 소유하며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다.

● **神치유의통사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총재 무공합장

지도자고급과정
● 입제일 :
2007년 10월 12일 (금요반)
14:00 - 18:00 (10회 과정)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전 수 비 200만원

불교심리철학	서양 심리철학
사마타 수행법	위빠사나 수행법
조상 천도 해탈 비법	빙의 · 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조상영가 보는법	육효 신 비법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 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세계최고정신지도자협회 국제참선공지도자협회

● 전화 : 02)383-7057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4번)


대행스님

곧바로 믿고 그냥 직선으로 들어가야!

벌써 날씨는 가을 날씨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때 쳇바퀴 돌 듯 찰나찰나 변해서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정신계는 무시하고 물질계만 집착하여 물질 50%만 넣고 굴리려니까 맞지 않습니다. 정신계의 50%와 물질계의 50%가 맞먹어서 같이 작용을 해야만이 100%가 되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바깥에서 끄달리고, 바깥으로 이름을 찾고, 바깥으로 형상을 찾고, 바깥으로 허공을 보고 모든 것을 허무하다고 하고 이렇게 나가시니까 50%는 감추어져서 100%가 같이 돌아가지 못하는 이치가 됩니다. 그러니 뭐가 하나라도 걸리지 않고 순수하게 돌아가겠습니까? 모두가 걸리고 액난이 거듭거듭 닥쳐오고, 내 몸도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되는 거죠. 모두 회보에 나와 있으니까 보셨으리라고 믿고, 오늘은 살아나가다가 어떠한 고난이 생길 때 여러분이 여기를 찾아오시는 얘기를 합시다.

부처님 말씀과 다른가 안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시게 되면 어떠한 액난이나 어떠한 고난을 안고 옵니다. 그 안고 오는 고난 액난이 어디에서 있는가? 바로 내 한마음 속에서 악이 술술 풀려 나오고, 액이 술술 풀려 나오고, 병고가 술술 풀려 나오고 모두 과거에 살던 인연에 따라서 업이 지어진 관계로 그렇게 풀려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을 거기다가 되맡겨 놔야만 되입력이 돼서 앞의 것이 무너지고 새로이 입력된 게 현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왜 "나는 생각해본 예도 없고, 말한 예도 없고, 행한 예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치는 여러분이 여기에 오실 때 뭘 가져왔다면 마음으로 가져오시죠? 내게도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마음이 한데 합쳐졌을 때 광력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합쳐서 작용을 할 때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의 양면이 합쳐지면 전자와 전자가 없어지고 그 에너지광만 나오게 돼 있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양면이 다 없어지고 불만 번쩍 일어나듯이 여러분이 가져온 재료에 성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했다고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중에 어떤 누가 했다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걸 좁게 보면 네가 하고 내가 했다 하겠지만 넓게 본다면 네가 했다 내가 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두가 공(空)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독불장군이 없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애를 낳아도, 아내 자식이라고만 할 수도 없고 남편 자식이라고만 할 수도 없습니다. 넓게 보면 모든 문제들이 네 자식 내 자식이 따로 없고, 네 부모 내 부모가 따로 없고, 네 형제 내 형제가 따로 없다는 그런 이치가 돌아가죠. 그럼으로써 '하지 않았다'도 아니고 '했다'도 아닙니다. 잘 생각해보십시오. 했다 안 했다 이것이 없습니다. 네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그게 없습니다. 네가 했다 내가 했다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일체 중생이 다 그 무심(無心)에 와서 닿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게 무심이기 때문에, 들여놓은 것도 두드러짐이 없고, 그것을 많이 굴려서 내보내도 또 주는 사이가 없다 이겁니다. 영은 영이니까. 알아듣기 쉽게 하느라고 영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이 왜 묘하냐? 그것은 체가 없어서, 만물을 목신 한 가지로 비유할 때, 목신과 내 마음이 한데 한마음이 된다면 내가 목신이 될 수 있고 목신도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자르면 탈이 난다고 하는 것도 둘이 아닌 까닭인데 그 마음을 내 마음에다 넣어서 한마음이 된다면 그때는 잘라도 괜찮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모두 신중단을 만들어놓고 영가 위패를 붙여놓고 하는데 그것을 모두 없애도, 그 마음이 한마음으로 들기 때문에 위패는 치워도 된다 이겁니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이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이 얼마나 묘하고, 뜻이 깊고 광대무변한지 여러분은 들은 얘기 또 듣고, 들은 얘기 또 듣고 그래야만이 어느 순간 귀가 번쩍 뜨이죠. 어언간에 수만 번을 들어서 흘러져가다가 어느 순간 한번 딱 감응이 오는 때가 있습니다. 듣는다고 다 감응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잘 침착하게 들으시고, 침착하게 행동하시고, 침착하게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생전에 마음으로 항상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만 굴려서 생각하고, 이익하게만 굴려서 생각하고, 이익하게 굴려서 말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구덩이에 빠뜨릴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그냥 해버리는 말,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내뱉는 말이지만 그게 아주 적중해서 현실로 나오는 무서운 도립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전자와 전자가 한데 합일해서 돌아갈 때, 바로 두 전자는 그냥 없어지는 거죠. 없어진다 하는 거는 하나로 몰입하기 때문에 없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력만 즉, 에너지광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니하면 성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면 참 유전성으로 오는 사람, 영계성으로 오는 사람, 세균성으로 오는 사람, 업보성으로 오는 사람, 윤회성으로 오는 사람 등 갖가지로 많습니다. 이런 거를 병원에서 100%를 다 해결한다고는 못 봅니다. 과거로부터 온 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정신계의 발전을 아니 한다면 그걸 대처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65%든 60%든 대처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는 내 몸을 이끌어나가지 못하며 내 가정도 이끌어나가지 못합니다. 넓게 생각하세요. 좁게 개별적인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포괄적인 하나로 생각을 하세요. 한 가정이라면 한 방통 안이라고 봅니다.


그림 · 최주현

내가 항상 "전력은 다 똑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방편으로. 전구는 많지만 전력은 똑같다 이럽니다. 그래서 남편이나 자식이 내 뒤를 따라주지 않는다고 해서 싸우고 '왜, 나는 나가는데 안 나가느냐?'고 온통 야단들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이 마음의 작용이니까 내 주인공에다가 '한마음 주인공!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줄 수 있고, 우리 식구를 다 이끌어줄 수 있고, 내 몸을 이끌어줄 수 있고, 성사가 되는 것도 거기요 성사가 안되는 것도 거기니, 성사가 되게 하는 것이 거기밖에 없다.' 이렇게 믿고 맡기고 놓았을 때 가정이 점점 마음이 밝아지게 돼 있습니다. 전등은 다 각각이지만 전력이 같으니까. 그러니 그렇게 밝아질 것을 나가서 안 들어오느니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느니 하면서 잠도 못 자고 아등바등하면서 온통 애를 태우니 병은 병대로 나고, 가정은 가정대로 파괴가 되고, 화목하지 못하고, 부드러운 말 나오지 못하고, 부드러운 행 나오지 못하고 이거는 모두가 악화가 되는 거죠. 너그럽게 생각을 하십시오, 너그럽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배낭을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과거는 없다는 얘깁니다. 여러분의 몸속에 벌써 현실로 수억 개나 되는 악업 선업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거가 어딨습니까? 미래는 또 아직 오지 않았으니깐 없고요. 그럼 그 배낭 속에, 이 몸을 배낭이라고 해도 됩니다. 배낭 속에 그렇게 수억겁을 거치면서 진화되면서 쫓고 쫓기면서, 인과를 짓고 업을 지은 이 악업 선업을 어떻게 해결을 하시렵니까? 모두 나오는 대로 용도에 따라서 거기다 맡겨 놓으신다면, 바로 앞서의 것은 무너져 없어지고 현실에 좋게 생각해서 새로 맡기는 것만이 풀려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숙명통(宿命通)이라고 하죠. 비교한다면 지금 컴퓨터와 같은 거죠. 과거를 짊어지고 나오는 것은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나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나는 그렇게 해도 안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안되긴 뭐가 안됩니까? 생활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인데, 모든 것이 여러분이 있으니까 상대가 있죠. 여러분이 없으면 상대가 있을 리가 있나요, 무효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 상대가 있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고 모든 게 일어나는 거니까, 모든 것은 나로 인해서 상대가 있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태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화두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화두예요. 화두를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어요. 그대로 내가, 내 주인공이 화두니까. 앉으나 서나 자나 깨나, 일을 하나 똥을 누나 모든 것이 참선 아닌 게 없어요. 좌선이다, 입선이다, 행선이다 이런 것을 모두 한데 합해서 참선이라고 하는 겁니

☞22면으로 계속

한국불교여래종 종도와 사부대중 여러분앞에 참회의 예를 올립니다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장 법룡) 총본산 옥천 금강 대약사사 는 2002년부터 대웅전 불사를 시작하여 2007년 12월 낙성 대법회를 준비하던 중 2007년10월1일 새벽 화마로 대웅전이 전소하는 시련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래종 전 종도는 가람수호를 하지 못한 점 깊은 참회의 말씀을 올립니다. 화마로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전 종도에게 한국불교 여래종 종정 인왕큰스님께서는 유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전 종도는 합심단결하고 하루빨리 대웅전 복원불사를 시작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통해 더 큰 발원의 계기로 삼아 심기일전으로 환희심의 불도량을 이룰 수 있는 신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복원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여래종 총본산 대약사사 대웅전 복원불사에 불자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우체국 301119-01-001223 예금주 : 여래종 총무원)

■ 문의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 71번지
전화 033-734-1077. 011-369-4154 총무부장 송운

2007년 10월 10일

한국불교여래종 총본산 옥천 금강 대약사사

고정됨이 없이 공해서 그대로 그대로 돌아갈 뿐…

☞21면에서 계속

다. 그러니 앉았을 때는 앉아서 생각하고 설 때는 서서 생각하고, 일할 때는 일하면서 생각하고 그대로 하십시오. 내가 없으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닥치는 모든 일이 여러분 배낭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딴 데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배낭 속에서 나오는 것 배낭 속에다 다시 맡겨 놔야만이 과거에 입력됐던 것이 없어진다 이 소립니다. 여러 가지 천차만별로 나오는 그 액난을 어떻게 소화하고 나갈 겁니까? 거기서 나오는 줄 모르고, 거기서 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지겹게 만들고, 딴 사람을 통해서 망하게 만들고, 딴 사람을 통해서 죽도록 매를 맞게 하고, 딴 사람을 통해서 사기를 당하게 하고 이 별의별 우환이 다 드는 것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억지로 못 합니다, 이거.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놓고 '거기서 액난이 다 나오는 거니까, 액난을 다 없앨 수 있는 것도 그 자리밖에 없다.' 하고 놓는 것이지 '나를 잘 되게 해주시오.' 하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곧바로 믿고 그냥 직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主人空)! 한마음 주인공! 나를 이렇게 해주시오.' 이게 아닙니다. '해주시오'가 어딨습니까? 둘이 아닌데. 유심(有心)과 무심(無心)이 어떻게 둘이 됩니까? 정신과 육체가 어떻게 둘이 됩니까? 그러니까 '해주시오'가 아니라 틀림없이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 하고 놓는 겁니다.

이심전심으로써 수없이 통하고 돌아가는데 내 마음이 저쪽 마음으로 가서 해결을 하는 것도, 내 몸뚱이 속에 있는 중생들을 바로 보살로 화하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이 없이는 내 속에 있는 이 업보성을 전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전부 보살로 만들 수 없습니다. 보살로 만들지 못하면 중용을 할 수 없습니다. 즉 무심(無心)의 중용, 보이는 데나 보이지 않는 데나 100%를 작용하면서 굴리는 것이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쯤 해두고 여러분이 질문할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질문자1(男): 스님께서는 항상 말씀으로도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제 안으로도, 그리고 밖으로도 늘 가르쳐주시고 계십니다.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 여쭈어보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은 그 윤회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현대 과학에서는 윤회한다는 그것을 유전자를 통해서 후세에게 계속 자기를 복제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개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육신은 본래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마음은 다시 본래 주인공 자리로 되돌아간다고 그러신다면 그 업식으로 뭉쳐서 윤회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앞전에 말씀하신 그 배낭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배낭 속에서 나온 업식이 모양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스님: 물론 그 배낭 속에 생명, 의식, 모습 다 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의식 자체는 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 자체가 체가 없듯이 모두가 내 마음이 하는 대로 행을 따라줍니다. 이 인과의 업식은 잘되고 잘못되고를 자기가 자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마음 따라서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윤회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윤회라는 거를 못 느낍니까? 사계절이 돌아오는 것도 윤회입니다. 우리가 어린애로 태어나서 늙을 때까지 이것도 윤회입니다. 또 저런 별성도 이 거죽만 벗습니다. 은하계에서 별성들의 마음이 태양계를 만들었다 합시다. 그럼 만들었으면 이 옷만 벗지 영혼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본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에너지가 부합되면 다시 옷을 입고 생산이 됩니다. 인간도 영혼이 그냥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있다고, 과거의 업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나가는 모든 것이 조금도 에누리 없이 자기한테 자기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몸을 받아서 또 나오죠.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있다 해서 어린애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거기 한데 합쳐져야, 삼합이 합쳐져야 임신이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물이 올라가서 비로 내립니다. 비로 내리면 천차만별로 돼 있는 이 생명체들이 다 그걸 먹고 삽니다. 살아나가는 데도 수없이 돌고 도는 겁니다. 엊그저께도 얘기했지만 독사가 먹으면 독물이 되고, 독의 피가 되고, 약초가 먹으면 바로 약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또 물을 먹고 땀을 흘리고 죽고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물로 돌아가서 도랑물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바다에서 또 올라가고 또 이렇게 먹고 사는 겁니다. 이런데 어떻게 윤회가 아니라고 그럽니까? 윤회라는 건 이름이지 일체 만물만생이 다 그렇게 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기만 하고 죽어서 그냥 없어진다면 지속되는 끝간 데 없는 진리가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질문자1(男): 스님 제가 지금 살아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데 어떻게 윤회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과거….

▶스님: 그럼 말입니다, 댁의 이름을 몇 개를 가졌죠? 몇 개를 가졌습니까? 이름?

▶질문자1(男): 그냥 저죠.

▶스님: 형님이라는 이름도 가졌죠? 동생이라는 이름도 가졌겠죠?

▶질문자1(男): 예, 물론입니다.

▶스님: 자식이라는 이름도 가졌겠죠. 사위라는 이름도 가졌고요, 남편이라는 이름도 가졌고요, 아버지라는 이름도 가졌고요. 그런데 순간순간 남편이 될 때는 자동적으로 남편의 말을 하고 남편의 행동을 하고 이런단 말입니다. 또 "아버지!" 하고 오면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말을 하고 아버지의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또 "얘, 아무개야!" 부르면 자동적으로 아들의 노릇을 하고 아들 말을 하고 아들의 행동을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데 어떻게 없다고 합니까?

▶질문자1(男): 제가 지금 살아있고 또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 또는 생각하고 제 본래 주인공 마음에다가 입력하고 다시 내놓고 그러는 것은 지금 제가 살아있기 때문인데 그걸 과거에서 이어져 오고 미래에까지 연결된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생활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나하고 같이 살아있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되게 할 수도 있고 또 손해를 많이 끼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인연대로 뭉쳐서 돌아가는 것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들이 참으로 제 소견으로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스님: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울 게 뭐 있습니까? 평상시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 모르면 얽매이고 알면 벗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은 이렇게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진리 속에서, 말하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듣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보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먹는 것도 고정됨이 없고, 만남도 고정됨이 없고,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없어요.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자꾸자꾸 바뀌어서 돌아가는데 생활 속에 있는 것을 뭐가 그렇게 의정이 납니까?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정신계의 무심도(無心道)를 이렇게 생활로써 엮어나가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니, 지금 정신이 빠졌으면 무효야! 하하하. 그런데 그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찰나찰나 돌아가고 있어요. 그대로 부처님 법이라. 여러분의 법이 그대로 부처님 법이라. 아, 윤회라고 말할 건덕지가 뭐 있나? 고정됨이 없이 공(空)해서 그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질문자2(男): 스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특히 강조하시는 부분은 "모든 것은 주인공이 하니까 그 주인공에다가 몰락 놓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존재를 관찰해보면 '예전부터 믿어왔던 나'가 아니라 참나 또는 주인공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느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느낄 순 없지마는 주인공을 찾을 때 스님께서는 관(觀)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늘 주인공을 찾을 때 어떻게 해야 가장 올바른 관을 할 수 있는지 그 관하는 관법(觀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 여태 얘기했는데도, 허허허. (대중 웃음) 묻는다면 어떡해. 관법은 누우나 앉으나, 내가 좀 앉아서 참구해보겠다 하고 앉았으면 '주인공, 당신만이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하는 겁니다. 그게 관법입니다. 당신이 당신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지 바깥에서 증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주인공만이 자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뛰어넘고 뛰어넘고 하는 교차로가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교차로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없다면 죽을 거고, 내쉬고 들이쉴 수 있다면 살 겁니다. 그 양면이 교차하는 그런 틈에서 그냥 그대로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니까, 바로 그놈이 있으니까, 그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건 그놈밖에 없잖아? 그리고 모든 생활을 들이고 내는 것이 자기가 있기 때문에 들이고 내는 게 아닌가? 자기가 없다면 들이고 낼 건덕지는 뭐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그리고 숨을 들이쉬고 내쉴 수 없다면 이 공부는 어떻게 해? 그렇기 때문에 이 배낭이라는, 종이라는, 집이라는 육신에 50%가 달려있다 이 소리야. 그래도 이해가 안 가나?

▶질문자2(男):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스님께서는 배낭에서 나오는 문제를 관하라고 말씀하시는 데 실제로는 관할 때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전혀 관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스님: 허허, 관하지 않으나 관하나 지구는 돌아가고 있어. 허허허. 세상은 그냥 돌아가고 있고, 자기가 관을 안 하든 하든 돌아가고 있어, 그냥. 안 하는 것도 그 자리요, 하는 것도 그 자리라 이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여여함이야. 안 한다 끊어졌다 하는 생각은 자기의 관념적인 생각이지 포괄적인 생각은 아니야. 그러니까 쉬라 이 소리야, 그냥. 하루 종일 24시간 얘기를 안 하고 그거를 끊어뜨리고 있다 하는 것도 자기 관념의 생각이지 끊어지긴 뭐가 끊어져, 허허, 시공이 없이 그냥 돌아가는데.

▶질문자2(男): 그럼 정말 쉬라는 얘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스님: 하하하. 아, 끊어진 것도 거기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도 거기서야. 이게 이런 게 있어. 24시간이라는 거는 우리의 관념적인 생각이지 24시간이라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아침에 생각했다 저녁에 생각해도 아침하고 저녁하고 그냥 붙어버려. 그 공간이 그냥 없어져 버려. 이렇게 묘한 법이야. 이래도 모르겠어요? 그건 사람이 만들어놓은 관념적인 생각이라 이거야, 하루 종일 내가 끊어뜨렸다 하는 생각은.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1년 10월 20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닥치는 모든 일이 여러분 배낭 속에서 나오는 것이지
딴 데서 나오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배낭 속에서 나오는 것
배낭 속에다 다시 맡겨 놔야만이
과거에 입력됐던 것이 없어집니다!



2007년도 행정자치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장기이식 대국민 인식전환을 위한 세미나

장기이식 활성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

(사)생명나눔실천본부는 '생명나눔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지향하며 장기기증을 바라보는 각 종교의 태도와 종교인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종교의 역할과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생명나눔의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일 시 : 2007년 10월 19일(금) 오후 1시 30분
◆ 장 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별관 2층
좌장 : 박광서(서강대학교 교수)

주제발표 14:15~15:55
1. 종교인의 뇌사 및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 이상목 교수(동아대학교)
2. 종교가 장기기증에 미치는 영향과 참여도 – 박진탁 목사(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장)
3. 한국인의 심성과 관습이 장기기증에 미치는 영향 – 김명재 교수(경희대학교)

종합토의 및 질문 16:05~17:40
박정우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성 운 스님(생명나눔실천본부 수석 부이사장)
방인성 목사(성터교회 담임목사)

보건복지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TEL. (02)734-8050 FAX. (02)734-8052
www.lisa.or.kr | lisa@lisa.or.kr

사찰 법당 음향설비

DX-707 스텐드 마이크는
音響研究家 金文華가 직접 개발해
특허청의 특허 제0176713호를 획득한
국내에 단 하나뿐인 마이크로



- 어떠한 앰프에 연결해도 뛰어난 흡음력, 음질 보장
- 자체에서 소리, 음질 조절

DX-707 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택배비 포함)

목걸이형 특수마이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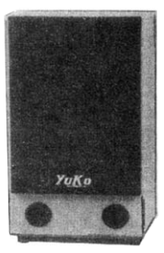
TM-108
목걸이 마이크, 각종 행사, 강의용
주문제작(한정수량 60개)
▷가격 : 120,000원 (택배비 포함)

고성능 탁상마이크



▷가격 : 135,000원 (택배비 포함)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가격 : 500,000원 (설치비 포함)

고음질 무선마이크



▷가격
1인용 보급형 : 220,000원
1인용 고급형 : 580,000원
2인용 보급형 : 480,000원
2인용 고급형 : 680,000원

일반 마이크



V-606LC
▷가격 : 65,000원 (택배비 포함)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일절
- 앰프 성능 보완, 클리닉
- 각종 마이크 주문제작, 판매
- 특수 스피커 주문제작, 판매

법당의 마이크 소리가 마음에 안드십니까?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화 (02)2697-9976 / 팩스 (02)2601-8284
홈페이지 www.yukosound.com



불자 세상보기

고 유 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선언' 보다 중요한 건 '실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합의함으로써 6 · 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기틀을 마련했다. '10 · 4 선언'에서는 6 · 15선언 이후의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아왔던 장애요소를 제거하고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종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인도적 문제 해결 등 남측이 준비한 의제를 거의 모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문은 6 · 15공동선언 채택 이후 남북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장애요소를 제거하면서 긴장 완화와 냉전 종식을 위한 기초를 다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북핵문제에 관한 연내 불능화를 합의한 직후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발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합의와 함께 종전선언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응한 것은 부시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을 달성하기 위한 징검다리로 남북정상회담을 활용할 가능성도 고려했을 것이다.

북한은 부시 행정부 임기 내에 북 · 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려 한다. 북한은 우선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관련 합의를 도출하여 당사자 해결의지를 확인하고, 남북한과 미국을 포함하는 3자 정상회담, 또는 중국을 포함하는 4자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종전선언을 하려는 큰 그림을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보여줬다.

한국전쟁 종료선언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은 부시행정부 임기 내 북 · 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나와 개혁 · 개방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상회담 합의문은 평화와 번영을 연결하여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자는 취지를 살려 민족공동번영과 관련한 많은 경제협력 합의를 도출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정 합의는 되풀이 돼 온 서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해결과 관련해서는 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에서 2 · 13합의를 연내 이행하기로 합의한 만큼 6자회담의 주요 의제로 보고 언급을 짧게 한 것 같다. 그러나 종전선언이 이뤄지려면 북핵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관한 의지를 종전선언에 관한 적극성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합의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울을 징검다리로 해서 워싱턴으로 가려는 북한의 확고한 의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핵실험 이후의 국면을 전환해 한국전쟁을 종료하고 북 · 미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나와 경제재건을 하겠다는 확고한 전략적 결단을 내린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과 방향을 설정한 1차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회담에서는 실천적 접근을 위한 실용적 사안이 많은 것 같다.

또 불신해소 차원에서 상대방 체제를 부정하는 국가보안법 등 법적 · 제도적 장치의 정비를 위한 남북 국회 논의, 임가공 형태에서 개발지원으로의 경협 성격 변화 및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선언은 남측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행될 수 있는 것으로, 남북이 모두 실익을 볼 수 있는 의제가 많다. 대북지원과 관련한 '퍼주기 문제'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2차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한국의 대외신인도는 높아질 것이다.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남북당국과 정치세력들의 '주관적 의도'가 무엇이든 객관적 현실은 남북관계 진전과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것이다.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핵해결을 촉진하고 한반도 평화관리가 이뤄져 긴장이 완화되면 대외신인도가 높아질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30. 공직사회의 종교오염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공직자 종교 발언 삼가고, 공공행사 종교색깔 없애야

교인들 중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정 종교 신자임을 나타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선진국에서는 공개적인 종교 표현을 상식에 어긋나는 일로 간주하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노골적인 종교발언이 잦아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한다.

개인의 취향이라면 할 말이 없으나 그가 공직자 신분이라면 차원이 전혀 달라진다. 그런 행위는 국민들로부터 일시 위임받은 '세속적 권력'과 자신들이 믿는 '종교적 권위'를 동시에 이용하려는 위헌적 행위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농촌공사의 한 지사장이 자신의 명함 앞면에 '지사장 ○○○', 뒷면에는 '○○교회, 장로 ○○○'라고 인쇄, 보기에 따라서는 장로임을 먼저 내세우는 명함으로 느껴져 타종교인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게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었다. 공기업인 한국농촌공사의 윤리강령 제10조 2항에 "임직원은 학연, 혈연, 종교, 직급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상기시키자 잘못을 시인하고 명함을 폐기함으로써 일단락되기는 했지만, 우리 사회에 별 문제의식 없이 종교색깔을 띠는 부적절한 행위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지 단적으로



임 내 규 前 특허청장

말해주는 사례이다.

수년 전 필자가 나온 학교의 동창회장이 임기를 마치면서 동문들에게 보낸 공식 인사말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으며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라고 썼던 적이 있다.

순수한 친목과 우정의 자리가 되어야 할 동창회마저 타종교인들을 배려하지 않는 사고방식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필자가 일부러 "공인인 회장의 처신으로는 적절치 못하다"며 정중히 답신을 보냈고, 그 후 종교적 색채는 많이 엷어졌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문제들이 일상화 되면 큰 문제가 되는 법이다.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닌 이유이다.

2001년 6월 4일 당시 임내규 특허청장은 전체 직원이 참여하는 월례 조회석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어리석으며… 본인은 새벽에 미사에 다녀왔다"며 특정종교를 믿으라는 듯한 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켜, 조계종 사회부장 스님을 만나 공식 사과까지 한 바 있다. 또 2004년에는 당시 전태홍 목포시장이 11월 26일 목포 KBS홀에서 열린 '2004 목포복음화 대성회'에 출석해 "목포시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발돋움하도록 기원해 달라"고 말했으며, 당시 조규선 서산시장도 7월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지역기관장 모임에서 "서산의 복음화를 위해 기관장들이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며 노골적으로 특정종교를 찬양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한축구협회 이영무 기술위원장도 '못 말리는' 사람들 중 하나다. 그는 올해 6월 11일 FIFA 청소년(20세 이하) 대표팀의 출정식에서 "정몽준 회장께 다윗 같은 지혜와 리더십을 허락해 한국 축구가 이처럼 발전하게 해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부상한 프리미어리거 4인방에게도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닿을 것"이라며 기도를 했다. 안산시 할렐루야팀의 단장으로서라면 모를까 국가와 국민을 대표하는 기술위원장이란 공인으로서는 자질이 의심되는 행위다. 그는 2006독일월드컵을 앞두고 실시했던 미주 전지훈련 동안에도 휴식일에 몇몇 선수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가 간증을 하는 등 타종교 선수들의 사기를 고려치 않는 부적절한 종교활동으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고 한다.

공공행사에서 종교분위기 연출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입학식, 졸업식, 투표장 등을 특정종교 시설을 이용하거나 띠 또는 현수막 등으로 특정종교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도 문제다.

2005년 4월 18일 세종홀에서 가진 4.19혁명 45주년 국가조찬기도회가 보훈처와 문화관광부의 지원 아래 이루어진 행사임에도 공익성이 배제된 채 개신교 기도회장으로 변질되어 당황했던 불자들의 항의성 제보를 받은 적이 있다. 4.19 관련 3개 단체가 주최한 것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기독교계(대회장 한기총의 이만신 목사, 준비위원장 김홍대 목사)가 4.19라는 엄숙한 이름을 빌어 교회 띠 두르고 안내하고 기도하는 등 국가예산을 사용하여 선교기도회를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주최측은 오히려 문제 삼는 불교계를 비난하고 심지어 폭언과 욕설까지 퍼부었으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기독교 행사로 하고 싶으면 기독교인들끼리 기독교 관련 장소에서 기독교 재원으로 하라. 일반인들까지 초청하여 공공시설에서 공공기관의 후원으로 치르는 공공행사를 종교로 덧칠하고도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는 그 무지가 우리 사회를 피곤하게 한다.

특정종교 신자임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항상 종교를 앞세우는 공직자들을 그저 '못 말리는 사람'으로 넘겨버릴 수는 없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종교오염이 우려할 만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공식 석상에서 공인의 위치를 망각한 종교적 발언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입법이 필요한 시점에 와있지 않나 판단된다.

불자의 눈

두 번째 화살도 맞을 것인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정범 스님이 홀로 동국대 교정에 섰다. 학교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석가모니 부처님 앞이다. 이유는 동국대에서 촉발된 신정아 사건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불교계와 동국대의 위신이 추락할 대로 추락하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는 현실이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워서다.

시나브로 졸업과 입학시즌이 다가오는데, 동국대 졸업생들이 세상에 나가 이력서라도 내려면 학교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원서를 들고 몰려오려면 보다 건강하게 거듭난 학교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책임론은 무성한데 책임을 질 사람은 없고 성명서와 비판은 날카롭지만 수용할 주체의 자세는 두루뭉수리 그 자체다. 때문에 인과의 법칙도 상실된 느낌이라는 한탄마저 나오고 있다.

언론은 언론대로 동국대는 물론 불교계를 온갖 의혹의 온상인 것처럼 안개 같은 보도를 연발하고 있다. 불교의 위기론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권력지향적인 측면이 지나치게 드러난 종단 지도자들의 성향과 포교에 대한 정책부재, 종립대학에 대한 관리의 허점 등이 총체적으로 비판대에 올려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지난 일에 집착할 때가 아니다. 미증유의 화살을 맞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화살의 비유'가 잘 말해주고 있다. 다음 화살을 맞지 않기 위한 지혜를 모을 때다. 정범 스님처럼 개인적인 참회도 좋고 각 종무기관의 쇄신 의지도 좋고 봉암사에서 열릴 대규모 참회정진도 좋다. 다만, 그러한 행동이 반드시 두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로 접목되어야 한다. 방일하지 말라. 지금불교계 내부의 '부도덕'과 '비불교적 사고'에서 시위가 당겨진 두 번째 화살이 우리들의 심장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

미얀마에 '민주화 꽃'을

미얀마의 스님들이 군부의 무자비한 군홧발 아래서 신음하고 있다. 최근 몇 주째 계속 되던 미얀마의 민주화 요구 시위는 다소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지만 스님들과 군중에 대한 탄압의 고삐는 늦춰지지 않았다.

이미 100명이상이 사망하고 2000명 이상이 구금 납치 됐다고 한다. 미얀마의 내부 사정은 외신이 전하는 것보다 훨씬 참혹할 것이다. 우리도 그리 오래지 않은 과거에 겪었던 일이다. 민주화는 민주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탄압과 폭력에 맞선 싸움의 뒷길에서 만나는 것인가? 한국불교계가 미얀마의 스님들에게 '부처님의 자비를 나누는 형제'임을 천명하면서 그들의 용기를 지지하고 나섰다.

중앙신도회와 여러 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부의 탄압을 중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미얀마의 스님들을 위해 지원금을 보내기로 하고 지속적인 지지와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불교계의 이 같은 움직임은 매우 아름답다. 이미 독재의 긴 터널을 경험한 한국불교는 사실, 1970년대 이후의 민주화 운동에서 그다지 두드러진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았었다. 그러나 한국불교의 현대사에 있어 민주화 운동의 불교적 논리를 구축하고 민중불교의 횃불을 들었던 귀중한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이제 한국불교는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의 민주화를 꽃피우는 거름 역할을 할 때인 것이다.

봉 행

삼각산 보광사에서는 수륙천도대재 49일 기도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중 큰 스님들의 초청법회를 하오니, 모든 불자님들이 무루 동참하셔서 법석을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07년 10월 12일(음 9월 2일) 금요일
◆수륙재 6재 수월 큰스님

일 시 : 2007년 10월 13일(음 9월 3일) 토요일
◆신중기도 수월 큰스님

일 시 : 2007년 10월 19일(음 9월 9일) 금요일
◆수륙재 회향 도형 큰스님

회주 대현
주지 성비

기획 황석 재무 황학
사회 황엽 호법 도전
도감 현웅 원주 용주

재단법인 선학원 삼각산 보광사
서울 강북구 우이동 76-19 전화 02)993-3808 / 팩스 02)993-6981







❶ 봉암사를 오르는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들.
❷ 9월 28일 3,000여 회원들이 법당 앞 마당을 가득 메웠다.
❸ 문경지역의 특산물을 구입하는 모습.
❹ 봉암사 주지 함현 스님께 기도 회원들이 죽비 선물을 받고 있다.

문경 봉암사로 떠난 열세번째 기도회

'바른 마음 · 자비로운 실천 · 아름다운 세상' 선언

보현보살 10대 행원 실천지침으로 설정하고결사 60주년 맞은 '특별 도량' 서 정진 다짐

조계종 특별수행도량 봉암사, 이 곳은 일반인들이 쉽게 드나들 수 없는 곳이다. 그래서 일반 불자들에게 봉암사는 살아생전 꼭 가보고 싶은 성지로 꼽힌다. 1947년 10월 19일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봉암사 결사 이후 지금까지 봉암사 산문은 굳게 닫혀 있다.

삼각산 도선사 중흥조 청담 스님을 비롯해 성철 · 자운 · 우봉 · 성수 · 서암 · 법전 스님 등 당대의 대표적 선지식들이 뜻을 모은 지 60주년을 맞아 봉암사는 이례적으로 산문을 활짝 열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재가불자들의 신행결사를 위해 큰 마음을 냈기 때문이다. '바른 마음, 자비로운 실천, 아름다운 세상'을 생활 속에 구현하겠다고 선언한 108산사순례기도회 회원들이 그 특권(?)을 부여 받았다.

회원들이 펼치는 이 운동은 관념화되고 정형화된 불교를 지양하고, 실천하고 행동하는 불교로 나아가기 위해 회원 개개인의 수행과 자아성찰을 통한 의식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범불교 차원의 실천운동이다. 즉 남을 생각하고 수행하는 것이 부처님 본래의 가르침이라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는 실천하여 생활화 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108산사순례기도회 측은 앞으로 '바른 마음, 자비로운 실천, 아름다운 세상'이란 슬로건으로 108산사를 찾아 기도하고 염불하며, 농촌 · 자연 · 장병사랑을 실천해 범불교 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 실천지침으로 10가지 항목을 설정했다고 밝혔다.

그 실천지침은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나오는 보현보살의 10대 행원에 기초하여 현대에 맞게 새롭게 다시 구성했다. △이웃들에게 칭찬하기 △삼보를 믿고 찬탄 공경하기 △모든 중생들에게 널리 베풀기 등이 그것으로 108산사순례기도회원들은 매일 마다 이 10가지 실천지침으로 스스로를 점검하며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다.

<천수경>, 108참회, 108산사순례기도발원문, 봉암사 시(詩) 낭독에 이어서 바른신행 실천 운동 선포식 등으로 9월 28일과 29일 이틀에 나눠 진행된 법회에는 선묵혜자 스님과 봉암사 주지 함현 스님, 신현국 문경시장 등이 참석해 뜻을 같이 했다. 특히 지난 9월 15일 1주년 기념법회 이후 처음으로 108대의 버스가 운행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순례법회에서 선묵혜자 스님은 "이루고 싶은 소망 하나쯤은 항상 간직하고 있는 삶이 아름답듯, 가보고 싶은 곳 하나쯤 간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이며 "오늘날 한국불교의 마지막 보루라고 일컬어지는 봉암사를 가보고 싶은 곳으로 간직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봉암사 주지 함현 스님은 "올곧게 정진하는 도량인 봉암사에서 함이 없는 부처님의 공덕을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라고 108산사회원들의 방문을 환영했다.

이 날 순례에도 어김없이 군장병을 위한 초코파이가 산을 이뤘다. 이번에 모아진 5만 여 개의 초코파이는 인근 군부대와 육군 논산훈련소 두 군데로 나눠 전달됐다. 마석에서 할아버지를 졸아 매번 108산사순례기도를 찾은 박대권(7살) 어린이는 군인들에게 초코파이를 전달하며 "군인아저씨 맛있게 드세요"라며 군인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달했다.

108산사순례기도회는 창립 1주년을 맞아 바른신행 실천운동이란 또 다른 신행문화를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108산사순례가 21세기 신행문화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라고 늘 주장하는 회주 선묵혜자 스님의 말씀이 가슴깊이 다가온다.

문경 | 글 · 사진=고영배 기자

협찬 : 108산사순례기도회



세계인의 건강을 생각하는 돌침대, 흙침대 전문기업
(주)장수구들 이 만든
www.geubooki.co.kr
한글도메인 | 거북이표건강침대,장수구들
장수하는 거북이
옥돌침대
흙 침 대
'불기 2551년, 불자님 성불하십시오.' – 불자기업이 만듭니다.


인기 상품
422 로채Q(황토흙)


인기 상품
304 목련Q(음수옥)


특별가 235만원
424 비토Q(황토흙)


특별가 199만원
303 피아노Q(홍맥반석)

천하를 얻고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이나 따뜻한 아랫목을 그리워하시는 스님이나 부모님께 건강침대를 선물하세요
흙침대 거북이표


160 엔틱침상(홍맥반석)


163 카우치(거실용쇼파/황토흙)


188 플로어 침상(홍맥)


168 신카우치(황토흙)


161 신침상(황토흙)

서울본사전시장
412-2574~5 (代)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97-2 (구송파사거리)
➤ 지하철 8호선 송파역1번출구 잠실방향100M 우측



하남물류전시장
(02) 3402-2520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하훼단지맞은편
➤서하남입구사거리 오금동 화훼단지맞은편



전국무료배송
(도서지역제외/배송비별도)
본사에서 직접 소비자님께 배송해 드립니다.

강릉점 (033) 651-5223
대구점 (053) 586-0202
제주점 (064) 743-2366
취급점 및 대리점모집 02)487-1097